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2 호 12 월 2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7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잡 지

제12호 (145)

1957년12월25일

목 차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 …… (3)

평화 선언 …… (13)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경축 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 회의들에 참가한 우리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 …… 김 일 성 (18)

권두언—위대한 사변, 위대한 강령 …… (36)

12월 전원 회의의 거대한 생활력 …… (43)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단결은 평화와 사회주의 승리의 확고한 담보 …… 김 정 환 (50)

현 시기 당 상업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중요 고리들 …… 한 대 영 (56)

10월 전원 회의 결정의 관철을 위하여

기본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혁신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 …… 서 을 현 (65)

설계의 표준화는 조립식 건설의 필수 조건 …… 한 제 선 (71)

맑스—레닌주의 미학의 몇 가지 문제 …… 문 종 상 (74)

사회주의와 평화적 공존 리념의 승리 …… 고 화 영 (82)

—끈 술 따 찌 야 —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 김대 변, 사유 강좌 (90)

—서적 해제 및 평론—

리 청원 저 《조선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 관하여 …… 황 장 엽, 김 후 선 (99)

1957년 《근로자》 총내용 …… (109)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

알바니야 로동당, 불가리야 공산당, 웽그리야 사회 로동당, 월남 로동당, 독일 사회 통일당, 중국 공산당, 조선 로동당, 몽고 인민 혁명당, 파란 통일 로동당, 루마니야 로동당, 쏘련 공산당,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대표들은 회의에서 현 국제 정세 및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당면 문제들과 또한 당들 간의 관계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의견 교환은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회의에 참가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현 국제 정세를 평가함에 있어서 한결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회의에서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일반적 문제들도 또한 토의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선언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본주의 제 국가 형제 당 대표들과 협의하였다.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형제 당들은 본 선언에 표명된 리념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자신들이 결정할 것이다.

1

우리 시대의 기본 내용은 로씨야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에 의하여 개시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다. 지금 벌써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 즉 9억 5,000만 명 이상이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섰으며 새 생활을 건설하고 있다. 사회주의 력량의 거대한 발전은 전후 시기에 반제국주의적 민족 운동의 급격한 장성을 촉진시켰다. 최근 12 년간에 중화 인민 공화국, 월남 민주 공화국 및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이외에 7억 이상의 인민들이 또한 식민주의의 멍에를 벗어 던졌으며 자기의 민족적인 주권 국가들을 창건하였다. 아직 예속 상태에 있는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은 자기의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및 민족 해방 운동의 발전은 제국주의의 붕괴 과정을 급격히 촉진시켰다. 제국주의는 인류의 대부분에 대한 지난날의 지배를 상실하였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사회는 심각한 계급적 모순과 또한 그 국가들 간의 첨예한 모순들에 의하여 고난에 빠지고 있다. 한편 이 나라들의 로동 계급은 제국주의 및 독점체들의 정책을 반대하여 더욱더 단호히 나서고 있으며 자기들의 생활 조건의 개선과 민주주의적 권리 및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세계의 발전은 두 개의 대립되는 사회 제도의 경쟁 행정과 그 결과에 의하여 규정된다. 40 년간에 사회주의는 사회 제도로서 자본주의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증시하였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하에서는 볼 수도 없으며 어림도 없는 속도로써 생산력 발전을 보장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의 앙양을 보장하였다. 경제,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쏘련의 거대한 성과들,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달성한 성과들은 사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근로 대중들은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며 인민 정권은 인민 대중의 정치적 통일을 보장하며 민족들의 평등과 친선을 실현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를 유지하며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대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장성 강화되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는 평화와 진보와 인민들의 자유에 리롭게 국제 정세에 더욱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면 제국주의는 몰락의 일로를 걷고 있다. 제국주의의 지위는 식민지 체계가 붕괴된 결과 현저하게 약화되였다. 식민주의의 멍에를 벗어 던진 나라들은 이미 쟁취한 독립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성의 달성과 인민들 간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계의 존재, 사회주의 국가들이 평등한 기초 우에서 상기 나라들에 주고 있는 원조, 그리고 평화를 옹호하며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그들 간의 협조는 이 나라 인민들에게 자기의 민족적 자유를 수호하며 사회적 진보의 길을 따라 전진할 가능성을 크게 하여 준다.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간의 모순이 첨예화되였으며 많은 면에서 현대 과학과 기술이 사회적 진보와 전체 인류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사회의 생산력 발전을 구속하며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뒤흔들리고 있으며 불안정하다. 아직 자본주의 세계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비교적 좋은 경기는 많은 면에서 군비 경쟁과 기타 일시적 요인들의 불견고한 기초 우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는 새로운 심각한 동요와 위기들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일시적 경기는 자본주의 제 국가의 일부 로동자들 가운데서 개량주의적 환상을 지속케 하고 있다. 전후 시기에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의 일부 계층들은 우심해 가는 착취를 반대하며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임금을 일정하게 인상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렇다 해도 그중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실질 임금이 전전 수준보다 낮은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의 대부분 특히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서는 수백만 근로자들이 빈궁에 처하여 있다. 농촌 경리에 대한 독점체들의 광범한 침투와 그들에 의하여 강요되는 가격 정책, 은행 크레지트 및 대부 제도의 결과 그리고 군비 경쟁에 의하여 초래되는 세금의 증대로 말미암아 기본 농민 대중이 계속 파산되며 빈궁해지고 있다. 비단 부르죠아지와 로동 계급간 뿐만 아니라 독점 부르죠아지와 각 계층 인민들 간의 모순, 그리고 미국 독점 부르죠아지를 일방으로 하고 기타 자본주의 나라 인민들과 지어는 부르죠아지를 타방으로 하는 량자간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은 혹독한 조건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곤난한 처지로부터 벗어 나는 유일한 출로가 사회주의라는 것을 더욱 굳게 확신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적극적 투쟁에 그들을 인입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가능성들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의 침략적 제국주의 계층들은 소위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추구하면서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에 대한 지배권을 쟁취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사회 발전 법칙에 의한 인류의 전진 운동을 저애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구실 밑에 더욱 많은 수의 나라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며 민주주의적 자유의 말살을 사촉하며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의 민족적 독립을 위협하며 해방된 인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 멍에를 들씌우려고 시도하며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계통적이며 적대적인 파괴 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의 일정한 침략 계층들은 자기의 정책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의 전체 반동 세력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계층들은 세계 반동의 중심으로 되고 있으며 인민 대중들의 흉악한 원쑤들로 되고 있다. 이 반인민적, 침략적 제국주의 세력들은 스스로 자기 정책으로써 자신의 멸망을 준비하며 스스로 자신을 매장할 매장인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제국주의가 존속하는 한 침략 전쟁들을 위한 지반도 또한 남아 있을 것이다. 전후 시기에 미국, 영국, 불란서 및 기타 제국주의자들과 그 종복들은 인도지나, 인도네시아, 조선, 말라이, 케니아, 과테말라, 애급, 알제리아, 오만 및 예멘에서 전쟁을 진행하였거나 또는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침략적 제국주의 세력들은 군비 축소, 원자 수소 무기의 사용 및 생산의 금지와 이 무기 시험의 즉시적 중지에 관한 협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소위 랭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군비 경쟁을 진행하며 나날이 새로운 군사 기지들을 창설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정책을 실시하며 새 전쟁의 위험성을 조성하고 있다. 핵 무기 금지에 대한 협정이 달성되지 못한 조건에서 세계 대전이 발발하는 경우에는 이 전쟁은 필연코 그 파괴력으로 보아 류례 없는 핵 전쟁으로 될 것이다.

서부 독일에서는 미국의 방조하에 독일 군국주의가 재생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구라파의 중심에 엄중한 전쟁 위험의 온상이 조성되고 있다. 평화를 위협하는 서부 독일 군국주의와 복쑤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독일 인민의 평화 애호 력량과 전체 구라파 인민들의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이 투쟁에서 독일 력사상 최초의 로동자, 농민의 국가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역할은 큰바, 본 회의 참가자들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자기의 련대성과 완전한 지지를 표명한다.

동시에 제국주의자들은 중근동의 자유 애호 인민들에게 악명 높은 《델레스—아이젠하워주의》를 강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이 지역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그들은 독립 국가 씨리아를 반대하는 음모와 도발을 조직하고 있다. 씨리아, 애급 및 기타 아랍 국가들을 반대하는 도발은 아랍 국가들을 분렬시키며 그들을 고립 상태에 몰아 넣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유와 독립을 말살하기 위한 길을 닦으려는 것이다.

세아토의 침략 쁠럭은 동남 아세아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조성하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적 공존이냐 하는 문제는 세계 정치의 근본 문제로 되였다. 모든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가 조성한 전쟁의 위험성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 평화 력량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가능성이 있으리만큼 장성하였는바, 이는 애급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계획의 파탄이 명백히 보여 주었다. 웽그리야에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하여 반혁명 세력을 리용하려던 제국주의자들의 계획도 또한 파탄되였다.

현대의 강력한 력량들인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제 국가의 불패의 진영, 반제국주의적 립장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제 국가와 함께 광대한 평화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아세아 및 아프리카의 평화 애호 국가들, 국제 로동 계급과 우선 그의 전위대인 공산당들, 식민지 및 반 식민지 인민들의 해방 운동,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대중적 운동이 평화 위업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립을 선포한 구라파 제 국가 인민들과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제국주의 제국 자체내의 인민 대중들도 새 전쟁 조직 계획에 단호히 항거하고 있다. 이 강력한 력

량들의 단합은 전쟁의 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바, 제국주의적인 전쟁 광신자들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전쟁을 감히 도발하는 경우에는 제국주의는 사멸할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인민들은 그처럼 혹심한 고난과 희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제도를 더는 참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회의에 참가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현 시기의 조건하에서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의 결정들에 의하여 가일층 발전된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레닌적 원칙이 사회주의 제 국가의 대외 정책의 확고 부동한 기초이며 평화와 제 인민간의 친선의 믿음직한 기초이라는 것을 성명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과 인도 공화국이 공동으로 제기한 5개 원칙과 또한 아세아 및 아프리카 제국 반둥 회의가 채택한 명제들은 평화적 공존의 리익에 부합된다. 지금 평화와 평화적 공존을 위한 투쟁은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광범한 대중의 요구로 되였다.

공산당들은 평화 옹호 투쟁을 자기의 제1차적인 과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모든 평화 애호 력량들과 함께 그들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2

회의는 현 정세하에서 사회주의 제 국가와 모든 나라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통일과 형제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과 국제 로동 운동, 민족 해방 운동 및 민주주의 운동을 단합시키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간주한다.

생활에 의하여 검열된 맑스—레닌주의의 원칙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들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내의 국가들과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호상 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전 세계 평화 유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화 및 사회적 진보의 성새로 되고 있는 쏘련 및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을 모든 나라 근로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오늘날 그들 자신의 절실한 리익에 부합된다. 모든 나라 로동 계급과 민주 력량과 근로자들은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형제적 련계를 부단히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며 세계 최초의 가장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 및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이룩된 력사적인 정치적 및 사회적 전취물을 사회주의의 원쑤들의 온갖 음모로부터 수호하고 이 전취물을 확대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완전한 평등, 령토 완정과 국가적 자주성과 주권의 존중, 호상간의 내정 불간섭의 제 원칙에 립각하여 자기들의 호상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것은 중요한 원칙들이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의 본질의 다는 아니다. 이 나라들의 호상 관계의 떼여 낼 수 없는 부분을 이루는 것은 형제적 호상 원조이다.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은 이 호상 원조에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 및 동지적 호상 원조에 립각하여 그들 사이에 광범한 경제, 문화적 협조 관계를 수립하였는바, 이 협조는 매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및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전체 사회주의 대가정을 공고히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앞으로도 호상간의 경제; 문화적 협조를 확대하며 완성시킬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만약 모든 다른 나라들이 희망한다면 그들과 평등, 호혜 및 내정 불간섭에 기초하여 경제, 문화적 련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데 찬동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련대성은 그 어떤 다른 국가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 련대성은 호전적 제국주의 계층들의 침략적 야망을 제어하고 강화되여 가는 평화 력량을 지지 고무하면서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의 리익에 이바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세계가 군사 블럭들로 분렬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서부 렬강이 호상성의 원칙에서 군사 블럭을 청산할 데 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제의를 접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현 정세하에서는 방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구라파 인민들의 안전과 전 세계 평화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는 와르샤와 조약 기구는 응당 존속되여야 하며 강화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들이 사회주의의 공통된 길에 들어 섰으므로 하여 그리고 사회 경제 제도 및 국가 주권의 공통된 계급적 본질, 호상 지지와 원조의 필요성,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리해 관계 및 목적의 공통성,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하여 하나의 대가정에 뭉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결과 긴밀한 통일은 매개 사회주의 국가의 민족적 독립과 주권의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 제 국가간의 형제적 관계와 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맑스—레닌주의적, 국제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며 국제주의를 애국주의와 결합시키는 정신에서 전체 근로자들을 교양함이 필요하며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배타주의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제 국가간의 호상 관계의 모든 문제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의 엄격한 준수에 기초한 동지적인 토의의 방법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3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는 각국의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의 광범한 대중 속에서 더욱더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은 더욱더 새로운 수백만 사람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대중에 대한 사상 공작에 더욱더 큰 의의를 부여하면서 사회주의를 외곡하고 맑스—레닌주의를 비방하며 대중을 오도하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부르죠아 사상과 투쟁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적 선전의 허위와 비방을 폭로하며 사회주의와 평화와 제 인민의 친선의 사상을 알기 쉽고 설득력 있는 형식으로 광범히 선전하는 것은 제1차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회의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 문제들에 대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견해의 일치를 확인하였다.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이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서는 모든 나라들에 고유한 일련의 주요한 합법칙성들에 립각한다고 하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명제가 정당함을 완전히 립증하였다. 어데에서나 이 합법칙성들은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력사적으로 형성된 극히 다양한 민족적 특수성과 전통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발현된다.

이러한 공통적 합법칙성들은 다음과 같다. 이런 또는 저런 형태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진행하며 이런 또는 저런 형태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함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당을 그 핵심으로 하는 로동 계급에 의한 근로 대중에 대한 령도, 농민의 기본 대중 및 기타 근로자층들과의 로동 계급의 동맹, 자본주의적 소유의 청산과 기본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수립, 농촌 경리의 점차적인 사회주의적 개조,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과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 사상 및 문화 분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 로동 계급, 근로 인민, 사회주의 위업에 충직한 많은 인테리의 육성, 민족적 억압의 청산, 제 인민간의 평등과 형제적 친선의 수립, 국내외 원쑤들의 파괴 음모로부터의 사회주의 전취물의 수호, 소여의 나라 로동 계급과 다른 나라 로동 계급과의 련대성 즉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적 원칙을 각국의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에 따라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다른 나라 공산당들의 정책과 전술의 기계적 모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웨. 이. 레닌은 공산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소여의 민족, 소여의 민족 국가의 특수성에 적응하여 옳게 적용할 필요성에 루차 주의를 환기시켰다. 프로레타리아트 당이 민족적 특수성을 무시한다면 그 당은 불피코 현실 생활과 대중과 리탈하게 될 것이며 불피코 사회주의 위업에 손실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특수성의 역할을 과대 평가하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로부터 물러 서는 것도 역시 사회주의 위업에 불피코 손실을 주게 될 것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이러한 두 개의 편향을 반대하는 투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사회주의 제 국가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자기 나라의 혁명 및 건설의 구체적 실천과 결부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 제 조건에 적응하여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서로 배워야 하며 또 경험을 교환하여야 한다. 생활의 경험에 의하여 검열된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적 합법칙성의 창조적 적용과 각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각이한 형태와 방법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대한 집체적 공헌으로 된다.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적 기초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이 세계관은 자연, 사회 및 인간 사유의 발전의 일반적 법칙을 반영하고 있다. 이 세계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타당하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형이상학과 관념론에 대립한다. 만일 맑스주의적 정당이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변증법과 유물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일면성과 주관주의에 빠지며 머리가 굳어지며 실천으로부터 유리되며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옳게 분석할 능력을 상실하며 수정주의 또는 교조주의를 범하게 되며 따라서 정치에서 과오를 범하게 된다. 실제 사업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적용하며 간부들과 광범한 대중을 맑스—레닌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것은 공산당과 로동당들의 긴박한 과업의 하나이다.

현 계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내의 기회주의적 조류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회의는 공산당과 로동당 대렬내의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결정적으로 극복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내의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교조주의와 쎅트주의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발전과 변천하는 구체적인 제 조건에서의 그 리론의 창조적 적용을 곤난하게 하며 구체적인 정세의 연구를 인용주의와 독경주의로써 대신하며 대중으로부터의 당의 유리를 초래한다. 쎅트주의에 빠져 광범한 대중과 리탈된 당은 결코 로동 계급의 위

업을 승리에로 인도할 수 없다.

교조주의를 배격하면서 공산당들은 현 조건하에서 주요한 위험으로 되는 것은 수정주의, 다시 말하면 로동 계급의 혁명적 정력을 마비시키며 자본주의의 보존 또는 재생을 요구하는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표현으로서의 우경 기회주의라고 본다. 그러나 교조주의와 쎅트주의 역시 이러저러한 당의 개별적인 발전 단계에 있어서는 주요한 위험으로 될 수 있다. 매개 공산당은 소여의 시기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 자기에게 주요한 위험으로 되는가를 규정한다.

로동 계급에 있어서 정권의 전취는 혁명의 시초에 불과하며 그 완성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정권의 전취 후 로동 계급 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업은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사회주의의 경제적 및 기술적 토대의 축성이다. 동시에 타도된 부르죠아지는 항상 다시 일어 나려고 애쓰며 또 부르죠아지 및 소부르죠아지와 그 인테리들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아직도 크다. 따라서 《누가 누구를》 하는 문제 즉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퍽 오랜 시일이 요구된다. 부르죠아적 영향의 존재는 수정주의의 내적 근원이며 제국주의의 압박에 대한 투항은 수정주의의 외적 근원이다.

현대의 수정주의는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학설을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그것을 《낡아 빠진 것》이라고 선언하며 오늘에 와서는 마치도 사회 발전을 위한 의의를 상실한 것인 듯이 선언한다.

수정주의자들은 맑스주의의 혁명적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의 신념을 꺾으려고 한다. 그들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력사적 필연성을 반대하여 나서며 맑스—레닌주의 당의 지도적 역할을 부인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제 원칙을 부인하며 당 건설의 레닌적 기본 원칙들과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거부를 요구하며 공산당이 전투적인 혁명적 조직으로부터 일종의 토론 구락부로 전락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모든 경험은 사회주의 혁명의 제 과업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필수적인 담보로 되는 것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기 대렬의 맑스—레닌주의적 통일을 고수하는 것이며 이 통일을 파괴하는 종파와 그루빠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4

공산당 및 로동당들 앞에는 거대한 력사적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업들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비단 공산당 및 로동당들 자체의 단결 뿐만 아니라 전체 로동 계급의 단결이 필요하며 로농 동맹의 강화, 전체 근로자들과 전체 진보적 인류의 단결, 전 세계 자유 애호 및 평화 애호 력량의 단결이 필요하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이다. 모든 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평화를 사랑하며 전쟁을 원치 않는 모든 력량과의 가장 광범한 공동

적 행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회의 참가자들은 평화를 옹호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적 공존, 구라파와 아세아에서의 집단적 안전 체계의 창설, 군비 축소, 핵 무기 사용과 시험의 금지를 주장하는 모든 국가, 당, 단체, 운동 및 개별적 인사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공산당과 로동당들은 모든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 및 민주주의적 리익의 충실한 옹호자이다. 많은 나라 로동 계급과 인민들 앞에는 아직도 민족적 독립을 수호하며 식민지 침략과 봉건적 억압을 반대하는 력사적인 투쟁 과업이 나서고 있다. 여기에서 로동자, 농민, 도시 소부르죠아지, 민족 부르죠아지 및 기타 애국적 민주 력량들의 반제 반봉건적 통일 전선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수 많은 사실들은 각종 애국주의적 및 민주주의적 력량의 결속이 광범하고 견고하면 할수록 공동 투쟁에서의 승리가 더욱 잘 보장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로동 계급과 인민 대중은 자기의 사활적 리익을 위하여 전쟁의 위협성과 싸우면서 이 투쟁의 예봉을 군비 경쟁의 장본인이며 새 세계 대전 도발 계획의 조직자이고 고무자이며 침략과 반동의 기둥인 대독점 자본 그루빠들을 반대하는 데 돌리고 있다. 한줌도 못 되는 이 독점체들의 리익과 정책은 비단 로동 계급의 리익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기타 모든 계층들인 농민, 인테리, 도시 중 소 부르죠아지의 리익과도 더욱더 모순된다. 미국 독점체들의 예속화의 대상으로 되여 있는 자본주의 나라들과 이미 미국의 경제적 및 군사적 팽창 정책의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로동 계급과 그의 혁명적 당의 령도하에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의 개선과 철저한 토지 개혁의 실시를 위하여 투쟁하며 매국적인 독점체들의 전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가장 광범한 주민층을 결속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제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다.

심각한 력사적 변혁과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된 력량 관계의 근본적인 변동과 관련하여 그리고 로동 계급, 근로 농민 및 근로 인테리들 속에서의 사회주의 사상의 견인력이 장성된 결과로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더욱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각이한 나라들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로동 계급과 그 전위대인 맑스—레닌주의 당은 사회주의 혁명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려 한다. 이 가능성의 실현은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며 국가의 전 민족적인 리익에 부합된다.

현 조건하에서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자기의 전위대를 선두로 한 로동 계급이 로동 전선과 인민 전선에 기초하여 그리고 각이한 당들과 사회 단체들의 기타 가능한 형태의 합의 및 정치적 협조에 기초하여 인민의 대다수를 단합하며 국내 전쟁 없이 국가 주권을 전취하며 인민의 수중에로의 기본 생산 수단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로동 계급은 인민의 대다수에 의거하며 자본가, 지주들과의 타협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기회주의 분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세력을 격파하고 의회에서 확고한 다수를 전취하며 의회를 부르죠아 계급에 복무하는 도구로부터 근로 인민에게 복무하는 도구로 전환시키며 의회 밖에서의 광범한 대중적 투쟁을 전개하며 반동 세력의 반항을 분쇄하며 사회주의 혁명의 평화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심각한 사회적 개혁과 평화 및 사회주의를 위하여 대독점 자본을 반대하며 반동을 반대하는 로동자, 농민 대중 및 도시 중간층

의 계급 투쟁을 광범히 그리고 부단히 전개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착취 계급들이 인민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조건하에서는 다른 가능성 즉 사회주의에로의 비평화적인 이행의 가능성이 고려되여야 한다. 지배 계급들이 자진하여 정권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레닌주의는 가르치고 있으며 력사적 경험은 확증하여 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계급 투쟁의 가혹성의 정도와 그 형태는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절대 다수의 의사에 대한 반동 계층의 반항력 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이러저러한 단계에서의 이 반동 계층에 의한 폭력 사용 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이러저러한 방법의 실제적 가능성은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들에 의하여 규정된다.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의 개선, 그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의 확대와 보존, 민족적 독립의 쟁취와 수호, 인민들 간의 평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나 정권 쟁취 및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나 공산당들은 사회당들과의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사회당 우익 지도자들이 이러한 협조를 백방으로 방해하려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에 있어서 공산당원들과 사회당원들 간의 협조의 가능성은 커가고 있다. 공산당들과 사회당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상의 차이는 오늘날 로동 운동 앞에 제기되는 많은 당면한 문제들에 있어서의 행동 통일의 수립에 장애로 될 수는 없다.

로동 계급이 자기 수중에 정권을 장악한 사회주의 제 국가에 있어서 가장 광범한 대중과 긴밀한 련계를 수립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가진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자기의 전체 활동을 통하여 인민 대중에게 부단히 의거하여야 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수호하는 사업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자기 처지를 깊이 리해하고 있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광범한 근로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시키며 그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최근 년간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대와 비판 및 자기 비판의 전개를 위하여 사회주의 제 국가에서 취해진 조치들이다.

로동 계급의 실제적인 단결을 달성하며 전체 근로자들과 전체 진보적 인류와 전 세계 자유 애호 및 평화 애호 력량의 단결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산당 및 로동당들 자체의 단결을 강화하며 모든 나라 공산당들과 로동당들 간의 단결을 강화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단결은 보다 더 광범한 단결의 핵심이며 로동 계급 위업의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담보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운명에 대하여 특히 중대한 력사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회의에 참가한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가정을 가일층 단합시키기 위하여, 국제 로동 운동과 평화와 사회주의의 위업을 위하여 자기들의 통일과 동지적 협조를 부단히 강화할 것을 선언한다.

회의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장성하였고 많은 준엄한 시련을 이겨냈으며 일련의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적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세계적 규모에서 자기들의 위업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생활력을 근로자들에게 증명하여 주었으며 그리고 위대한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장 곤난한 실지 사업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자기들의 능력을 근로자들에게 증명하여 주었다.

인류 력사상의 모든 진보적 운동이 그러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운동도 자기의 도상에서 불가피적으로 난관에 부딪치며 곡절을 겪게 된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있어서도 어떠한 난관이나 곡절도 력사적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낡은 세계를 개조하고 새 세계를 창건하려는 로동 계급의 위대한 결의를 꺾을 수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투쟁 무대에 들어 선 때로부터 반동 세력의 탄압과 박해를 받아 왔으나 공산주의 운동은 그들의 공격을 영웅적으로 격퇴하고 있으며 시련을 통하여 가일층 강화되며 단련되고 있다. 새 시대에로의 인류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제국주의 반동 세력의 시도에 대답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통일과 단결을 가일층 공고화하고 있다.

소위 《공산주의 위기》라는 제국주의의 황당 무계한 주장에 반하여 공산주의 운동은 장성하고 있으며 강화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의 력사적 결정은 쏘련 공산당과 쏘련의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서 위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으며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그 운동의 가일층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최근 시기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중국, 불란서, 이태리 기타 나라 공산당 대회들은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대한 그들의 충실성을 뚜렷이 시위하였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본 회의는 또한 공산주의 운동의 국제적 단결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회의 참가자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현 조건하에서는 쌍무적 기초 우에서의 지도적 활동가들의 회합이나 호상간의 정보 교환과 아울러 필요에 따라 당면한 문제의 심의, 경험 교환, 호상간의 견해 및 립장의 료해, 공동의 목적인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 투쟁에서의 보조의 일치를 위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보다 광범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기 대렬을 단결시키면서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 로동 계급과 인민들을 단결시키면서 의심할 바 없이 전진 운동 도상에 가로 놓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 규모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촉진하리라는 자기들의 확고한 신념을 한결같이 표명하는 바이다.

평 화 선 언

로동자, 농민들! 과학, 기술 및 문화 일'군들! 모든 나라의 선량한 사람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경축하기 위하여 모쓰크바에 모인 우리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은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리성과 당신들의 심장에 호소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초래한 참화와 재난은 아직도 우리들 모두의 기억에 생생하다. 대전의 피 흔적은 아직도 완전히 가셔지지 않았건만 평온한 도시들과 농촌들의 집 우에는 벌써 백 배나 더 파괴적인 새 전쟁의 무서운 그림자가 떠돌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는 새 전쟁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가정들 우에 떠돌며 생활의 기쁨을 흐리게 하며 불안에 찬 의문들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없다.

래일에는, 한 달 후에는, 한 해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금 우리의 집들은 전쟁의 불'길에 타버리고 더욱 큰 파괴력을 가진 원자 및 수소탄은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에게 불의의 죽음을 가져다 주지 않겠는가?

인민들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이미 쓰라린 경험을 얻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장 혹심한 희생을 입게 되는 소박한 사람들은 앞으로의 어떠한 전쟁도 더욱더 무서운 고통을 가져다 주며 더욱 많은 나라들을 파괴하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살륙하며 더욱 무섭고 장기적인 후과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제국주의 렬강에 의하여 초래되고 독일 군국주의에 의하여 도발된 제1차 세계 대전은 1,000만 명의 인명을 빼앗아 갔다. 이 대전은 수천만 명의 건강을 해치고 그들을 불구자로 만들었다. 전쟁은 수 많은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게 하였다.

독일 파씨즘이 그 장본인으로 된 제2차 세계 대전은 비단 수 많은 군대와 전선만을 전쟁의 도가니 속에 휩쓸려 들어 가게 한 것이 아니였다.

비행기의 폭탄들은 무방비의 도시들을 파괴하였으며 수천 수만의 평화적 도시 주민들을 살륙하였다. 더욱이 히틀러 수용소의 고문실과 가스실에서는 수백만의 남녀 로소들이 학살되였다. 수천의 꽃피는 도시들을 건설할 수 있게 하며 수 많은 인민들을 먹이며 입힐 수 있는 거대한 물질적 자원들이 파괴와 살륙에 소모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은 부상자와 불구자들을 세지 않고도 3,000만 명 이상의 인명을 삼켜 버렸다. 제2차 세계 대전의 마지막 시기에 앞으로의 대량 인간 살륙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되는 원자탄의 첫 두 개가 무방비한 일본의 도시들에 투하되였다.

만일 인민들이 허용한다면 다음번 전쟁은 지금까지 인류가 체험한 모든 것을 초월하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는 학자의 지식도, 시인의 판따지야도 요구되지 않는다. 구라파, 미주, 아세아, 아프리카 및 대양주의 주민들은 인간이 그처럼 거대한 자연력을 정복하였으며 그처럼 강력한 수단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지구상의 어떠한 지점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새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숨어 있을 만한 장소는 없을 것이다. 원자, 수소 및 로케트 전쟁의 불'길은 모든 인민들을 휩쓸 것

이며 인류의 많은 세대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전 세계의 보통 사람들은 그 민족별, 정견, 신앙 및 피부색에 관계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전 세계의 보통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자연의 모든 비밀을 탐지하며 그것을 더욱더 정복하는 승리적인 리성의 소유자인 인간이, 쏘련의 인공 지구 위성들의 발사로 말미암아 멀지 않아 별들에 도달할 수 있게 된 인간이 과연 전쟁을 면할 수 없으며 자멸을 피할 수 없단 말인가?

우리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은 인민들의 운명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을 완전히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전쟁은 방지할 수 있으며 평화는 수호될 수 있고 공고화될 수 있다.

우리는 40 년 전에 인류 력사에 새 기원을 열어 놓은 나라의 수도에 모였다. 1917년에 로씨야땅에서는 력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였다. 근로자들은 자기 수중에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을 근절할 목표를 자기 앞에 내세웠다. 레닌의 당의 령도 밑에 로씨야의 로동자, 농민들은 자기들의 기치에 평화의 구호를 새겼으며 언제나 그 구호에 충실하였다. 자기 존립의 40 년간에 쏘베트 국가는 모든 인민들에게 평화에로의 길을 열어 주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쌓아 놓는 장애들을 무릅쓰고 사회 제도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평화적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자기들의 절실한 리익을 위하여 자본주의 제 국가 로동자들은 평화를 위한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전 세계의 선진적 인사들이 이 고상한 사업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평화 력량은 인류가 새로운 파국 즉 제2차 세계 대전에 빠져 들어 가는 것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였다. 이 력량은 너무도 적었으며 쏘련은 당시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시종일관 투쟁한 유일한 나라였다.

지금 우리들 공산주의자들은 이제는 전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확신 있게 말하는바 그것은 지금 세계의 정세가 다르며 력량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위대한 10월 혁명의 산아인 쏘베트 국가는 벌써 외롭지 않으며 고립되여 있지 않다.

파씨즘에 대한 승리 후 근 10억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사회주의 세계가 형성되였다. 평화와 국제적 협조, 상이한 사회 제도의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면서 쏘련과 손을 맞잡고 또 하나의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인민 중국이 나아가고 있다. 이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구라파와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 또한 투쟁하고 있다.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공업, 과학 및 기술의 미증유의 발전은 평화의 위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쟁 도발을 제어하는 강력한 장벽을 이루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는 또 하나의 새 력량이 자라났다. 그것은 10월 혁명에 의하여 각성된 식민지 인민들이다.

그들은 세기적인 예속의 멍에를 벌써 벗어 던지였거나 혹은 벗어 던지고 있으며 자기 내정에 대한 제국주의 세력의 간섭을 허용치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 락후성과 빈궁을 근절하기 위하여 그들은 평화와 중립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지된 《5개 원칙》 즉 령토 완정과 주권의 호상 존중, 불가침, 호상간의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 공존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 제 국가 인민들만이 아니며 동방 인민들만이 아니다. 전쟁을 두 차례나 직접 체험한 서방의 자본주의 제 국가 인민들도 전쟁을 증오하고 있다.

평화 력량은 거대하다. 이 력량은 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 공산주의자들은 처참한 살륙 전쟁의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라고 인정한다.

평화와 제 인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어디에서 오는가? 전쟁에 관심을 가지며 전쟁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오늘날의 군비 경쟁에서 전례 없이 치부한 자본주의 독점체들이다. 군비 경쟁은 독점체들에 막대한 리윤을 가져다 주는 반면에 근로자들에게는 더욱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 형편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독점체들, 특히 미국 독점체들의 압력하에 일부 자본주의 제 국가 지배층들은 군비 축소 및 핵 무기 금지에 관한, 새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대책들에 관한 제안들을 거부하고 있다. 유엔에서 평화 애호 국가들은 평화를 공고히 하며 새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훌륭한 제안들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유엔에 제출된 제안들 즉 군비 경쟁을 중지하고 원자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문제에 관한 제안,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제안,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필요한 신뢰를 조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인으로 되는 그들 간의 경제적 협조를 발전시킬 데 대한 제안이 전체 인민들의 사활적 리익에 부합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세계의 운명, 후대들의 운명은 이 문제들의 해결 여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이 제안들은 오직 국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진자들로부터만 맹렬한 반항을 받고 있다.

수천의 신문들과 방송국들은 미국, 영국, 불란서, 이태리 및 기타 자본주의 제 국가 인민들에게 마치 《세계 공산주의》가 그들의 자유,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평화로운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듯이 매일같이 떠벌리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들이나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도 전쟁을 도발하고 타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며 타국 령토를 강점하여야 할 리유가 없다. 쏘련, 인민 중국은 자체가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으며 무진장한 자연 부원을 가지고 있다.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도 전쟁에 리해 관계를 가지는 계급이나 사회층이 없다. 이 나라들에서 주권을 잡고 있는 것은 모든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로동자, 농민들이다. 과연 그들이 새 전쟁을 원할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전반적인 복리와 모든 인민들의 번영과 제 민족간의 영원한 평화가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제 국가에는 공고한 평화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철저한 전쟁의 원쑤는 없으며 더 견결한 평화 투사는 없다!

사회주의 제 국가는 어느 한 인민에게도 폭력으로써 자기들의 사회 및 정치 제도를 강요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주의의 불가피적 승리를 굳게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주의를 외부로부터 부식할 수는 없으며 사회주의는 우선 매개 나라의 로동 계급 및 모든 진보적 력량의 국내 투쟁의 결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제 국가는 타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과는 인연이 없으며 또한 그들은 자국 내정에 타국이 간섭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치도 사회주의 제 국가가 자기 제도를 폭력으로 타국에 강요하려 함으로써 평화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려는 기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평화는 오로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력을 단합하며 전쟁 방화자들의 음모에 대하여 경각성을 제고하는 조건하에서만, 그리고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평화를 옹호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신성한 임무로 된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조건하에서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인민 대중의 복리를 고려하며 모든 인민들의 진보와 찬란한 미래를 념원하는 우리는,

남성들과 녀성들에게,

로동자들과 농민들에게,

과학자들과 예술인들에게,

교원들과 사무원들에게,

청년들에게,

수공업자들, 상인들 및 기업가들에게,

사회주의자들, 민주주의자들 및 자유주의자들에게,

정치적 및 종교적 신념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을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당신들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날마다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며 당신들, 근로 인민들에게 가장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군비 경쟁의 중지를 요구하라.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생산과 사용의 금지를 요구하며 그 제1보로서 이러한 무기의 시험의 즉시 중지를 요구하라.

군사 쁠럭 정책과 타국 령토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 정책의 종식을 요구하라.

구라파의 한복판에서 제2차 대전의 주요 전범자들인 독일 군국주의자들을 재무장시키지 말도록 요구하라.

중근동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전쟁 도발의 중지를 요구하라.

집단 안전 정책, 각이한 사회 제도들의 평화적 공존의 정책, 제 인민의 광범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의 정책을 지지하라.

우리는 당신들 모두에게 호소한다.

자국 정부가 유엔에서 평화 정책을 실시하며 랭전 정책을 반대하도록 요구하라.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선량한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1,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의 즉시 중지를 위하여,

2, 이 무기의 생산 및 사용의 최단 기일내의 무조건 금지를 위하여 하나로 뭉쳐 투쟁하라.

우리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생애를 사회주의의 위업에 바치고 있다. 우리들 공산주의자들은 이 위대한 사업의 승리를 굳게 확신하고 있다. 바로 우리들은 우리 사상 즉 맑스와 레닌의 사상,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며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전쟁은 우리의 원쑤이다.

금후 각이한 사회 제도의 국가들이 평화적 과학, 평화적 기술을 발전시킴에 호상 경쟁하게 하라. 그 국가들이 자기의 우월성을 전쟁 마당에서가 아니라 진보를 위한 경쟁에서, 인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경쟁에서 증명하게 하라. 우리는 모든 선량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민다. 인민들을 압박하는 군비의 부담을 공동의 노력으로써 제거하자! 전쟁과 죽음과 멸망의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해방하자! 우리 앞에는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인류의 휘황하고 행복한 미래가 있다.

세계에 평화를!

본 선언은 호주, 오지리, 알바니야, 알제리아, 아르젠틴, 벨기, 볼리비야, 불가리야, 브라질, 영국, 웽그리야, 베네주엘라, 월남, 과테말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독일 련방 공화국, 혼듀라스, 희랍,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이라크, 서반아, 이태리, 카나다, 중국, 콜롬비아, 조선, 코스타리카, 큐바, 룩셈부르그, 말라이, 모로코, 멕시코, 몽고 인민 공화국, 화란,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파란, 포도아, 루마니야, 싼 마리노, 씨리아 및 레바논, 쏘련, 타이, 튜니샤, 로이기, 우루과이, 분란, 불란서, 쎄일론, 체코슬로바키야, 칠리, 서서, 서전, 에쿠아도르, 유고슬라비야, 일본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대표단들에 의하여 채택되였다.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경축 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 회의들에 참가한 우리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

김 일 성

동지들!

전 세계 진보적 인류는 쏘련 인민과 함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성대히 경축하였습니다.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이 경축에는 세계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과 기타 수많은 나라 인민의 대표들이 참가하였습니다.

10월 혁명 40주년 경축에 참가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은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와 위대한 쏘련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 인민의 형제적 축하를 전달하였습니다.

10월 혁명 40주년 기념 쏘련 최고 쏘베트 경축 회의에서 한 흐루쑈브 동지의 보고와 쏘련 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에게 보낸 호소문들은 쏘련 인민들의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그들의 결의를 표시하였습니다.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은 위대한 쏘련 인민이 달성한 력사적인 승리와 40년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쟁취한 성과를 총화한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가진 사변이였습니다.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은 위대한 쏘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인민들과 전 세계 수억만 근로자들의 불패의 단결력을 시위하였으며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그들의 신심을 굳게 하여 주었습니다.

10월 혁명 40주년 기념 쏘련 최고 쏘베트 경축 회의에서 흐루쑈브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쏘베트 정권이 걸어 온 시기의 근 절반은 원쑤들의 침략을 반대한 가혹한 전쟁과 전후 복구에 돌리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년간에 쏘련의 인민 경제는 인류 력사에서 류례 없는 비약적 발전을 하였습니다.

1957년 현재 쏘련의 공업 총생산량은 1913년에 비하여 33배로, 그중 생산 수단 생산은 74배로 장성하였습니다.

농촌 경리도 이 기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최근 년간에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가 취한 처녀지, 황무지 개간 및 기타 일련의 중대한 조치에 의하여 급격한 앙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쏘련은 일련의 중요한 과학 부문에서 미국과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을 훨씬 앞섰습니다. 쏘련은 대륙간 탄도 로케트의 완성과 인공 지구 위성의 발사로써 세계 과학 발전사에 새 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이는 쏘베트 과학이 평화 애호 인류 앞에 이룩한 거대한 공헌입니다.

쏘련 인민이 공산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이와 같은 력사적인 성과들은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사회주의 제도의 결정적인 우월성의 시위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쏘련 인민은 자기들이 걸어 온 곤난과 승리로 충만된 40년의 길을 총화 지으면서 공산주의의 휘황한 전물이 직접 바라 보이는 고지에 서 있습니다.

쏘련은 가까운 장래에 중요 공업 제품 생산에서 미국을 앞서게 될 것이며 최근 년간에 육류, 우유 및 빠터의 인구 1인당 생산에서 미국을 앞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계의 력사적인 경쟁에서 사회주의 체계의 결정적인 승리와 자본주의 체계의 전면적인 몰락을 의미합니다.

동지들!

인류의 영재인 위대한 레닌을 수위로 하는 쏘련 공산당의 령도하에 로써야 프로레타리아는 자본주의 철쇄를 끊어 버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함으로써 현대 력사의 성숙된 임무를 지구의 6분의 1의 광활한 령토상에서 처음으로 완수하였습니다.

10월 혁명과 그후 쏘련에서 사회주의의 성과적인 건설은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였으며 지구상 수억만 근로 대중을 자본의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고무하였습니다.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위대한 성새이며 맑스—레닌주의의 산 구현자인 쏘련의 장성 강화는 이 학설이 수억만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견인력을 비상히 강화하면서 그들의 해방 투쟁에 새로운 력사적 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쏘련 공산당의 령도하에 영웅적인 쏘련 로동 계급과 전체 쏘련 인민은 온갖 곤난과 희생을 무릅쓰고 푼푼을 절약하여 모든 것을 강력한 중공업의 건설에 돌림으로써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나라의 공업화를 완성하고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예화의 위험에서 구라파와 아세아 여러 나라 인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위대한 쏘련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인류의 해방 투쟁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첫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은 40년래 세계 혁명 운동의 성새로, 그의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강력한 중심이 없었더라면 지난 수십년간에 공산주의 사상은 지구상에서 오늘과 같은 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청소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위대한 쏘련의 주위에 굳게 단결되였으며 쏘련의 경제, 기술적인 원조와 지지를 받으며 그의 풍부한 경험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 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기도를 분쇄하면서 자주 독립을 고수하고 있으며 성과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쏘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 로동 운동과 평화 력량의 단결은 제국주의 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담보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쏘련을 중심으로 단결하며 그를 지지 옹호하는 것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인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동지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경축을 계기로 하여 모쓰크바에서는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와 이 당들을 포함한 세계 64개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가 진행되였습니다.

이 회의들에서는 국제 로동 운동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제 문제, 현 국제 정세와 그로부터 흘러 나오는 각국 당들의 공동 투쟁 과업에 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습니다.

금번 회의들은 공산주의 운동 력사에서 가장 많은 당 대표들이 참가한 회의로서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과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의 거대한 장성을 시위한 전 세계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전야에 세계에 약 420만 명의 당원을 망라한 43개의 공산당이 활동하고 있었다면 오늘에 와서는 75개의 나라에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당들은 3,300만 명 이상의 당원을 망라하게 되였습니다.

오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인민들의 투쟁의 모든 초소에서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사상은 전 세계의 더욱더 많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의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은 그의 발생 첫날부터 지배 계급의 격렬한 반항과 그들의 가혹한 탄압속에서 세련되였으며 장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년간에 사회주의 국가들과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국제 반동의 공세가 매우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개 당들은 반동의 진격을 영웅적으로 격퇴하고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단련되였으며 그들 간의 단결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모쓰크바 회의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 밑에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튼튼히 단결되여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 투쟁에서 그들의 의지와 행동이 통일되여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또한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였습니다.

회의들에서 채택된 선언들은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각국 당들과 인민들의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은 세계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과 사회주의 건설 경험을 일반화하였으며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 앞에 제기되는 공통적인 투쟁 과업을 천명하였는바 이는 매개 당들을 위한 강령적 문헌으로 되는 것입니다.

동지들!

선언에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 시대의 기본 내용은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에 의하여 개시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입니다.

오늘 국제 정세는 사회주의가 세계 무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력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로씨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벌써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 즉 9억 5천만 명 이상이 사회주의 길에 들어 섰습니다.

사회주의의 기치는 지구의 4분의 1 이상의 광활한 지역에서 휘날리고 있으며 사회주의는 세계적 체계로 전변되였습니다.

사회주의 력량의 거대한 장성은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운동을 무한히 고무하였으며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를 촉진시켰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중화 인민 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및 월남 민주 공화국을 제외하고도 7억 이상의 인민들이 식민지 멍에를 벗어 던지고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2차 대전 전에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제국주의의 식민지 예속하에 있었다면 현재에는 그 수가 불과 1억 6천만 밖에 되지 않으며 그들도 자기의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에서는 식민지가 거의 다 없어졌으며 아세아의 정세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였습니다.

세기적으로 압박 받던 수억만 아세아 인민들은 오늘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 쥐게 되였으며 인류 력사의 발전에서 더욱더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침략자들은 인민들로부터 이미 버림 받은 장 개석, 리 승만, 느고 딘 디엠 등 인간 쓰레기들을 쓸어 모으면서 아세아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회복하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에 빠진자가 짚검부러기를 붙잡는 격입니다.

제국주의가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현재 제국주의 국가들에는 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데 그 내부에서의 계급적 대립과 제국주의 국가들 상호간의 모순은 더욱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력사는 세계 지도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으며 제국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명백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쏘련에서의 경제, 과학, 기술의 거대한 발전과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를 불패의 위력으로 장성시켰습니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 경제는 자본주의하에서는 볼 수 없는 높은 템포로 발전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부단히 개선 향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공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비중은 약 3분의 1에 달하며 이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사회주의 체계는 평화와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인민들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하여 주며 사회적 진보를 촉진시키는 결정적 력량입니다.

사회주의 력량의 거대한 장성과 식민지 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제국주의는 더욱 약화되였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였으며 현대 과학과 기술의 모든 성과는 사회의 발전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되지 못합니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새로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독점들은 그들의 높은 리윤을 유지하기 위하여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더욱더 광범한 계층들의 리익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더욱 심화하며 이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전 세계적 범위에서 반드시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것은 세계 인민들 앞에서 산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소위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추구하면서 어리석게도 인류 력사의 합법칙적인 발전에 항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도처에서 민주주의적 자유를 말살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협하며 해방된 인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적 멍에를 들씌우려 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계통적인 파괴 활동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반동의 중심이며 인류의 흉악한 원쑤입니다. 그들은 군비 축소와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생산과 사용의 금지를 거부하며 계속 군비 경쟁을 진행하며 세계 각지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 등으로써 새로운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주의와 평화 세력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음모를 능히 파탄시킬 수 있으리만큼 강대하여졌습니다.

애굽 인민을 반대하는 영, 불 제국주의자들의 무장 침범과 웽그리야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던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계획은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씨리아 인민을 반대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기도도 역시 좌절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과 불패의 통일 앞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어느 한 사회주의 국가도 감히 침범할 수 없으며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나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구라파나 중근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계획은 아세아에서도 실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조선 및 인도지나 전쟁에서의 미국과 기타 제국주의자들의 패배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명백히 보여 주었습니다.

쏘련을 위수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불패의 위력,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 국가들과 함께 광활한 평화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아세아 및 아프리카의 평화 애호 국가들의 존재, 국제 로동 계급과 그의 전위대인 공산당들의 전쟁을 반대하는 결정적 진출, 식민지 및 반 식민지 인민들의 해방 운동,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대중적 운동의 거대한 장성—이 모든 것은 현 시기에 있어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쓰크바 회의 참가자들은 제국주의 침략 계층의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며 모든 평화 력량을 단합한다면 전쟁을 방지하며 공고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일치하게 인정하였습니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끝끝내 새로운 전쟁을 도발한다면 제국주의는 완전한 멸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선언들에 지적된 바와 같이 전쟁이냐 평화적 공존이냐 하는 문제는 세계 정치의 기본 문제이며, 평화 옹호 투쟁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전체 인민들의 제일차적 과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조선 인민은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함께 세계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아세아

에서의 평화와 집단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원자 및 수소 무기 실험의 즉시 중지와 이 무기들의 생산 및 사용의 완전한 금지를 위한 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 간의 평화적 공존의 레닌적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과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애굽, 씨리아, 비르마, 쎄일론 등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호상 협조와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선 인민은 일본 인민과의 친선 관계를 수립할 것을 원하며 일본에서의 모든 민주주의적 운동을 지지하며 일본과의 정상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며 일본을 민주화하는 것은 극동에서의 평화의 공고화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아세아의 어느 한 나라에도 외래 제국주의 침략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반대하며 아세아의 어느 한 나라도, 어느 한 지역도 미국 침략 군대의 원자 기지로 전변되는 것을 반대하여 모든 국가, 모든 인민들과의 공동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세아에서의 평화 유지의 가장 커다란 담보가 있습니다.

동지들!

국제 정세의 근본적인 전환은 우리 나라 정세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주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현 계단에 있어서 조선 인민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혁명 과업입니다.

이 과업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당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주기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단합하여 반제 반봉건적 투쟁에 궐기시키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습니다.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의 정세는 조선 인민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였습니다.

우리 나라 현 정세의 특징은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 력량이 급속히 장성 강화되는 반면에 남조선에서는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가 파탄되여 가며 미제와 광범한 인민 대중과의 모순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지도 밑에 북반부 인민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과 농업 생산은 전쟁전 수준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저히 룽가하였으며 페허 우에서 도시와 농촌이 새로운 면모로 일떠 섰습니다.

3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파괴된 생산력을 단순히 복구한 것이 아니라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였으며 나라의 사회 경제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은 현저히 퇴치되였으며 그의 기술적 토대는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확대 강화와 특히 농업 협동화의 결정적 승리로 말미암아 사회

주의적 경제 형태는 도시와 농촌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습니다.

현저한 기술적 개건과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기초 우에서 우리 인민 경제의 발전은 새로운 앙양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57년에 공업 총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근 40%나 더 장성할 것이며 전쟁전 수준을 2.8 배나 릉가하게 될 것입니다.

알곡 생산은 320만 톤 이상에 달할 것이 예견됩니다.

일제 시기에는 이러한 수확고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극히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민 생활은 개선되여 가고 있으며 교육, 문화는 더욱 발전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 경제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근로자들의 모든 생활에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거둔 거대한 성과는 계급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동시켰으며 우리의 국가 사회 제도를 더욱 공고화하였습니다.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대중의 정치적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토대에서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전체 인민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은 고도로 앙양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명확한 전망과 굳은 신심을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력량의 거대한 장성은 우리 나라 정세를 조선 인민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는 기본적 요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선에서 적들의 도발적 음모를 제압하며 파탄시킬 수 있는 결정적 힘으로 되며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의 투쟁을 더욱더 고무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됩니다.

오늘 남조선은 정치, 경제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전쟁 준비 정책과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경제는 더욱더 파탄되여 가고 있습니다.

미국 잉여 상품의 범람, 미제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에 의한 원료 및 자금의 독점, 과중한 세금 부담 등으로 말미암아 민족 산업은 파산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수다한 중 소 기업체들이 페쇄되였으며 금년 초에는 남아 있는 기업소들의 약 80%가 휴업 또는 조업 단축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리 승만 역도의 기본적 략탈 대상인 농촌 경리는 극도로 령락되였습니다.

경지 면적은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1956년에 알곡 생산은 일제 말기에 비하여 근 30%나 저하되였습니다.

1956년에 괴뢰 정부의 예산에서 군사비와 경찰비의 비중은 65%에 달하였으며 인민 대중으로부터의 조세 수입은 세입 총액의 86%에 이르렀습니다. 재정 적자는 격증되고 있으며 통화는 팽창되고 물가는 한없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령락과 략탈의 강화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전체 근로자들은 실업과 기아와 빈궁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에게는 초보적인 자유도 보장되여 있

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미국 침략자들의 멸시와 만행은 격심하여지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모든 민족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은 말살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2 년간에 걸치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 식민지 통치의 결과입니다.

남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독점 자본의 리익은 극소수의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제외하고는 로동자와 농민의 리익 뿐만 아니라 도시 소부르죠아지, 민족 부르죠아지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계층들의 리익과 첨예한 모순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남조선 인민으로 하여금 이대로는 더 살아 나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남조선 인민은 오직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페기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함으로써만 참을 수 없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남조선 지배층 내부에서의 모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유당과 야당들 간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으며 리 승만 도당에 대한 야당파들의 불만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가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되고 있으며 그들의 통치 지반이 약화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 남조선에서 로동자와 농민을 비롯하여 가장 광범한 계층들을 망라하는 모든 애국적 력량의 통일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성숙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미국 침략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남조선에 대한 그들의 정책의 파탄을 미봉하며 당면한 위기로부터 벗어 나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남조선 인민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선에서 새로운 긴장 상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측은 정전 협정의 일부 조항을 페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으며 남조선에 신형 무기를 반입하며 남조선을 미국의 원자 기지로 전변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 오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습니다.

남북 조선에 조성된 정세는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전체 인민이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의 평화의 유지와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그들의 사활적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세아와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서의 평화의 유지 공고화에 중요한 기여로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의하였으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계속 투쟁하여 왔습니다.

정전 협정의 엄격한 준수는 조선에서의 평화 유지의 첫 걸음으로 됩니다.

미국측은 군사 분계선에서의 각종 도발과 비법적인 무기 반입 등 정전 협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시급히 중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전은 응당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위협하며 평화적 통일을 장애하는 기본 요인은 미국 침략 군대의 남조선 주둔입니다.

미국 군대가 남조선에 주둔하며 그의 침략 정책이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조선에서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평화적 통일도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침략 군대는 남조선에서 철퇴하여야 합니다. (박수)

우리는 중국 인민 지원군까지도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리 승만 도당은 계속 《북진》 소동을 일으키면서 남조선 인민에게서 모든 것을 긁어 모아 70만 이상의 괴뢰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비 확장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특히 남조선 인민들의 견딜 수 없는 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현재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간에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 분계선이 민족 분렬의 장벽으로 되여 있는 현 사태를 참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나라, 한 민족 사이에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으며 물자 교역은 물론 서신 거래조차 할 수 없겠습니까?

현 상태는 조선 인민의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며 우리 민족의 재난의 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선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특히 갖은 고통을 받고 있는 남조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남북간의 인공적인 장벽은 허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민들은 자유롭게 래왕할 수 있어야 하며 남북간에 우편 통신도 정상적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각종 물자를 서로 교역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당장 실현할 수 없다면 우선 남북 조선에 각각 일정한 지점과 통로를 설정하여서라도 물자를 서로 교류하며 남북 조선 인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조선의 풍부한 전력, 석탄, 세멘트, 화학 비료 기타 많은 공업 제품들을 남조선 인민이 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하며 남북 조선 바다에서 물'고기도 서로 마음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 조선의 정당, 사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 간의 접촉과 협상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남조선에서 정치 생활이 민주화되여야 하며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의 자유 활동이 보장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어떠한 정당, 단체 및 인사들에게나 북조선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킬 것이며 그의 현실적 가능성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기초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평화적으로 통일되여야 합니다.

조선 문제는 조선 인민 자신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기 손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애국적 력량을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는 통일 전선에로 련합시키는 것이 극히 중요합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결탁한 극소수의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제외하고는 로동자와 농민을 비롯하여 지식인, 수공업자, 상인, 민족 자본가 기타 광범한 계층들을 망라하는 통일 전선을 결성함으로써만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이러한 통일 전선의 결성은 이미 성숙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 단체, 개별적인 인사 및 모든 계층들과 련합할 것이며 공동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독립과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나설 것을 원하는 인사들이라면 그가 과거에 무엇을 하였던지간에 그것을 묻지 않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과 주장은 이러합니다.

동지들!

조선에서 평화의 유지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투쟁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쟁취하여야 합니다.

쏘련을 비롯한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지지 성원에 튼튼히 의거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과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단합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동원한다면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은 달성될 것입니다.

우리 혁명 과업 수행에 있어서 중심 고리로 되는 문제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주 기지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화국 북반부 근로자들은 방대한 제1차 5개년 계획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높은 로력적 열성과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는 동시에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를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자립적인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키게 될 것입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공화국 북반부는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발전과 전변을 가져 오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5개년 계획의 수행을 위한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는 남반부의 형편이 앞으로 더욱 악화되리라는 것도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경제가 더욱더 령락될 것이며 인민들의 고통은 증가될 것이며 미제와 광범한 인민 대중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 식민지 침략 정책이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력량 대비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는 극히 명백합니다.

남조선 인민들이 이 변화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북반부와 같은 인민의 정치를 요구하여 더욱 결정적으로 나설 것이며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반동 통치를 반대하여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조선 인민의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혁명의 원쑤들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조선 인민은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박수)

동지들!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진영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문제가 가장 큰 중심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습니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 투쟁에서 호상 련대성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책동과 온갖 도발적 행위에 대

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합된 력량으로 대항할 굳은 결의를 표시하였습니다.

모쓰크바 회의는 민족 문제에 관한 레닌의 명제와 세계 사회주의 체계 내의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에서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은 완전한 평등, 령토 완정과 국가적 자주성과 주권의 존중, 호상간의 내정 불간섭의 제 원칙에 립각하여 자기들의 호상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자본주의 국가들 호상간에는 있어 본 일이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회주의 진영 인민들 간의 호상 신임을 더욱 두터이 하며 그들 간의 단결의 강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의 본질 전체는 아닙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불패의 위력은 바로 이 진영에 속한 나라들의 국제주의적 단결에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상과 사회 제도의 공통성, 호상 지지와 원조의 필요성,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리해 관계와 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하나의 대가정에 단합되여 있습니다.

모쓰크바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과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첫 사회주의 국가인 위대한 쏘련과 쏘련 공산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굳게 뭉쳐야 한다는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각국 형제 당들과 인민들의 단결이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운동 전체의 리익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매개 나라 인민들 자신의 리익을 위하여 얼마나 고귀한가는 10월 혁명 후 40 년간의 국제 로동 운동의 경험과 특히 최근 년간의 사변들의 교훈이 더욱 똑똑히 보여 주었습니다.

조선 인민은 쏘련을 비롯한 형제 국가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에 사활적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거대한 힘을 가장 절실하게 체험한 인민입니다. 최근 년간에 우리 사회주의 진영과 각국 당들은 심각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쏘 반공》의 각종 도발적 책동에 발맞추어 수정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훼방하며 쏘련을 비방하며 사회주의 국가들과 당들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적들과 우경 기회주의자들의 발악이 로골화되면 될수록 우리 당은 더욱 쏘련을 지지 옹호하여 나섰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로동 운동의 공인된 중심인 쏘련을 선두로 단결하여야 한다는 자기의 원칙적인 태도와 굳은 결의를 표명하여 나섰습니다. (박수)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쏘련 인민을 지지하고 그를 향하여 배우며 영원히 그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신성한 공산주의적 의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친근한 린방인 중국 인민과의 혈연적인 친선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든 형제적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대중 속에 국제주의 교양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와 배합하여 애국주의 교양 사업을 부단

히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입니다. 우리는 일체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배타주의를 배격합니다.

민족주의는 제 인민들 간의 친선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선 자기 나라 자체의 민족적 리익과 근로 대중의 계급적 리익에 배치됩니다.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배타주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적대되며 대중 속에서 진정한 애국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리 승만 도당이 《애국주의》의 간판하에 어떻게 근로 인민을 기만하며 그들을 억압 착취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송두리채 팔아먹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근로 인민이 투쟁에서 쟁취한 사회주의적 전취물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소중하게 지키며 온갖 종류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투쟁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진보적인 것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우리 나라의 아름답고 훌륭한 모든 것이 인민의 소유물로 되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에 복무되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의 대가정 속에서 형제 국가 인민들과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강화하면서 번영하고 있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자기의 조국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중요한 과업은 애국적 열성으로 우선 우리 나라 자체의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자각적으로 동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애국적 의무이며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국제 사회주의 력량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지들!

선언에는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원칙적인 문제들이 다시 한번 명백히 천명되였으며 온갖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강조되였습니다.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과 피압박 근로 대중의 세계관이며 해방의 무기입니다.

프로레타리아 당들의 생명은 바로 이 사상을 자기에게 체현한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를 고수함으로써 투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맑스—레닌주의의 적들은 바로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을 외곡하며 그의 혁명적 정신을 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력사적 필연성을 부인하며 맑스—레닌주의 당의 지도적 역할을 부인하여 나섰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 모쓰크바 회의에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 문제들에 대하여 그들의 견해의 완전한 일치성을 확인하고 맑스—레닌주의의 확고 부동한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는 사실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함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적 당의 령도와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의 강화, 자본주의적 소유의 청산과 기본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수립,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

사회주의적 문화 혁명의 수행, 국내외 원쑤들의 침해로부터의 사회주의적 전취물의 수호, 모든 나라 로동 계급들 간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련대성의 강화 등 일련의 명제들은 위대한 10월 혁명 후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적 경험에서 그의 정당성이 립증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합법칙성입니다.

이는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장래에 있어서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원칙적인 립장을 규정하는 맑스—레닌주의적 기준으로 또한 그들의 지침으로 되고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이 기본 원칙들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인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으로부터 물러 서는 것이나 또한 민족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와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 사회주의의 위업에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확고 부동하게 레닌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하여 왔으며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당의 경험은 국제 국내적으로 어떤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고 당내에 어떤 곤난한 문제가 제기된다 할지라도 당이 동요 없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그 정신으로 꾸준히 당원들을 교양하며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때에 그는 모든 난관과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 낼 수 있으며 더욱 통일되고 단결된 대오로써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을 당 주위에 집결하여 자기 앞에 제기된 혁명적 과업들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적들의 도발적 공세가 강화되던 최근 년간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당은 형제 당들과 보조를 맞추어 제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 나섰습니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자체의 진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당의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당면한 정치, 경제적 과업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반혁명 분자들을 적발 폭로하는 전 인민적 운동의 전개, 1956년 말부터 1957년 초에 전 당적으로 진행된 당증 교환 사업과 중요 당 단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검열 사업,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정치, 경제적 투쟁 등 기타 당이 취한 일련의 적절한 조치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적들의 파괴 음모를 분쇄하고 당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과 군중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 대중을 당의 유일한 사상과 의지로 묶어 세우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그리하여 외부에서의 적들의 온갖 소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철석같이 통일된 자기의 대세를 견지하였으며 전체 우리 당원들과 근로 대중은 한결같이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뭉쳐 사회주의의 위업을 고수하며 그를 위하여 투쟁할 그들의 확고한 결의와 용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것은 이 시기에 진행된 우리 공화국의 지방 주권 기관과 최고 주권 기관 선거에서의

빛나는 승리로써 표시되였으며 우리 나라 경제 건설에서의 력사적인 성과들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는 지배적 사상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모든 생활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이와 같은 자기의 성과들로써 국제 사회주의 력량의 강화에 일정하게 기여하였으며 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자만할 아무런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계적 규모에서나 국내적으로나 적대 세력과의 사상 투쟁은 치렬히 전개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보존과 재생을 요구하는 부르죠아 반동 사상은 각종 형태로 우리에게 기여 들어 오고 있습니다.

부르죠아 사상의 반영으로서의 수정주의는 현 시기 국제 로동 운동에 있어서 주되는 위험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수정주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대두한 수정주의적 조류들은 우리 나라에서도 소수 불건실한 분자들과 소부르죠아 동요 분자들에게 일정한 영향과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1956년 8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 비판된 종파 분자들이 그의 추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들고 나온 구호와 행동이 바로 이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거둔 당의 모든 성과를 부인하며 당의 령도를 거부하며 당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를 반대하고 무원칙한 《민주주의》 와 《자유》 를 내걸었으며 《종파 유익설》을 부르짖으며 심지어 적대적 요소들과까지 결탁하거나 또 그들에게 리용 당하는 참을 수 없는 비계급적 현상들을 발로시켰습니다.

본래부터 불건전한 사상적 고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파 분자들은 일방으로는 외부로부터 침습한 국제 수정주의의 사상 영향에 사로잡혔으며 타방으로는 우리 나라의 간고한 혁명 투쟁의 시련을 이겨 내지 못하고 적대 세력 앞에 굴복하는 우경 투항주의에 빠져 들어가 드디여 당과 혁명을 배반하는 길로 나가게 되였습니다.

만일 우리 당과 당원들이 사상적 단련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온갖 반맑스주의적 사상적 관점, 경향들이 외부에서 들어 올 수 있고 또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분렬되여 있으며 남조선을 강점한 국제 반동의 괴수인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우리의 력사적인 사회주의 전취물들을 빼앗으려 하며 우리 내부의 온갖 부정적 요소들을 적대 행위에 리용하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 국가의 독재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대 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며 우리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일체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함으로써 원쑤들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근로자들 속에서 꾸준한 사상 투쟁과 교양의 방법을 통하여 일체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며 그들의 의식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조선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결과 부르죠아 사상을 발생시키는 사회 경제

적 기반은 기본적으로 청산되였으나 인민 대중 속에 부르죠아 사상의 잔재는 남아 있으며 소부르죠아적 의식의 영향은 아직도 강하며 앞으로도 오래'동안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로동 계급은 그 자체의 력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교양자——맑스—레닌주의 당을 가진지도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특히 전후 공업 복구와 그의 확장에 따라 로동 계급 대렬은 주로 어제'날의 농민과 소시민들로 보충 혹은 확장된 관계로 아직 적지 않은 로동자들은 프로레타리아적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선진적인 로동 계급에 대한 정치 사상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의 령도적 계급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농촌은 사회주의적 농촌으로 개조되였고 농민은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되였으나 농민들의 의식은 아직 이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농민 대중 속에 남아 있는 봉건적 부르죠아적인 사상 잔재와 소부르죠아 사상을 극복하고 그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문제는 우리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됩니다. 동시에 일체 착취적 현상을 근절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에서 우리의 사회주의적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인테리의 절대 다수는 동요 없이 근로 인민의 리익과 사회주의의 위업에 충실히 복무하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은 부단히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새로운 인테리를 대량적으로 육성하며 인테리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을 더욱 튼튼한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해방 후 자라난 우리 젊은 후대들은 과거 우리 사회의 착취적 관계를 직접 당하여 보지 못하였고 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남조선에서의 지주—부르죠아 제도의 반동성에 대하여 똑똑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역군으로 될 그들에게 지주—부르죠아 제도의 본질에 대하여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고 로동자, 농민이 주인으로 되여 있는 사회주의 제도와 자기의 사회주의적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주의 정신으로 그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남조선 인민 대중에게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 정신을 고취함과 아울러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에게 계급적 각성을 불러 일으키며 그들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을 똑똑히 가리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수정주의와 함께 교조주의 역시 맑스—레닌주의 본질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으며 혁명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한 당들에 있어서 교조주의는 사업에 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줍니다.

우리 당내에서 교조주의적 사업 태도는 당, 국가 기관 일'군들과 당원 대중들로부터 최대한의 창발성을 요구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복잡하고 곤난한 과업에 직면하게 된 때에 이르러 더욱 눈에 띄우게 되였으며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당 중앙 위원회는 특히 전후 시기에 들어와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며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은 10 년간의 투쟁에서 자체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 자신의 경험과 남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현실에 적용할 능력 있는 간부 대렬을 초보적으로 가지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교조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용이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교조주의자들은 발전하는 구체적 현실을 연구 분석하고 그 속에서 결론을 찾아낼 대신에 기존 공식이나 명제로써 현실을 규정하려 하며 자기 자신의 립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주견을 못 가지고 맹목적으로 남의 것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실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처리한다는 것은 남의 경험과 기성 리론을 사고 없이 교조주의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몇 10 배 힘든 일입니다.

현실을 연구 분석할 줄 모르고 사고를 태공하는 이런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아무리 훌륭한 맑스—레닌주의 명제들과 형제 당들의 고귀한 경험도 생기를 잃고 도리여 사업에 손실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선진 경험에 대한 경시이며 외곡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교조주의는 장기간의 봉건 통치와 일제 식민지 예속하에서 민족적 자부심을 못 가지고 남의 것이면 맹목적으로 숭배하던 락후한 사상 잔재가 아직 일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데도 기인된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우수한 것은 볼 줄 모르며 남의 것이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도 기계적으로 모방하며 추종하려는 경향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형제 당들의 경험을 연구하며 거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경험들이 그 나라들의 어떠한 력사적 발전 단계와 어떠한 구체적인 사회 계급적 관계에서 창조되였으며 그를 적용할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조주의의 오유를 피치 못할 것입니다.

레닌에 교시한 바와 같이 맑스주의의 모든 정신과 그의 모든 체계는 매개 명제를 오직 력사적으로 다른 것들과 관련시켜, 력사의 구체적인 경험과 관련시켜 고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로동 운동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전술의 통일성은 다양성과 민족적 차이점들을 제거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산주의의 기본 원칙들이 특수한 조건에서 옳게 형태를 바꾸며 그 원칙들을 민족적, 민족—국가적 특수성에 옳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매개 나라가 통일적인 국제주의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태도에 있어서 민족적 특수성과 민족적 독자성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찾아내고, 예측하고, 틀어 잡아 쥐는 것,

이것이……모든 나라의 중요한 과업이다》(레닌 전집 31권 72 페지)라고 레닌은 교시하였습니다.

교조주의는 사물과 현상을 유물 변증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관찰, 판단, 처리하는 곳에서 항상 자기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 속에서 특히 간부들 속에서 유물 변증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며 우리 당원들이 어떤 복잡하고 곤난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사태에 대한 정당한 분석과 판단을 내리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계속 꾸준한 투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 작풍을 계속 개선하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선언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자기의 전체 활동을 통하여 인민 대중에게 부단히 의거하여야 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수호하는 사업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처지를 깊이 리해하고 있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곤난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에 직접 로동자, 농민, 근로자들과 토의하고 그들의 지혜와 력량에 의거한다면 해결 못 할 어려운 문제가 없고 극복하지 못 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관료주의를 반대하여 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전원 회의는 당, 국가 기관들의 지도 사업을 개선하며 당 일'군들이 광범한 근로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그들의 창발력에 의거하는 작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업 작풍 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나라의 주인들인 로동자들과 농민, 인테리 등 광범한 대중의 창발력을 옳게 동원한다면 공업과 농촌 경리, 문화 발전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예비가 허다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제는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방해하며 대중의 창발력을 억제하는 보수주의, 관료주의 및 사무실적 작풍과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당 지도 일'군들로부터 전체 당원들에게 이르기까지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과의 산 련계를 맺으며 그들의 애국적인 발기를 지지하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력량을 집결 동원할 수 있는 당적 작풍을 체득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필수적인 담보로 되는 것은 당 대렬의 맑스—레닌주의적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는 것이며 이 통일을 파괴하는 종파와 그루빠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 종파가 끼친 해독은 극히 엄중하였습니다.

종파들이 당을 좌우한 결과에 1925년에 창건된 당은 해산되였으며 그들의 반당적 반혁명적인 파벌 행위에 의하여 해방 후 남조선에서 우리 당 조직은 파괴되였습니다.

작년에 당내에 나타난 반당 종파 분자들은 국제 국내적으로 어려운 틈을 리용하여 엄중한 반당 반국가적 음모를 흉책하였으나 당은 제때에 이를 폭로 분쇄하였습니다.

반종파 투쟁이 우리 당 건설에서와 당의 조직 사상적 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서 종파의 여독을 뿌리채 근절하고 당의 통일을 강화하며 당의 튼튼한 맑스—레닌주의적 조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력사적인 과업이 오늘 우리 세대의 당원들에게 부과되였습니다.

경험은 적대 세력과의 첨예한 계급 투쟁이 버러지는 환경에서 만일 당내 종파가 제때에 제거되지 않고 조장된다면 그것은 적대 분자들과 결탁하거나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리용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당의 조직 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전체 당원들은 당의 로선을 철저히 옹호 집행하며 당 로선과 배치되는 일체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 위원회들과 매개 당원들이 당 규약상 의무를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당 생활을 강화하며 당 조직 생활에서 표현되는 일체 불건전한 경향을 근절하기 위하여 꾸준한 조직 사상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원들 속에서 핵심 대렬을 꾸준히 육성하며 초급 당 단체들의 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당 단체들과 당원들이 어디서나 군중의 믿음직한 지도자, 조직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쓰크바 회의 선언들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완전히 일치하며 우리 당의 앞으로의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금번 모쓰크바에서 채택된 선언들과 10월 혁명 40주년 기념 쏘련 최고 쏘베트 경축 회의에서의 흐루쑈브 동지의 보고 및 호소문들을 깊이 연구 토의하며 그를 광범한 인민 대중에게 침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틀림 없이 이 문헌들은 우리 당원들과 우리 인민들의 자신심을 북돋아 줄 것이며 그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력사적인 모쓰크바 회의에 보답할 것입니다.

동지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자기가 거둔 세계사적 승리를 총화하고 새로운 앙양기에 들어 섰습니다.

조선 로동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선봉대들의 영광스러운 일원으로서 세계를 개조하는 진보적 인류의 위업의 일부를 감당하고 그를 영예롭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리념이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박수)

조선 혁명을 촉진시키며 그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우리들의 당면한 주요 과업입니다.

우리 당은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기치하에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의 성과와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기치하에 우리 민족과 우리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종국적 해방을 위한 력사적인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조선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우리 당의 레닌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그의 전투력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인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합시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위대한 사변, 위대한 강령

쏘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 사회주의 력량의 불패의 단결과 사회주의의 결정적 우월성을 시위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경축과 함께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대표 회의들은 현 국제 정세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보여 주는 력사적 사변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은 위대한 사변이다.

이 회의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력사에서 전례 없는 가장 많은 당 대표들이 참가함으로써 그 단결의 범위에 있어 종래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모든 시기를 릉가하였다. 회의들에서는 국제 로동 운동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문제들, 현 국제 정세와 그로부터 흘러 나오는 각국 당들의 공동 투쟁 과업들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 견해의 완전한 일치를 봄으로써 그 단결을 가일층 공고화하였다.

두 회의들의 전 행정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단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들에 기초하여 결합된 각국 당들의 호상 존중과 완전한 평등적 관계를 특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확고한 단결,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불패의 통일 단결을 시위하였다. 그러므로 이 회의들은 최근 시기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 특히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분렬시키며 그를 소위 《각개 격파》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들을 뒤집어 놓고 있으며 앞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이 감히 그러한 시도들을 용이하게 획책할 수도 없으리만큼 굳은 단결을 표명하였다.

회의들에서 채택된 두 선언들은 사회주의와 평화를 위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활동과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혈연적 리익을 위하여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며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금후 활동의 지침으로 되는 위대한 강령적 문헌이다.

실로 그렇기 때문에 모쓰크바 회의와 그 선언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진영의 가일층의 강화 발전에 있어서, 세계 평화를 위한 모든 인민들의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로 되며 사회주의와 진보를 지향하는 모든 인민들을 제국주의에 대한 공격에로 고무 추동할 것이다.

모쓰크바 회의와 그 선언들은 오늘날 국제 정세가 바야흐로 새로운 력사적 전환기, 즉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및 평화 진영이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진영을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력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표현하였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언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10월 혁명으로부터 개시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다. 사회주의는 부단히 그 력량과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반면에 제국주의는 몰락의 일로를 걷고 있다. 사회주의는 세계의 수억만 사람들의 심장을 끌어 잡고 있으며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 조건하에서 국제 무대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력량 관계는 결정적으로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지금 벌써 세계 인구의 근 10억, 세계 령토의 4분의 1 이상이 사회주의 체계에 망라되고 있다.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과 그 영향력에 의하여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있던 수 많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독립을 쟁취하고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인민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월남 민주 공화국을 제외하고도 7억 이상이나 되며 아직 식민지 예속하에 있는 인민들은 불과 1억 6천만 밖에 안된다. 이들도 자기의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다.

제국주의 진영은 현재 사회주의 력량과 반제국주의 력량이 장성되므로 하여 극도로 약화되였다. 제국주의는 이미 인류의 대부분에 대한 지배를 상실하였다. 지금 제국주의 국가들에는 4억 남짓한 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 내부에서는 비단 부르죠아지와 로동 계급간의 계급적 대립 뿐만 아니라 독점 부르죠아지와 각 계층 인민들 간의 모순, 제국주의 국가 상호간의 모순들이 첨예화되고 있다. 자본의 착취를 받고 있는 로동 계급은 현재 자기들의 곤난한 처지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출로가 사회주의라는 것을 더욱 굳게 확신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회주의는 력량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로서 자본주의보다 훨씬 우월하다.

40 년 동안 사회주의는 자본주의하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써 사회 생산력을 발전시켰으며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켰다.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제국에서 달성된 거대한 경제 과학 기술적 제 성과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자본주의하에서 있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적 권리를 근로자들에게 보장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정치적 통일, 민족들의 평등과 친선을 실현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의 유지,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대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현재에 와서 현저히 눈에 띄우게 나타나고 있다.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은 경제 발전의 속도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을 훨씬 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가장 중요한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결정적으로 릉가하고 있다. 최근 쏘련에서 2차에 걸쳐 성공적으로 발사된 인공 지구 위성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결정적 우월성을 전 세계에 시위하였으며 소위 미국의 과학 기술적 우월성에 관한 모든 신화를 여지 없이 분쇄하여 버렸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이렇게도 특출하게 발현되여 미국인들이 지금은 쏘련을 따라 잡겠다는 구호를 내걸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대륙간 탄도 로케트, 인공 지구 위성,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 등 일련의 중요한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쏘련보다 훨씬 뒤떨어지게 됨으로써 그의 《위신》이 이미 저락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요란스러운 선전 소동 끝에 발사된 《뱅가드》 인공 위성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위신》은 더욱 저락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한다는 데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확증으로 되였다.

사회주의는 오늘날 력량 관계에 있어서나 그 경제 발전의 속도에 있어서나 그리고 또 일련의 중요한 과학 기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앞으로 그 승리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며 평화적 경쟁에서 자본주의를 더욱 멀리 뒤에 떨구어 놓을 것이다.

모쓰크바 회의와 그 선언들이 명백히 보여 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체계간의 경쟁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위대한 력사적 전변들은 전 세계사적 범위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 또는 우리 혁명의 필연적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하여 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모쓰크바 회의와 그 선언들에서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긍지와 고무적 힘을 얻고 있다. 12월 5—6일에 걸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가 인정한 바와 같이 모쓰크바 회의와 그 선언들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실시하였으며 또 실시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그와 완전히 일치되고 있다.

전원 회의는 모쓰크바 회의와 그 선언들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하고 그의 정확한 실현을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하였으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 국제 공산주의의 공동의 위업과 평화 위업에 충실한 우리 당의 일관된 립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였다.

모쓰크바 회의와 그 선언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시기에 있어서 평화의 유지 공고화를 위한 문제는 세계 정치의 기본 문제이며 평화 옹호 투쟁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제1차적 과업이다.

제국주의가 조성하는 새 전쟁의 위협성은 오늘날 계속 남아 있다.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은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추구하면서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적 자유를 말살하며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며 새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 남반부에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로골적으로 전쟁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기도들은 실패되고야 말 것이다.

지금 세계의 정세는 과거와는 다르다. 조건이 변화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 평화 력량은 전쟁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 강화되였다.

현 시기에 있어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실제적 요인들은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 반제국주의적 립장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제 국가와 함께 광대한 평화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아세아 및 아프리카의 평화 애호 국가들의 존재, 국제 로동 계급과 그의 전위대인 공산당들의 반전 투쟁의 강화, 식민지 및 반 식민지 인민들의 해방 운동,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대중적 운동의 거대한 장성 등이다. 이 강력한 력량들의 단합은 전쟁의 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바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전쟁을 감히 도발한다면 제국주의는 완전히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모쓰크바 회의와 그 선언들에서 제기된 평화 유지를 위한 일련의 대책들은 우리 당과 정부의 정책에 완전히 일치한다. 우리 당과 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초는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레닌적 원칙이다. 이 원칙들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호상 협조와 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일관된 립장이다.

금번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평화 유지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정책을 재천명하였으며 세계의 평화 유지, 특히 아세아에서의 평화와 집단 안전을 위하여 계속 완강하게 투쟁할 것을 강조하였다.

오늘 아세아에는 새 전쟁 도발을 위한 온상들이 계속 남아 있다. 미제는 인민들로부터 고립된 자기들의 주구들, 례컨대 장 개석, 리 승만, 느고 딘 디엠 등을 규합하여 아세아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회복하여 보려고 발광하고 있다. 군사 행동이 도발될 수 있는 이 지역들을 미제는 특히 원자 기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전쟁 위협의 제거와 공고한 평화의 수립, 특히 군비 축소, 대량 살륙 무기의 생산 및 사용 금지, 핵 무기 시험 금지를 위한 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특히 아세아의 어느 한 나라에도 외래 제국주의 침략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반대하며 미국 침략 군대의 원자 기지로 되는 것을 반대하여 모든 나라 인민들과 함께 투쟁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 인민들의 자유와 평화적 생활을 위한 우리의 숭고한 사명이다.

전원 회의 보고에서 특히 김 일성 동지는 모쓰크바 회의와 그 선언들에 립각하여 우리 인민의 사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극동 및 세계 평화 유지의 공고화와 직접 관련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확고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현 계단에 있어서 조선 인민 앞에 나선 가장 선차적인 과업이다.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우리 당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민주 기지를 강화하는 한편 남조선의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반제 반봉건적 투쟁에 궐기시키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의 정당성은 생활에 의하여 확증되였으며 또 모쓰크바 회의 선언들에 의해서도 실증되고 있다.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쏘련을 비롯한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지지 성원에 튼튼히 의거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과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단합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동원한다면 우리 나라의 통일은 달성될 것입니다》.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 조건은 우리 당 로선의 정확성을 더욱 실증하여 주며 그 실현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중심 고리로 되는 북반부의 사회주의적 력량은 현재 비상히 강화되고 있으며 반면에 남조선 지배층의 통치 지반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 남반부에서의 민족 경제의 완전한 파탄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의 심화와 또한 정치적 위기의 증대, 반미, 반리승만 력량의 점차적 장성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력량 관계는 지금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것은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적 력량은 더욱 장성 강화될 것이며 우리 나라는 자립적인 공업, 농업국으로 전변될 것인바 이것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남조선에는 극소수의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제외한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가장 광범한 력량들을 망라하는 모든 애국적 력량의 통일 전선을 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숙되고 있다.

조성된 정세하에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 단체, 개별적인 인사 및 모든 계층들과의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투쟁하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하여 극히 필요하다. 우리는 민족적 독립과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인사들이라면 그의 과거를 불문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다. 이것은 모쓰크바 회의와 선언들의 정신에 완전히 부합된다.

민족적 량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의 단결을 강화하며 남북 조선에서 모든 정당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구속도 없이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조선 정전 협정의 모든 조항들의 엄격한 준수, 정전의 공고한 평화에로의 이행, 남북 조선간의 접촉과 호상 리해에 기초한 협상, 외국 군대의 철거, 남북 조선 자체 병력의 축소,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남북 조선 대표들을 참가시키는 유관 국가들의 국제 회의 소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킬 것이며 그의 현실적 가능성을 조성할 것이다.

모쓰크바 회의와 그 선언들에서 가장 큰 중심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통일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가 특별히 중요성을 띤 것은 바로 통일이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힘의 원천이며 또 보다 광범한 단결을 위한 핵심일 뿐만 아니라 현 시기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 앞에 제기된 력사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담보로 되기 때문이다.

최근 시기에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통일은 국제 반동들과의 첨예한 투쟁 속에서 더욱 공고화되고 단련 강화되였다. 각국 당들은 반동들에 타격을 가하면서 자기 대렬의 통일을 강화하며 맑스—레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쏘련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통일 단결을 보장하였는바 이것은 금번 모쓰크바 회의들에서 최고도로 발현되였다.

사회주의 진영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통일은 그 어떠한 반동의 시도도 능히 분쇄할 수 있는 불패의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인류 력사상 완전히 새로운 관계이다. 그것은 완전한 평등, 령토 완정, 국가적 자주성과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 내정 불간섭, 협조와 호상 원조의 기초 우에서 이루어진 형제적 친선 및 신뢰의 관계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련대성은 이 나라들이 동일한 사회 경제 제도 즉 사회주의 제도하에 있다는 것으로써 규정되며 호상 지지와 원조의 필요성, 새 사회 건설에서의 종국적 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하나의 대가정에 결합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자기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당들은 호상 깊이 리해하며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호상 련계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모쓰크바 회의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당들 간의 관계의 기본으로 되는 이 원칙들을 재확인하였으며 앞으로 호상 련계와 협조를 더욱 강화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당면한 문제의 심의, 경험 교환, 호상간의 견해와 립장의 료해, 공동 투쟁에서의 보조의 일치를 위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광범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회담의 방법으로 당들과 국가들의 호상 련계와 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및 각국 당들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는데 있어 보다 유익할 것이며 그 단결을 공고화하는 것을 촉진시킬 것이다.

모쓰크바 회의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당들 간의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특히 단결의 중심으로서의 쏘련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진영,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의 가일층 발전의 결정적인 조건은 그것들이 하나의 중심의 주위에 단결하는 것이다. 단결의 중심으로서의 쏘련의 지위는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누가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이 아니다. 쏘련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지난 40 년 동안 줄곧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와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등대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이 출현한 이후에는 이 진영 내에서의 가장 강대하고 경험이 풍부한 나라로서 우리 나

라를 포함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 거대한 원조를 주었으며 자본주의 국가들의 인민들에게도 거대한 성원을 주었다. 그러므로 쏘련을 중심으로 단결하며 그를 옹호하는 것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 당은 쏘련의 력사적, 중심적 역할을 항상 강조하여 왔으며 쏘련과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항상 고수하여 왔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제주의적 단결의 힘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어 체험하고 있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이 쏘련을 훼방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악랄한 음모를 도발한 때에도 동요함이 없이 쏘련을 적극 지지하며 그를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옹호하여 나섰던 것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쏘련을 선두로하는 사회주의 진영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우리 인민들과의 친선을 공고히 하며 쏘련 공산당의 경험을 더욱 훌륭히 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이것은 금번 전원 회의에서 또다시 표시된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이다.

우리 당의 전 활동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제 원칙에 립각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당원들과 인민들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면서 민족주의의 사소한 경향과도 용허함이 없이 투쟁하여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과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무장됨과 동시에 그와 배합된 애국주의 사상으로 더욱 무장되여야 한다.

우리의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이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 리익과 민족적 감정의 수호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달성한 모든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고수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에서 긍지를 가지며 과거의 우수한 모든 민족적 유산들을 계승하여 인민의 소유물로, 그들의 생활에 복무되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혁명적 임무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애국적 의무인 동시에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사회주의 력량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단결에 손해를 주는 일체 불건전한 사상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혁명적 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해야 한다.

혁명적 리론의 순결성을 위한 투쟁은 그 어느 때에 있어서나 절실한 과업으로 된다. 현 조건하에서 그것은 더욱 긴절하다. 각 전선에 걸쳐 심대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와해하려는 파괴 공작과 사상적 악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모쓰크바 회의 선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 그 변종인 기회주의적 조류와의 투쟁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 로동 운동 내에서 주되는 위험으로 되는 사상적 조류는 선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정주의, 즉 자본주의의 보존 및 재생을 요구하는 우경 기회주의이다.

현대의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훼손시키며 그의 혁명적 정신을 말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적 원칙들은 쏘련의 40 년간의 경험,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통하여 검열되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 있어서도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원칙적인 립장을 규정하는 기준이며 또는 그들의 활동의 지침이다. 이 기본 원칙들로부터의 리탈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로동 계급의 위업에 손실을 준다.

매개 당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자기 나라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본 원칙들을 확고히 고수하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들, 민족적 특성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민족적 특성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이나 또한 민족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모두 사회주의 위업에 손실을 준다.

모쓰크바 회의와 그 선언들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적 편향들을 배격하면서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칙을 자기 나라의 혁명 및 건설의 구체적 실천과 부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 창조적으로 적

용하면서 서로 배우며 경험을 교환할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칙들을 확고 부동하게 고수하여 왔으며 그에 배치되는 일체 불견실한 사상과의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최근 시기에 제국주의 침략 계층과 기회주의자들의 도발적 공세가 강화되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당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면서 사회주의의 위업을 고수하여 왔으며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이것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정책이 정확하였고 그 주위에 전 당이 강력하게 통일 단결되여 있다는 증좌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정주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나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불견실한 자들과 소부르죠아 동요 분자들에게 외부로부터 수정주의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우리의 위업을 파괴하려는 기도를 잠시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파괴 활동을 기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 투쟁 특히 사상 분야에서의 투쟁은 보다 장기간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으로 될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된 반당 종파 분자들은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국제 수정주의의 영향에 사로 잡혔으며 다른 방면으로는 간고한 혁명 투쟁의 시련을 이겨 내지 못하고 투항주의에 빠져 들어가 당과 혁명을 배반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에 기초하여 온갖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의 투쟁을 더욱 완강히 전개하며 맑스—레닌주의 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창조적 맑스—레닌주의의 립장에 확고히 서 있다. 당은 교조주의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그를 극복하는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여 왔다. 특히 혁명 수행에서 주체 확립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퇴치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졌다. 우리 당의 이 현명한 대책에 의하여 교조주의, 형식주의는 점차 청산되여 가고 있으며 경제 지도와 사상 사업 분야 및 기타에서 현저한 개진을 가져 오고 있다.

우리 당의 전 활동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경제—정치적 과업 해결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모범으로 된다. 우리 당이 실시한 일련의 정책들, 즉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혁명적 민주 기지의 창설 로선,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개조 리용 제한 정책,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농업 협동화 정책, 특히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전후 경제 발전의 총로선 등은 우리 당 정책의 창조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 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책은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여기에 대내 대외 정책에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가 있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정책은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방도에 관한 모쓰크바 회의 선언의 정신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교조주의, 형식주의는 우리 당의 투쟁에 의하여 현저히 퇴치되였으나 아직 그것은 우리 나라 자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남아 있다. 우리는 특히 우리 나라에서 교조주의가 과거 장구한 봉건 통치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민족적 자부심을 못 가지고 남의 것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던 낡은 사상이 남아 있고 또한 우리의 실천적 경험의 결핍으로 인하여 산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며 특히 지도 일'군들 속에서 유물 변증법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혁명적 리론의 순결성을 위한 투쟁은 곧 맑스—레닌주의 사상적 기초하에서의 당 대렬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이다. 당 대렬의 맑스—레닌주의적 통일을 수호하며 각종 종파 분자들을 제거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담보이며 또 각국 당들의 사상적 및 조직적 단결의 기초이다.

우리 당이 우리 인민을 령도하여 오늘과 같은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한 것은 오직 우리 당이 그 통일을 파괴하려는 온갖 종파 분자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고 그들을 제때에 분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당이 완강하게 진행한 반종파 투쟁의 정당성

은 모쓰크바 회의 선언에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강조한 바와 같이 당의 통일을 보전하며 종파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것은 우리의 첫째가는 의무이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첨예한 계급 투쟁이 벌어지는 환경에서 만일 당내 종파가 제때에 제거되지 않고 그냥 남아 있다면 그것은 적대 분자들과 결탁하거나 그들에게 직접 리용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반당 종파 분자들은 자기들의 탐위주의를 위하여 어떠한 행동이라도 서슴없이 감행함으로써 당과 혁명에 커다란 손실을 주었다.

종파 분자들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며 그들의 반당적 행위를 미연에 저지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 핵심을 더욱 육성 강화하여야 한다. 당 핵심이 강화되면 될수록 종파 분자들은 자기의 반당적 행동을 용이하게 할 수 없을 것이며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외곡하며 당의 통일에 손실을 줄 수 있는 사소한 불건실한 경향들이 제때에 폭로 분쇄되여 당 정책이 더욱 철저하게 관철될 것이다.

당의 조직 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의 로선을 철저히 옹호 집행하며 당의 로선과 배치되는 일체 현상들과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당적 립장에 선 원칙적 로선은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다. 크나 적으나간에 모든 것을 당과 인민과 나라의 근본적인 리익의 관점으로부터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 그 리익을 계속 부절히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바로 이것이 원칙적인 로선이며 모든 사업에서 이를 반드시 고수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길——그것은 인민의 길이며 당의 사업은 인민의 사업이며 당의 리익은 인민의 리익이다. 때문에 우리는 인민적 사업 작풍을 확립하고 모든 사업을 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그들과의 련계를 더욱 밀접히 강화하여야 한다. 오직 대중과의 밀접한 련계를 튼튼히 견지함으로써만 우리는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방해하며 대중의 창발성을 억제하는 보수주의, 관료주의 및 사무실적 사업 작풍과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매개 일'군들이 대중 속에 들어가 배우며 그들과 산 련계를 맺으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력량을 동원할 수 있는 당적 작풍을 체득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데 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당의 정신과 마음으로 생활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국제주의적 위업에 더 충실할 수 있으며 모쓰크바 회의들에서 제기된 공동 투쟁 과업들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보답할 것이다.

12월 전원 회의의 거대한 생활력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1 년이 경과하였다. 지나간 1 년 동안에 우리 나라에는 거대한 경제적 및 정치적 앙양이 일어났으며 우리 당 경제 정책과 조직 지도 사업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이 더욱 뚜렷하게 실증되였다. 12월 전원 회의는 전후 복구 건설의 3개년 계획이 승리적으로 완수되고 1957—1961년 제1차 5개년 계획 수행에로 이행하던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의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진행되였다. 12월 전원 회의는 력사적인 제3차 당 대회가 제시한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에 립각하고, 3개년 계획의 승리적 완수의 결과로 새로이 조성된 경제적 환경과 과업들을 정확히 반영하여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을 규정하였으며 이 과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확립하였다.

제1차 5개년 계획은 선행한 3개년 계획에 비하여서 비상히 긴장된 경제적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이미 달성된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성과들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축성하며 본격적인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며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계속 동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설 및 생산 장성의 급속한 템포를 보장하며, 장성된 주민들의 실질 수입과 구매력에 상응하게 인민 소비품의 생산과 류통을 확대 강화하고 알곡 생산을 더욱 증대하여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일련의 복잡하고도 곤난한 당면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형제 국가들의 무상 원조에 많이 의거할 수 있었던 3개년 계획에서와는 달리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방대한 건설 자금과 자재들을 주로 우리 나라 내부 원천과 가능성들에 의거하여 해결하여야 하게 됨과 관련하여 긴장성은 더욱 증대되는 것이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5개년 계획에로 들어 서는 첫해의 이 어려운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방도를 명시하였다.

공업, 특히 중공업 부문의 방대한 기본 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은 기본 건설 투자를 가급적 단기간에 조업을 개시할 수 있는 대상들에 집중적, 중점적으로 하며, 기자재, 원료 등에서 외국 수입에 대한 의존성을 극도로 축소하고 국내 산품 또는 대용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품종들에 대해서는 대담하게 전환하며, 수출 원천을 극력 탐구 확대하여 외화 획득을 증대시키며 기존 설비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 생산을 확대하며 자금 축적과 회전을 촉진시킬 대책을 명시하였다.

이것은 긴장된 국가 재정 발란스를 완화시키면서 공업의 방대한 건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유일하게 가능한 대책이였다.

주민들의 증대된 구매력과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인민 생활의 계통적인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3개년 계획 기간에 상당한 규모에서 복구 건설된 경공업 기업소들의 기존 설비와 가능성들에 의거하여 생산 장성의 내부 원천을 총동원하며 자재 및 원료 소비에 대한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을 증대시키며 품종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 산업과 생산 협동 조합, 수공업, 가내 공업 등 소규모적이며 주로 지방 원료 원천에 의거하는 일용품 생산을 적극 장려하며 발전시키는 방침을 취하였다.

이것은 인민 생활 필수품 생산에서 국가 자금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주민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되였다.

당 중앙 위원회는 또 알곡 및 공예 작물 생산의 급속한 증대를 위하여 농업 협동 경리를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며 선진 영농법 도입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데 대하여 교시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의 역할을 제고하며 그 기관들의 사업을 결정적으

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경제 건설의 환경과 인민 경제 발전의 수준에 적응하며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인 인민 생활의 부단한 개선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으로 되는 것이였다.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는 이상과 같이 긴장된 과제들과 그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도들을 명시하는 동시에 국가 기본 과제 이외에 실로 적지 않은 량의 강재, 상품, 알곡 등을 초과 생산할 것을 전체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의에 호소하였던 것이다.

12월 전원 회의의 정신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준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이라는 구호에 의하여 요약되였다.

12월 전원 회의의 력사적인 결정을 채택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철옹성같이 장성 강화된 인민 민주주의 국가 사회 제도와 도시, 농촌에서 이미 결정적 승리를 확보하였고 생산력의 발전에 적극적인 반작용을 주고 있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무비의 우월성과 근로자 대중의 창조력에 튼튼히 의거하였다.

지나간 1 년간의 모든 경험은 우리 당의 이 타산과 정책이 가장 정당하고 정확하였다는 것을 론박할 여지 없이 확증하여 주었다.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 과정에서 우리 나라 북반부의 인민 민주주의 독재와 인민 민주주의적 사회 제도는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우리 당 정책의 가장 충실한 집행자로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무기로서의 기능을 철저하게 수행하였다.

우리의 인민 정권은 첨예화된 계급 투쟁의 환경 속에서 온갖 적대 분자들과 적대 세력들의 파괴 암해의 기도들을 성과 있게 분쇄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하였다.

우리의 인민 정권은 계획 경제를 조직하며, 광범한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백방으로 추진시켰다.

우리 인민 정권은 경제 발전과 생산력의 도달된 수준이 주는 모든 가능성들에 기초하여 계통적으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제고시키는 사업에서 거대한 조직적 동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의 인민 정권은 각급 인민 위원회 기관들의 사업을 더욱 간소화하는 동시에 각계 각층 인민들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가 사업에의 그들의 보다 열성적인 참가를 보장하였으며 그들을 긴장된 증산과 절약 투쟁에로 동원하였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이룩한 인민 정권의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인민 민주주의 국가 사회 제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이 성과들은 최고 인민 회의 선거와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1차 회의 사업을 통하여 총화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우리 인민들의 정치 사상적 통일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인민 정권의 정치적 기초로 되는 로동자, 농민의 동맹을 핵심으로 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은 더욱 강화되였다.

현 단계에서 우리 나라 북반부의 로동자, 농민의 동맹은 확고한 경제적 기초를 가지게 되였는바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에서 일하는 로동 계급과 사회주의적 농업 협동 조합원들의 동맹으로 되였다. 이 동맹은 우리 혁명의 완수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 기간을 통하여 사회의 기본 세력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과 그 성과는 우리 나라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생산력 발전에 주는 거대한 추동적 의의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명백히 증시하였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는 이미 인민 경제의 각 부문에서 확고한 지도적 지배적 력량으로 되였다. 사회주의적 경제 행태는 공업 생산의 98%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농업에서 92% 이상의 경리를 망라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과도기에 고유한 경제의 다우클라드성이 점점 제거되여 가며 유일한 사회주의적 인민 경제 체계가 확립되여 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착취와 계급적 적대의 근원을 청산하였으며 일익 장성하는 사회의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여 주며 근로자들의 로력에 있어서 호상 협조와 높은 창의 창발과 영웅주의를 발휘할 수 있게 하며 생산 수단과 로력의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리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생산력의 급속한 장성과 사회의 물질 문화 수준을 계통적으로 제고시켜 준다.

이것은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완전한 상응을 의미하며 사회주의 경제의 거대한 우월성을 의미한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의 정당성과 과학성은 바로 우리 인민 경제 발전에서의 선진적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이러한 동원적 혁신적 의의를 정당히 평가하였으며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튼튼히 의거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공업 총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근 40%나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는바 이것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생산 장성 템포에 비하여 실로 10 여 배를 넘는 급속한 속도로서, 이러한 속도는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의 애국적 농민들은 금년에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실천하는 투쟁 행정에서 협동 경리를 가일층 발전시켜 오늘 이미 전체 농호의 92% 이상이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에 망라되였다. 농업 협동 조합들은 금년도 국가 계획은 물론 자기들의 증산 결의도 성과적으로 달성하였다. 금년에 알곡 생산은 320만 톤 이상에 달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금년에 우리 농민들은 류례 없이 계속된 한발과 일부 지역들에서의 수해에도 불구하고 알곡 증산의 결의를 실천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과수 면적과 공예 작물 생산을 확장하며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군중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의 농업 협동 조합들은 아직 매우 청소하고 경험이 부족하며 기술적 장비에서 완전히 현대적으로 개조되지 못한 조건하에서도 개별적 소소유자들이나 착취자적 경영으로써는 달성할 수 없는 생산력 장성의 높은 템포와 계획적 발전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력 발전에 대한 근로 대중들의 높은 관심과 창발성을 보장하여 주며 인민 경제에 내재하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을 지어 준다. 위대한 레닌은 사회주의란 《자본주의에 비해 고상한, 자원적이고 의식적이며 단결되고 선진 기술을 리용하는 로동자들의 로동 생산 능률》이라고 가르쳤다. 바로 이와 같은 로력자들의 높은 자각성과 의식성에 기초한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이 우리 나라 북반부의 사회주의 경제 형태들에서 급속도로 장성하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필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착취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의 리익을 위하여 일하는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자각적 태도가 이와 다른 어떤 결과를 가져 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전 인민적 증산 운동에서 발휘된 로동 계급과 농업 협동 조합원들의 영웅성과 고도의 로력적 앙양에서 더욱 뚜렷하게 표현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호소한 증산과 절약의 구호에 따라 우리 나라 북반부의 로동자, 농민들은 직장 대회와 대중 집회들을 통하여 1957년도 국가 계획 과제를 훨씬 넘는 증산 과제들을 결의하였다. 그들은 추가 투자 없이 기존 설비의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하여, 원료, 기자재들의 소비 절약에 의하여 중요 생산품들을 증산하며 제품 원가를 훨씬 저하시킬 결의들을 채택하였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높은 창조적 적극성과 창발성은 실로 방대한 증산의 내부적 예비를 탐구하게 하였으며 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높은 영예감으로써 능히 국가 생산 과제를 보충하며 확장하게끔 하였다.

력사는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근로 대중들의 창조적 역할과 혁명성을 한두번만 보여 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산에 있어서, 경제 건설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고도의 열성과 창조력의 발현은 오직 한 가지 사회 제도—사회주의적 사회 제도하에서만, 우리 나라 북반부에 수립된 바와 같은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의 력사적 의의는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로의 이행에서의 가장 어려운 과업의 해결에서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반영하고 그것이 우리의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에게 파악됨으로써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력량과 고상한 정치적 열성을 남김 없이 발동시켰다는 그 점에 있는 것이다.

력사는 우리의 영예로운 로동 대중——영웅적

로동 계급과 농업 협동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전체 근로 인민들이 자기가 맹세한 증산 과제들을 어김없이 실행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부문들에서 초과 실행하였다는것을 자랑스럽게 보여 주고 있다. 례를 들어 금년 상반년에만 하여도 우리 나라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부문에 종사하는 로동자,기술자들은 증산 과제까지 포함하여 계획을 총액적으로 102%로 초과 실행하였으며 3. 4 분기에는 103%로 초과 실행하였다.

그리하여 1957년 1월부터 9월까지에만 하여도 공업 부문 근로자들은 기본 계획에 비하여서는 14억원에 달하는 각종 생산 수단과 소비품들을 더 많이 국가에 주었다.

사회주의는 사회적 로동과 로동 수단의 최고도의 절약을 가능케 하여 주는 동시에 경제 운영에서의 엄격한 절약 제도를 요구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의 기본 정신의 하나이다. 지난 기간에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엄격한 절약 제도의 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달성한 성과는 공업 부문에서만 하여도 금년 3.4 분기 현재로 전력 2억 3,700만 키로와트시, 석탄 90,000 여 톤, 콕스 22,000 여 톤, 강재 3,100 여 톤, 목재 59,000 립방메터라는 방대한 수량에 달하였으며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생산적 소비 절약에 의한 원가 저하 계획은 금년 상반년에는 106%로, 3. 4 분기에는 106.3%로 각각 초과 달성되였다.

인민 경제의 각 부문에 걸친 기술 기능 제고와 로력 조직의 합리화를 위한 대중적 창의 고안 운동이 확대되고 공업의 기술 지표들이 현저하게 개선되였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선진 영농 방법과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광범한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작물의 단위당 수확고와 수익성이 높은 다각적 경영 방법들이 점점 더 광범하게 도입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확대 강화되는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에 튼튼히 의거하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생활력을 실증하여 주는 산 현실이며 그의 산 표현인 것이다.

일찌기 레닌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사소한 생산 수단과 소비 자료의 소비까지도 최대한으로 절약하기 위한 자각적이며 헌신적인 보통 로동자들의 배려에 있다고 가르쳤다.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증산 운동에서 우리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이 발휘한 고상한 자각성과 책임성은 바로 이와 같은 생산 관계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가 우리 나라 북반부에 확립되였으며 날로 공고 발전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현을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은 인민 경제 발전에서의 사회주의의 크나 큰 생활력과 자본주의에 비한 그의 압도적인 우월성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되였다.

오늘날 미 제국주의 식민지 강점자들과 매국 매족적인 리 승만 괴뢰 도당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 나라 남반부에 있어서는 인민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되여 버렸다. 여기에는 이미 자기 세대를 다 살고 난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기생성과 그와 야합한 흡혈귀적 지주, 예속 자본가, 고리대금업자들의 기생성이 결합되여 있으며 생산력의 파괴와 피폐가 전면적인 경제적,정치적 위기를 빚어 내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남반부의 인민 경제를 인공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점점 더 미국 독점의 예속하에 몰아 넣고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자립적인 민족 경제 발전이 미 제국주의자들이 목적하는 고률의 식민지 리윤과 략탈에 불리하기 때문이며 우리 나라 남반부에 대한 자본 수출과 잉여 상품 수출에 지장으로 되기 때문이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남반부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날이 갈수록 더욱 로골화하여 남반부 동포들의 생활 형편을 극도로 령락시키고 파탄의 구렁텅이에 점점 더 깊이 몰아 넣고 있으며 야수적인 인종 차별과 부패한 미국식 생활 양식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만 남반부 인민들을 미제의 노예로 순종케 하여 값싼 로임과 기아의 생활 수준에 결박하여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주민들에 대한 세금과 략탈을 더욱더 과중케 하면서 소란스럽게 《북진》 소동과 전쟁 기분을 고취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잉여 상품의 실현을 위한 그리고 고률의 독점 리윤을 얻기 위한 중요한 《영업》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은 오늘날 남반부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남반부의 로동자, 농민, 근로 인민들이 생산력의 발전에,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사회적 로동의 절약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반부에 수립된 식민지적 반 봉건적 착취 제도와 그 모든 기생성의 지배하에서 우리 나라 남반부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1956년에 남반부 전체 공업 시설의 가동률은 60%에 불과하였다. 남조선 당국의 공식 자료들까지도 남조선에서 경지 면적은 일제 말기에 비하여 20만 정보나 감소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956년에 남조선의 알곡 생산은 일제 시기보다도 약 900만 석이나 감소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곡창이던 이 지역은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되는 지역으로 전락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 전역에 걸쳐 110 여 만에 달하는 실업자가 일터를 구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반 실업 상태에 놓여 있으며 100만여 호의 절량 농가들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 남반부에 현존하는 생산 관계가 생산력 발전을 저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 남반부에서 생산력 발전의 현실적 요구가 낡은 생산 관계의 철폐를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현을 위한 전 인민적 증산 투쟁의 성과들은 남북으로 분렬된 우리 나라에서의 두 개 사회 제도의 대비를 더 한층 뚜렷이 보여 주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 사회 제도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우월성, 경제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과 성숙된 요구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당성,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 대중의 위대한 창조력과 애국적 적극성——이 모든 것은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 인민의 승리를 규정한 가장 기본적 요인들이다. 그러나 제도의 우월성과 당 정책의 정당성과 인민 대중의 창조력은 그것만으로써는 아직은 모든 가능성의 현실로의 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객관적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로선과 정책이 있는 조건하에서는 모든 문제는 이 가능성들을 현실로 전화시키며 당의 정당한 로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옳바른 집행의 조직 여하에 있으며 인민 대중의 창조력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양시키는 거기에 달려 있다.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의 생활력은 우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이 정책적 과업의 관철을 위한 당의 옳바른 지도 사업에 의존한 것이였다. 공업 생산 장성 템포가 년 40%라는 기적적 현상은 물론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의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오늘의 현실로 전화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논 것은 12월 전원 회의 결정 자체보다도 이의 실천을 위한 조직 지도 사업,대중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시키고 그들을 이의 실천에로 궐기시키기 위한 당의 조직 지도 사업이였다.

12월 전원 회의 결정이 채택되던 첫 시기에 부분적인 국가 및 경제 지도 일'군들 속에서는 당 정책 실현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동요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다. 한편으로는 방대하고 긴장된 경제 과업 앞에 놀래여 주체적 력량을 과소 평가하고 과연 그 방대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자신 없이 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안일성과 실무주의적 보수성에 물젖어 날로 장성되는 사회주의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중의 현명성과 창조적 력량을 보지 못하고 대중과 상론할 줄 모르며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에 대담하게 의거할 줄 모르는 부분적 지도 일'군들의 낡은 사업 태도가 그것이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당 정책 관철에 모든 힘을 다하려는 주인답고 선봉대다운 사상적 준비가 부족한 데서 나오는 현상들이였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을 극복하면서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대중들의 창의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키기 위하여 경제 건설의 중요 환절들에 대한 집중적 지도 사업과 현지 군중 토의를 조직 지도함으로써 전 인민적 사상 동원 사업을 보장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 및 중요 지도 간부들이 직접 생산 직장과 현지에 동원되여 근로자들의 집회를 조직 지도하였으며 대중과 직접 토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근로자들을 고무 격려하는 강한 인민적 사업 작풍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우리 당은 앙양된 근로자들의 증산 의욕을 옳게 조직 추동하기 위하여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을 총동원하였다.

이리하여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호소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전투적 구호를 실천하기 위한 전 인민적 투쟁 행정에서 우리 당과 근로 대중들의 물샐틈 없는 련계는 더욱 강화되였으며 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시위하였다. 12월 전원 회의 결정 집행을 위한 거대한 조직, 정치 사업을 통하여 우리 당은 경제 지도의 더욱 풍부한 경험들을 쌓았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 왔다.

이 모든 성과들은 지난 시기에 우리 당 경제 정책의 본질과 인민성을 외곡하며 그 정당성을 비방함으로써 엄중한 반인민적, 반혁명적 해독을 감행한 최 창익, 박 창옥, 윤 공흠, 서 휘, 리 필규, 리 상조, 김 승화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의 모든 요언과 정체를 뿌리채 폭로 분쇄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실로 되였다.

이것은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의 산 표현인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총로선과 레닌적 당 조직 지도 사업에 대한 또 하나의 빛나는 검증으로 된다.

이것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전 당과 전체 조선 근로 인민의 강력한 의지의 통일성에 대한 새로운 시위로 되며 우리 나라 근로 대중의 선봉대로서 우리의 조국을 행복하고 부강한 장래 발전의 길로 이끌어 가는 조선 로동당의 불패의 력량과 지도적 및 향도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실증으로 된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의 가장 큰 총화가운데 하나는 당이 현 단계 우리 혁명과 건설 사업의 제 조건들에 적응하여 경제 건설의 사회주의적 방식과 그에 대한 인민적 지도 사업의 새로운 전형을 창조하였다는 그 점에 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에서 달성한 성과들은 지극히 거대하며 고귀하다. 이것은 전체 조선 인민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확고한 자신심과 자부심을 높여 주었으며 어떠한 곤난과 난관 앞에서도 능히 우리 당 경제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물질적 및 정치 사상적 준비를 강화하였다. 12월 전원 회의 결정과 그의 집행을 위한 우리 당의 조직 지도 사업은 근로 대중의 미증유의 로력적 앙양과 경이적인 경제적 성과들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근로 대중의 미증유의 정치적 앙양과 사상적 장성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이미 달성된 우리의 성과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자만자족과 안일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당면의 투쟁 과업만이 아니라 원대하고도 고상한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최고 목표로 하는 맑스—레닌주의 당이다. 우리 당은 매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달성된 성과가 크면 클수록 앞으로의 보다더 큰 성과를 위하여 더욱더 긴장하며 경각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앞에는 그 실현의 첫 걸음을 내여 디디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전개된 강령으로 남아 있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긴장된 과업이 놓여 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인 5개년 계획,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성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앞으로의 과업과 난관들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 건설 앞에 나서는 중요한 중심 임무 가운데 하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 회의가 제시한 기본 건설 사업의 결정적인 개선에 관한 문제인바 이에 있어서도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에서 얻어진 고귀한 경험과 교훈들은 사업의 근본적 개선을 가져 오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문제는 당 정책의 정확하고도 제때로 되는 관철과 집행을 위한 우리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책임적이고 핵심적인 투쟁 여하에 달려 있으며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창조적 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키며 조직 동원하는 데 있는 것이다.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혁명의 성과적 수행 여부는 경제 건설 사업의 성과에 크게 달려 있다.

우리 인민 경제의 각 부문에 잠재하는 내부적 예비들 가운데는 아직 동원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으며 또한 일부 경제 부문들, 례컨대 수매, 기본 건설, 채광 부문 등의 사업에서 락후성과 약한 고리들이 완전히 퇴치되지 못한채 남아 있다는 사실들에 대하여 결코 무관심하여서는 아니된다.

과업은 일체 안일성과 해이성을 용납하지 말며 인민 경제 내부에 잠재하고 있는 예비들을 적극 탐구 동원하며 락후한 생산 부문들의 사업을 선진적 경제 부문들의 수준에까지 시급히 올려 세우기 위한 주밀한 조직 지도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요구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 총화 사업을 높은 당적 사상적 수준에서 보장하여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결함과 락후성의 원인들을 대담하게 폭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보다 효과적인 대책들을 대중적으로 토의 수립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데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에 대한 전면적인 총화 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우리의 과업은 세심한 준비 밑에 높은 정치 사상적 수준에서 이 총화 사업을 조직하며 이미 얻어진 성과들에 기초하여 보다 큰 앞으로의 새로운 발전과 개선을 가져 오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지금 총화 사업은 농업 부문에서 먼저 진행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의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 총화를 위한 매개 협동 조합 단위 및 각 도 회의들에서는 금년도에 농민들이 달성한 기적적인 성과들의 원인이 분석 총화되고 퇴치하여야 할 결함들과 부족점들이 철저히 검토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회의들을 통하여 당의 농업 정책이 농민 대중 속에 더욱 철저히 침투되고 전반적 농업 협동 조합들의 상태와 조합원들의 요구, 의견들이 보다 광범히, 구체적으로 료해되여야 할 것이며 전체 농민들이 농업 생산의 예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적발 동원하며 명년도 영농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새로운 보다 강력한 로력적 앙양을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끔 하여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성과있게 추진시키며 보다 큰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과 환경이 조성되여 있다.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을 조직 지도하면서 우리 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사상 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였으며 광범한 근로 대중들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였다.

우리는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에서 얻어진 귀중한 경험들을 산 교훈으로 삼아 당의 사상 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당 정책의 사소한 외곡과 당적 원칙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전 당의 통일된 력량으로 대중들 속에 더욱 깊이 침투하여 그들과의 련계를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할 것이며 당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한 사상 정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 총화의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단결은 평화와 사회주의 승리의 확고한 담보

김 정 환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좀 전까지만 하여도 《하나의 유령》으로 《구라파를 배회》하던 공산주의는 오늘 전 세계 로동 계급 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적 인류의 심장을 끌어 잡고 있다. 사회주의는 이미 현실적 력량으로 전변되여 세계적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부단히 장성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한 세기간에, 특히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이후의 40 년간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달성한 세계사적 승리이며 인류 력사에서 전례 없는 가장 위대한 진보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의 력사적 투쟁에서 이미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사회주의는 그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인구와 령토상에 있어서, 특히는 일련의 중요한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두목으로 한 제국주의 진영을 릉가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세계 대세는 자본주의의 급속하고 전면적인 몰락과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의 위대한 전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미증유의 앙양으로 특징지어 진다.

사회주의 력량의 이 위대한 세계사적 승리는 《만국의 프로레타리아는 단결하라!》는 전투적 구호하에 전진하는 쏘련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 그의 전위들인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단결과 영웅적 투쟁의 결과에 쟁취된 것이다.

쏘련을 중심으로 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이 단결은 오늘날 더욱더 불패의 것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에 진행된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모쓰크바 회의와 그 선언들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발현되였으며 시위되였다. 이 단결의 위력 앞에서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전률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을 비롯한 세계 수억만 인민들은 자기 위업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단결이야말로 앞으로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새로운 승리와 가일층의 앙양을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 되며 평화와 사회주의 승리의 튼튼한 담보로 된다.

❋ ❋

공산주의 운동은 그 시초부터 국제적인 운동이였다. 그것은 오직 각국 로동 계급과 그 전위들인 공산당들이 련합하여 공동으로 투쟁함으로써만 국제적 력량으로 되고 있는 각국의 부르죠아지를 타승할 수 있으며 자기들의 공동의 리익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였다.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국제적 단결은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였으며 동시에 그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힘의 원천, 승리의 담보로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이미 전 세기부터 가강히 전개되여 왔다.

그러나 이 투쟁은 인류 력사상의 모든 진보적 운동이 그러한 바와 같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부르죠아지는 시종일관 공산주의자들의 행동 통일을 위한 투쟁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방해 탄압하였으며 또 공산주의 운동 내부의 일부 불견실한 자들은 부르죠아지의 책동을 도와 분렬 책동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반동의 어떠한 탄압과 시도도, 각종 기회주의자들의 분렬 책동도 공산주의 운동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투쟁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864년에 최초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조직체인 제1 국제당이 창건되였다. 맑스와 엥겔스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창건된 제1 국제당은 매개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의 통일의 결여, 국제적 범위에서의 통일의 결여가 모든 운동의 실패의 기본 원인이였다는 지난 시기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 계급의 국제적 단결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제1 국제당은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함에 있어 큰 기여를 하였다.

1871년의 영광스러운 파리 꼼무나의 사업은 가장 자각적인 프로레타리아트를 단합시킨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위업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꼼무나를 위하여 싸운 사람들 가운데는 로씨야인, 파란인, 이태리인, 오지리인 및 기타 민족의 대표자들이 들어 있었다.

제1 국제당이 해산된 후에도 로동 계급의 국제적 단결은 계속 장성되였으며 그리하여 1889년에 제2 국제당이 창건되였다. 제2 국제당은 거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 국제당은 자기 활동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엥겔스가 서거한 후 그 지도부에 기회주의자들이 우세를 차지함으로써 파산되고 말았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로동 운동은 《넓이로 발전하였는바 이것은 혁명 수준의 일시적 저하와 기회주의의 일시적 강화를 피할 수 없었으며 이 기회주의는 결국 이 인터나쇼날의 수치스러운 와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전집 제29권, 280 페지).

제2 국제당의 변절과 몰락으로 공산주의 운동의 국제적 조직체가 없었던 그 시기에도 이 운동은 여전히 국제적 련대성의 기초 우에서 발전하여 갔으며 1917년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결과 지구의 6분의 1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인류 사회 발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과 그 단결의 강화에 있어서 하나의 세계사적 사변이였다. 이때로부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처음으로 자기의 강력한 중심을 가지고 전 세계적 범위로 더욱 광범하고 급속하게 발전되였다.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우리 나라에서도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이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의 토대가 준비되였다.

전 세계의 뒤떨어졌던 많은 나라들에서 로동 운동이 급속히 발전되여 그의 전위인 공산당들이 창건되였는바 공산주의의 강력한 중심—쏘련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이 당들은 처음부터 확고하게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련대성의 토대 우에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확대 강화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국제적 련대성은 1919년 레닌의 발기에 의하여 제3 국제당 창건으로써 더욱 강화되였다.

제3 국제 공산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시킴에 있어서와 청소한 당들의 장성을 촉진시키며 맑스—레닌주의 토대 우에서 각국 로동 계급간의 국제적 련대성을 회복하고 공고화함에서 거대한 력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자기의 대렬을 확대 강화하며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의 중심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단련되고 발전되였으며 그의 국제적 련대성은 불패의 것으로 되여 갔다.

청소한 쏘베트 공화국에 대한 14개 제국주의 국가들의 무력 간섭 시기에 있어서 세계 모든 나라 근로자들과 그의 전위인 각국 공산당들이 표시한 국제주의적 지지 성원, 1936년 서반아에서의 인민 전선 승리를 반대한 히틀러와 뭇소리니의 지지하의 프랑코 도당의 무력 침공 시기에 있어서의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당들의 지원 등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련대성의 위력에 대한 가장 뚜렷한 표시였다. 특히 제2차 대전은 로동 계급의 국제적 단결의 위력에 대한 검열이였으며 시위였다. 파씨즘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각국 로동 계급과 공산당들은 자기의 성숙성,사상적 견고성을 보여 주면서 승리한 첫 사회주의 국가 쏘련을 열렬히 옹호하였으며, 쏘련은 파쑈 노예화의 위험에서 구라파와 아세아의 여러 나라 인민들을 구원하여 주었다.

대전 이후 지난 12 년간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의 단결은 불패해졌다. 이 기간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 수준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 공산당들의 국제적 유일 조직 형태는 없었다. 전후에 새로 창설되였다가 현재는 자기의 력사적 역할을 끝내고 해산된 수개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보도국은 그전과 같은 전 세계 공산당들의 유일 조직은 아니였다.

그러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정세의 변화와 조건에 따라 호상 협조와 단결의 다양한 방법을 개척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련대성의 기초 우에서 더욱 확고히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전야에 전 세계에는 43개국 공산당에 420만의 공산주의자들이 망라되여 있었다면 오늘은 전 세계

75개국 공산당 및 로동당에 3천 3백만의 공산주의자들이 단합되여 있다. 문제는 다만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그의 당원 수의 량적 증가에만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각국 로동 계급의 정치적 각성이 더욱 제고되였으며 그의 전위인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더욱 통일되고 단결되고 세련되였다는 거기에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쏘련의 결정적 승리의 결과에 발생한 아세아와 구라파의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에 있어서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로동 계급의 통일을 더욱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 대중을 자기 주위에 단결시키고 그를 령도하는 지도적 력량으로 되였다.

자본주의 및 식민지, 반 식민지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산당 및 로동당들도 그 대렬이 거대하게 장성되였으며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배제하며 로동 계급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례하면 1943년에 1만 5천 명의 당원을 가졌던 이태리 공산당은 현재 200만 이상의 당원을 망라한 강력한 당으로 발전하였다. 1933년에 자본주의 및 식민지 나라들의 공산당원 수는 68만 8천 명을 좀 넘는 정도였다면 현재에 와서는 자본주의 및 식민지 체계에서 떨어진 사회주의 제 국가들을 제외하고도 500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로동 계급의 계급적 각성의 장성, 매개 당들의 정치 사상적 단결과 맑스—레닌주의 리론 수준의 제고의 결과에 매개 공산당 및 로동당 대렬의 통일과 그 당들의 국제적 단결은 가일층 강화되였다.

그것은 쓰딸린에 대한 개인 숭배의 후과를 청산할 데 대한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결정이 있은 이후 그것을 리용하여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분렬시키며 우선 각국 당들과 쏘련 공산당을 리간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던 시기, 특히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 폭동 시기에 가장 잘 검열되고 확증되였다.

이 시기에 우리 당을 포함한 각국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은 자기의 대회 혹은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들에서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의 결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쏘련을 중심으로 한 각국 공산당들 및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련대성을 가일층 강화할 데 대한 자기들의 확고한 결의를 단호하게 천명하였다. 각국 공산당들은 적들의 공격이 강화 될수록 자기의 대렬을 더욱 결속하면서 쏘련을 더욱 지지 옹호하며 제국주의와 수정주의의 공격에 대하여 단합된 력량으로써 결정적인 반격을 주었다.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어떠한 책동도 쏘련을 중심으로 단합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분렬시킬 수 없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유일한 세계관에 의하여 사상적으로 결합되여 있다. 현대의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동요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기초 우에서 근로자들의 국제적, 력사적 위업을 자각하고 자원적으로 단합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단결을 파괴할 수 없다.

단일한 사상적 기초를 가진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국제적 단결과 호상 협조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경험에 기초하여 이 당들의 호상 관계에서는 진정한 호상 리해와 효과적인 협력을 보장하는 기준과 원칙들이 수립되여 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으로 되는 것은 완전한 평등, 자원적인 행동 통일, 호상 방조 및 지지, 동지적인 호상 비판이다. 이러한 관계는 공산주의자들 간에만 있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이다. 이러한 기초 우에 수립된 단결이므로 하여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단결은 불패한 것이다.

최근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모쓰크바 회의는 이러한 단결의 가일층의 강화에서 새로운 력사적 단계를 열어 놓았다. 회의는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기본 문제들과 각국 당들의 당면 과업에 대한 완전한 의견 일치를 재확인하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련대성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형제 당들의 광범한 회의를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오늘날 세계에는 이 단결을 파괴할 힘은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단결은 필승 불패하다.

* *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자기 대렬의 통일과 국제적 단결의 가일층의 강화는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새로운 승리와 평화의 확고한 담보로 되고 있다.

그것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며 국제 로동 운동을 발전시키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대한 력사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전 세계 인민들 속에서 가장 광범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그 나라의 국가 사회 생활의 모든 부문에 대한 령도를 책임지고 있다. 이 당들은 자기의 헌신적 투쟁으로써 국내의 일체 혁명 력량을 자기 주위에 단결시켰으며 그를 령도하여 반혁명 세력의 반항과 제국주의자들의 파괴 책동을 성과적으로 진압 분쇄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제 국가 인민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정책의 정당성을 실제 생활상 체험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으며 자기의 모든 운명을 그 당들에 의탁하고 있다. 이 나라 인민들과 당과의 간에는 끊을 수 없는 혈연적 련계가 형성되여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당들은 인민 대중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으로 되였으며 그의 모든 정책은 인민들의 일체의 근본적 리해 관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생활적 기초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국가 기능의 강화, 사회주의 경제, 문화 건설의 가일층의 촉진, 전체 인민 대중의 정치 사상적 통일의 강화 등 모든 과업은 전'적으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정책과 그의 조직자적 및 지도자적 역할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이 당들이 자기에게 부과된 력사적 임무, 지도적 역할을 계속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조건으로 되는 것은 자기 대렬의 맑스—레닌주의적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는 그것이다. 맑스—레닌주의 당이 자기 대렬의 사상 의지 및 행동상 통일을 견고히 보장함이 없이는 혁명을 령도할 수 없다. 국제 반동의 발악이 더욱 악랄한 현 조건하에서 나라의 령도적 책임을 담당한 당 내부의 사소한 사상적 동요와 조직적 혼란도 혁명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 혁명 운동의 력사적 경험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작년 10월 웽그리야 사변은 그에 대한 중요한 교훈의 하나로 된다.

이와 반대로 령도적 당 내부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이 견고한 때에는 제국주의 반동들의 파괴 활동과 기회주의 분자들의 분렬 책동이 제아무리 악랄해 진다 하더라도 그를 능히 격파할 수 있으며 또 기타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동요 없이 그를 타승할 수 있다. 이것은 국제 로동 운동의 경험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경험이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자기의 력사가 아직 청소한 우리 당은 그 창건 첫날부터 제국주의 반동의 괴수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3년간의 가혹한 전쟁과 전후 복구 건설에서의 난관과 같은 극히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이 모든 난관과 시련들을 동요 없이 성과적으로 타승할 수 있은 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였기 때문이였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 당들이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견고히 고수하는 것은 자기 나라 전체 인민의 력량을 단합하며 사회주의 건설 및 공산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며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국제적 단결과 사회주의 진영의 국제적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 담보로 되고 있다. 이것은 동시에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에 대한 고무적 힘으로 되며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에 대한 실제적 고무와 원조로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및 식민지, 반 식민지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자기 나라 인민들에게서 거대한 위신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구라파에 파쑈이 지배하던 간고한 시기에 있어서나 전후 시기에 있어서나 인민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용감하게 자기 희생적으로 투쟁하였으며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옹호하며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여 철저히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기 각국 인민들은 실제 생활을 통하여 공산당만이 자기 인민의 민족적 리익의 진정한 옹호자이며 평화를 위한 투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과 식민지 예속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전후 시기 경제의 복구, 전쟁 피해의 청산, 민족 공업의 보호를 위한 투쟁,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와 생활 개선을 위한 투쟁, 제국주의에의 예속과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 군비 축소 및 핵 무기 사용

금지를 위한 투쟁 등 모든 진보적 운동의 선두에서 가장 견결하고 용감하게 투쟁하였으며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당들은 광범한 인민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쟁취하였으며 자기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있다. 례를 들면 불란서 공산당은 불란서 의회 선거에서 5백 60만 명의 선거자들의 신임을 받아 국민 의회에서 최대의 의석을 획득하고 있으며 국내 광범한 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쏘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급속한 장성과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력량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결과에 맑스—레닌주의 사상은 일층 더 광범히 보급되고 있으며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 및 근로 인테리들 속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견인력은 일층 강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의 진출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현재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빈궁과 무권리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로는 오직 사회주의 혁명 뿐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은 일층 적극성과 조직성을 띠고 있다. 또 한편 자본주의 나라들에 있어서 소수 독점체들과 제국주의자들의 리익을 위한 정책은 로동 계급의 리익 뿐만 아니라 중 소 부르죠아지도 포함한 광범한 인민층의 리익에 충돌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독점체들과 침략 계층의 침략 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이미 경제적으로 예속되여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정책이 더욱 광범한 인민층의 리익과 충돌되고 있다.

알제리아 인민들의 투쟁이 특징적으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 속에서는 자기의 민족적 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전쟁의 위험을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여 나서는 력량은 더욱더 광범해지고 있다.

최근 년간 국제 정세의 변화, 근로 대중 속에서의 계급 의식의 장성 등 제 요인으로 말미암에 로동 계급 속에서의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은 더욱 약화되여 가고 있다. 따라서 자기의 생활상 리익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투쟁, 전쟁의 위험을 반대하며 장구하고 공고한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각이한 정당들과 직업 동맹에 망라된 로동자들 및 일련의 나라 사회당들과 행동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가능성이 조성되고 있다.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이러한 행동 통일은 현재 하나의 특징적 현상으로 되고 있다. 례하면 불란서의 많은 기업소들에서는 자기의 경제적 리익을 옹호하는 로동자들의 공동적인 진출에 기초하여 통일 위원회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통일 위원회들에는 반동의 진출로부터 모든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공산당원, 사회당원, 카톨릭당원, 기타 각 당, 각종 직업 동맹에 가담하고 있는 로동자들이 망라되였다. 서부 독일의 사회 민주당의 평당원들은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독일 련방 공화국이 새 전쟁 기지로 되는 것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영국에서 로동 운동의 통일을 위한 추세는 직업 동맹들이 합동하려는 경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모든 사실들은 자본주의 나라들과 식민지 예속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기 나라 인민들 속에서 거대한 위신과 지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당들이 민주주의와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광범한 력량을 단합시키며 행동 통일을 달성하기에 더욱더 유리한 조건이 성숙되여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 모든 진보적 력량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것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 정책을 제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근로 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는, 제국주의의 예속과 침략으로부터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 조건으로 된다.

이 모든 력량의 단결을 위해서 우선 무엇보다도 그 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견고히 하며 전 세계 각국 형제 당들 및 사회주의 제 국가들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있다.

현 시기 사회주의 제 국가도 포함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세계 사회주의 력량과 모든 진보적 력량을 대표한다. 매개 나라 당들이 쏘련을 중심으로 한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단결하는 것은 자기 위업의 승리를 보장하며 동시에 국제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와 평화 위업의 승리를 달성하는 결정적 담보로 되고 있다. 왜냐 하면 이 당들의 단결은 전 세계 사회주의와 모든 진보적 력량의 국제적 단합의 핵심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제국주의에 비할 수 없이 강력한 정신적 력량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의 강력한 물질적 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우선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쏘련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륙간 탄도 로케트의 완성과 두 차례에 걸친 인공 지구 위성의 성과적 발사가 확증하여 주는 바와 같이 쏘련은 사회 생산력 발전의 높은 속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중요한 기본적 조건으로 되는 일련의 가장 중요한 과학 기술 분야에 있어서 미국을 포함한 전체 자본주의 세계를 훨씬 앞서고 있다. 이 사실은 현 국제 정세 발전에 있어서 지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바 사회주의와 평화 위업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담보로 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짧은 기간에 쏘련의 위력이 이와같이 강화되였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하여 단결된 사회주의와 국제 공산주의 력량은 과거 그 어느 시기에도 비할 수 없이 강력한 것이다.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은 쏘련을 중심으로 한 평화와 사회주의 진영에 단결된 어느 한 사회주의 국가나 자유 및 평화 애호 인민들을 임의로 건드릴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단합된 힘의 반격에 의하여 참패를 면할 수 없다. 그것은 조선 전쟁에서 미제를 두목으로 한 16개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참패를 비롯한 최근 년간의 일련의 사변들의 결과가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만일 제2차 세계 대전 전야에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전쟁을 방지할 만한 물질적 력량이 없었다면 오늘은 능히 그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모쓰크바 회의의 평화 선언은 《지금 우리들 공산주의자들은 이제는 전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확신 있게 말하는바, 그것은 지금 세계의 정세가 다르며 력량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단결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및 평화 진영의 장성과 모든 승리와 성과의 원천으로, 확고한 담보로 되였으며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모쓰크바 회의는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 간의 불패의 단결을 다시 한번 시위하면서 계속 이 단결의 강화를 위하여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렬의 통일을 공고히 하며 이를 저해하는 온갖 요소들과 견결히 투쟁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오늘 전 세계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전원 회의, 혹은 열성자 회의들은 모쓰크바 회의의 선언들을 자기의 강령적 지침으로서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대렬의 통일과 국제적 련대성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파괴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제고하며 수정주의, 교조주의, 부르죠아 민족주의, 배타주의 경향과 결정적으로 투쟁하며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확고히 고수할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5—6일에 걸쳐 진행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는 모쓰크바 회의의 선언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지난 시기 우리 당이 실시한 모든 정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앞으로의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조선 로동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선봉대들의 영광스러운 일원으로서 세계를 개조하는 진보적인 인류의 위업의 일부를 감당하고 그를 영예롭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리념이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조선 혁명을 촉진시키며 그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우리들의 당면한 주요 과업입니다.》

모쓰크바 회의의 선언들과 우리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은 전체 인민들의 승리의 신심에 대한 새로운 고무적 힘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전체 인민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현 시기 당 상업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중요 고리들

한 대 영

주권이 로동자와 농민을 핵심으로 한 전체 인민들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는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상업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에 복무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 그가 노는 역할은 실로 거대하다.

상업은 부단히 장성 발전하는 생산과 인민의 물질적 수요를 서로 련결시키며 그 과정을 통하여 공업의 보다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의 전진을 자극한다. 또한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은 도시와 농촌의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 분야에서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근로자들의 소비 생활에서 관철시키는 데 기여하며 동시에 공업과 농업을 경제적으로 련결시키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은 자연 지리적 제 조건과 특성에 의한 지방적 특산물의 부단한 교류를 통하여 국가의 화폐 류통을 계획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화폐의 구매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이와 같이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은 나라의 공업 및 농업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자극하는 힘 있는 도구인 동시에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는 믿음직한 수단의 하나이다.

당과 정부는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이 노는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보다 강력한 발전을 위한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특히 당과 정부는 전후 최근 년간에 인민 경제의 급속한 복구 발전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종전에 비하여 현저히 제고되였으며 따라서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가 장성된 조건하에서 소비품 생산을 확대하며 지방적 상품 자원을 더욱 광범히 동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 공급 사업을 가일층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여 왔다.

당과 정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현저한 전진을 가져 오게 될 제1차 5개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경제적 과업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고리로서 상품 류통 분야 앞에 긴요한 과업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8월 및 12월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 필수품 생산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며 상품 공급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는 지난 1월에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하며 수매 활동을 강화할 데 대하여 토의하고 그의 구체적 개선 방향과 일련의 당면 중요 임무를 국가 및 협동 단체 상품 류통 부문 앞에 제시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는 지난 기간 국가 및 협동 단체 상품 류통 분야에서 당과 정부의 상업 정책이 극히 형식적으로 집행되였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반당 종파 분자이며 혁명의 배신자인 최창익, 윤 공흠과 그와 결탁한 변 동윤 등 일부 견실치 못한 불순 분자들에 의하여 당의 상업 정책이 외곡 집행됨으로써 막대한 정치, 경제적 손실들이 초래되였으며 우리 나라 상품 류통 사업이 변천된 새로운 현실로부터 멀리 뒤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하여 간곡하게 경고하였다. 동시에 상무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상품 공급, 특히 식료품 공급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농촌 경리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수응하여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공업 상품에 대한 농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며 산간 오지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차요시하는 그릇된 관점과 사업 태도를 시급히 시정하며 상품 원천을 백방으로 탐구 동원하기 위하여 수매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다. 상무 위원회는 농촌 시장과 개인 상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이 분야에서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의 령도적 역할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개인 상인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을 촉진하며 국가 및 소비 협동 단체 상품 류통 부문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며 일'군들 속에서 당성 단련과 계급적 교양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당의 상업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킬 데 대한 일련의 전투적 제 과업을 제시하였다.

지난 1 년 동안에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 일'군들은 당이 제시한 제 임무 수행에 적극 동원되여 사업을 적지 않게 개선하였으며 일정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그리하여 금년 상반년 간에만 하여도 국가 및 협동 단체 소매 상품 류통고는 작년 동기에 비하여 174% (대비 가격으로)로 장성되였으며 1,600 여 개소에 달하는 각종 상점망들이 증설되였으며 특히 중요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서의 농산물 상점 및 이동 판매 상업이 확대 강화되였으며 배달 판매, 월부 판매 등 상업 조직에서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하여 인민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상품 류통 분야에는 엄중한 결함들이 지속되며 그의 개선 진도가 인민 경제의 그 어느 부문보다도 굼뜨고 소극적이며 당의 일관된 정책적 요구들이 매우 완만하게 집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상업 일'군들은 계속 당 상업 정책을 외곡 집행함으로써 더욱 엄중한 현상들을 때때로 산생시키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부 상업 기관에서 반당 종파 분자들과 그와 결탁하였던 일부 견실치 못한 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파괴적 행위와 그 사상 여독을 철저히 비판 폭로하며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미약하게 전개되였으며 전체 일'군들을 사상 투쟁에 적극 동원하기 위한 사업이 미약하게 조직된 데 기인된다. 한편 일부 상업 기관내 일'군들이 당의 상업 정책의 내용과 본질을 심오히 연구 파악하지 못하고 주관적 의도에 의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데도 있다.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경향들은 일부 상업 부문 일'군들이 확고한 당적, 계급적 립장에서 당 정책을 접수 집행하지 못하며 반당 종파 분자들이 상업 분야에 끼친 엄중한 해독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데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근본적인 결함이 지속되므로 아직도 상업 분야에서는 여러가지 편향들이 발로되고 있다. 오늘 상업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킴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는 이상과 같은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투쟁에 있다.

로동자 지구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

대내외 상업성과 소비 협동 단체 일부 지도 열'군들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상업 기관 일'군들은 거듭되는 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구실과 리유를 부쳐가면서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상품 공급과 특히 식료품 공급을 위한 사업에서 결정적 개변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우선 상업망 조직에 있어서 함흥시와 신의주시를 비롯한 적지 않은 중요 도시들에서의 상업망 포치는 다수 경우에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포치되여 있는 반면에 로동자 지구와 도시 주택 지구들에는 상업망 조직을 확대하지 않고 계속 방임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가 상업 기관 일'군들은 도시 주택 지구에 대한 소비 협동 단체 농산물 상점 포치까지도 기관 본위주의적 경향으로부터 부당한 구실 밑에 이를 방해하고 있다.

이리하여 새로운 로동자 지구의 형성과 관련하여 장성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근로자들의 인상된 임금의 직접적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로동자 지구 상업, 그 중에서도 식료품 공급 사업은 의연히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상품 류통 계획은 도시와 농촌, 로동자 지구 호상간과 시, 군별로 되는 대상 지역별 주민의 화폐 수지 발란스에 의하여 주민들의 구매력을 정확하게 타산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개별적 일'군들의 낡은 경험과 과거의 불충분한 실적 자료에 기초하여 주관적으로 수립되였다. 이러한 결과에 로동자 지구에 대한 류통 계획 규모는 그 지역에서 방출되는 로임 폰드에 비하여 엄청나게 적게 수립되고 있으며 읍 소재지 등에 상품 공급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규정되였었다.

이것은 상품 류통 부문내 일부 일'군들이 매상고를 높이며 계획만 손쉽게 달성하려는 주관적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경향인바 단편적인 실례를 보더라

도 지난 상반년 간에 로임 폰드에 비한 상품 배정액은 천마 광산 지구 68.4%, 풍문 탄광 지구 64.3%, 검덕 로동자 지구 62%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로동자 1인당 상품 공급 계획도 읍 소재지 일반 주민들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에서 작성되고 있는바 례하면 룡천 로동자 지구내 로동자 1인당 상품 공급 계획은 읍 소재지 주민 1인당 상품 공급 계획의 65.9%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함북도를 비롯한 적지 않은 지방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로되고 있는바 이는 결국 로동자 지구에 대한 상품 공급 특히 식료품 공급 비중을 제고할 수 없게 한다.

평북도 지방 상업 관리소는 지난 상반년간 식료품에 대한 소매 류통 과제를 68.6%로 미달하였는바 이것은 전년 동 기 실적의 88.7%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정주군 상업 관리소는 식료품 류통 계획을 전년 동 기에 비하여 72.9%로 미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함남도, 함북도 지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바 특히 함남도 지방 상업 기관들은 상반년도 상품 공급 총액을 100으로 할 때에 식료품의 공급 비중은 그의 계획에 비하여 7%나 적게 35% 공급하였는바 이것은 작년 동 기 실적 비중에 비하여 5.5%나 감소된 것이다. 이러한 제 사실은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과 1월 24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 방향에 엄중하게 배치되며 참을 수 없는 현상이다.

당은 이미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그 주변 농업 협동 조합을 중심으로 하여 수매 기지를 창설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품 류통 부문 일'군들은 이 과업도 역시 매우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그를 외곡 집행함으로써 더욱 엄중한 결함을 발생시키고 있다. 적지 않은 지방 상업 기관 일'군들은 기관 본위주의에 사로잡혀 해당 수매 지역을 부당하게 설정하여 놓고 자신들은 수매 사업을 제때에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타 기관들의 수매 활동을 제지함으로써 결국 농업 협동 조합원들의 생산 열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조합들의 계획적 생산에 지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함남도 지방 상업 기관들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지방의 상업 기관들은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식료품 가공 사업도 역시 방임하고 손쉬운 공업품 가공에만 치중하고 있다.

식료품 공급 사업에서의 락후한 현상은 이 부문내 일'군들이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서의 식료품 공급 비중을 제고할 데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를 형식적으로 접수하고 그의 철저한 실천에 매우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데로부터 초래되는 것이다.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 사업의 개선 강화——이것은 현 시기 상업 부문 앞에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심적 임무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류통 부문 일'군들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당이 제시한 방향에 립각하여 식료품 공급 사업을 시급히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요구에 원만히 수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상업 부문 일'군들은 인민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요구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에 근거하여 자기 사업을 부단히 개선 강화함으로써 항상 상업 활동이 인민의 수요에 기초하여 활기 있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전후 3개년 계획의 성과적 완수와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 따라 각종 생활 필수품 생산이 현저히 증대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면직물을 비롯한 일부 생활 필수품을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필요한 량과 규격을 옳게 조절하여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로동자, 사무원들의 개별적 수요까지를 원만히 충족시키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활 필수품 생산이 현저히 증대된 조건하에서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생활 필수품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되였으며 개별적 사람의 수요를 능히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당과 정부는 내각 결정 103호로써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생활 필수품 공급 사업을 개선할 데 관한 대책을 강구 제시하였으며 또한 내각 결정 98호로써 도매 상업 체계를 개편하여 생산과 소비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각 상업망들에 상품을 균형성 있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매 상업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내각 결정 98호에 의하여 국가 배정 상품에 대한 도매 상업은 대내외 상업성이 책임지며 자체 수매 농산물에 대한 도매 상업은 조선 소비 협동 조합 중앙 련맹이 담당 수행하는 원칙이 규정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상품 류통 부문내 지도 일'군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과 정부가 금번 취한 방책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정확하게 철저히 인식하고 하부에 각종 실무 기술적 규정들을 제때에 정확히 작성 제시하며 지구별 도매 기업소의 합리적 포치를 보장하며 각종 일용 필수품에 대한 공급 체계를 개선하되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생활 필수품이 공급되도록 체계를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 상업 기관들에서는 각급 소매 상업 기업소에 대한 상품 보장 계획에 예견된 국가 배정 상품을 시기적으로 균형성 있게 공급할 데 대한 자기의 책임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품 공급 조직 사업을 기동성 있게 진행하여 지역간 또는 상업 기업소 호상간에 상품이 편재 또는 체화되는 현상이 없도록 할 것이며 동시에 도매 상업 기업소와 소매 상업 기업소간의 련계를 부단히 강화하여 상품 공급 사업에서 일체 비정상적이며 불균형적인 현상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 협동 단체 기관들은 자체 수매 상품에 대한 유일 도매 상업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 수매 상품에 대한 교류 사업을 보다 민활히 조직 진행함으로써 도시와 로동자 지구 주민들에 대한 식료품 공급 사업을 급속히 개선 강화할 것이다.

농 부산물의 계획적 수매를 위하여

당의 상업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킴에 있어서 개편된 도매 상업 체계에 근거한 농 부산물에 대한 수매 사업의 개선 강화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것은 국가 배정 상품의 대부분이 공업 상품이며 식료 상품의 대부분은 계획권 내에 인입되지 않고 있는 조건하에서 농촌에 잠재하고 있는 각종 농 부산물에 대한 수매 사업을 적극 강화함으로써만 국가의 상품 원천을 백방으로 보충하여 장성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보다 민활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 중앙 위원회는 농 부산물에 대한 수매 사업에서 소극성을 퇴치하며 일체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통제를 제거하고 농민들의 생산 열의를 더욱 높이는 방향에서 수매 가격을 정당 공정하게 제정 실시하여 보다 많은 농 부산물에 대한 수매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그를 제때에 도시 주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할 일련의 과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상업 기관들은 각종 농업 생산물을 다량으로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수매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상품 류통 기관들은 응당 자기 지방의 농 부산물 생산 정형을 항상 료해 장악하고 그를 제때에 계획적으로 수매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적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경우에 일부 일'군들의 주관에 의하여 형식주의적으로 작성된 계획을 《손쉽게》 금액상으로만 달성하려는 참을 수 없는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매 활동이 국가적 인민적 립장에 확고히 립각하여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에 일부 시, 군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수매 자금을 부차적인 수매 대상에 지출하고 수매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하였다고 상금까지 받고 있는 괴이한 현상까지 발로되고 있다. 그리하여 수매품에 대한 품질, 규격 또는 계절과 그에 대한 수요와 판로 등 구체적인 타산도 없이 덮어 놓고 농 부산물을 수매하여 막대한 국가 자금을 부차적인 농 부산물 수매에 동결시키면서 근로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각종 식료품들은 다량적으로 수매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소비 조합 광천군 련맹에서는 많은 량의 도꺼자루, 메'자루를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여 1 년이 넘도록 창고에 사장하고 있는가 하면 소비 조합 무산군 련맹에서는 떡구시 등을 수백만원 분이나 수매 체화시키고 있다.

수매 사업에서 엄중한 결함의 다른 하나는 당의 자유 수매 정책을 외곡하고 수매 기관 호상간에 무원칙한 경쟁을 조성하면서 농 부산물 수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등귀시키고 있는 사실이다.

상품 류통 기관들은 응당 수매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기준 가격을 정당하게 제시하며 수매 체계를 확립하여 수매 기관 호상간에 밀접한 협의 밑에 수매 지역을 분담 규정하는 등 일련의 구체적 대책을 제때에 강구할 대신에 덮어 놓고 수매 계획을 달성한다는 무원칙한 공명심에 사로 잡혀 수매 기관들 간에 서로 앞을 다투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결국 주민들에게 필요 이상 값 높은 식료품을 공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보다 방대한 국가 자금을 방출케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수매 방법을 도입 적용함에 있어서도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상업 기관들은 농민들로 하여금 부산물 생산 품종을 확대

하게 하며 그의 증산을 자극하는 방향에서 수매 예약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경우에 중간 상인들을 통하여 많은 전도금을 무원칙하게 지불하여 주어 결국 국가 화폐의 정상적 류통에 지장을 주며 일부 예약금의 랑비 현상을 초래하거나 폭리적 간상 행위를 조장하는 현상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함흥시 식료품 관리소는 지난 8개월 간에 지불된 예약금의 20%에 해당하는 상품 밖에 인수하지 못하였는바 동 관리소가 함주군 구흥리내 농업 협동 조합에 예약 수매 자금을 지출한 형편만 단편적으로 분석하여 보아도 아주 엄중하다. 즉 동 조합에는 돼지가 1두 밖에 없는 데 4,200 키로의 육류 수매 예약금을 지불하였고 도마도는 파종도 하지 않았는 데 5톤의 수매 예약금을 지불하였으며 감자는 이 조합 총생산 계획이 30 톤인 데 이를 전량 수매하기 위하여 30 톤에 해당한 수매 예약금을 지출하였으며 심지어 봄 무는 생산 계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0 톤에 해당한 수매 예약금을 지불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평남, 평북 지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 기관들은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상 통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나아가서 다수 경우에 방임 추종하는 현상들이 적지 않았으며 해당 상업 기관의 상급 기관들이나 지방 정권 기관 및 당 단체들도 이러한 그릇된 현상을 묵과하면서 제때에 강한 시정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하지 않았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당의 정책을 심오하게 연구하지 않으며 그의 정확한 실천을 위한 당성 및 책임성 있는 노력과 투쟁이 없는 곳에서는 항상 당적 원칙과 리탈하여 행동하는 자유주의적 현상들과 무책임한 사업 태도들이 발로된다. 그러므로 상술한 바와 같이 수매 원천에 대한 정확한 조사 료해도 없이 막대한 국가 자금을 무질서하게 지출하여 국가 재정 활동과 상품 류통에 지장을 주는 그릇된 현상들을 발로시킨 일부 일'군의 당성 없는 사업과 무책임한 태도는 응당 비판되여야 한다.

만약 이 부문내 지도 일'군들이 국가적 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기 앞에 맡겨진 당적 임무를 성실히 집행하기에 사상적으로 동원되였다면 오늘과 같은 무질서한 현상들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수매 활동에서 발로되고 있는 결함의 또 하나는 일부 상품 류통 부문내 일'군들이 수매 사업을 자연 생장성에 방임하고 있는 현상이다.

소비 조합 광천군 련맹 일'군들은 지난 상반년간에 닭 7수, 야채 57 키로를 수매하는 것으로써 자기들의 수매 임무를 다 한 것같이 인정하면서 농민들의 수매 요구에 《그것은 계획에 없다》, 《자금이 없다》고 거부하는 태도로 대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농촌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수매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사업 태도이다. 더욱이 일부 소비 협동 단체 수매 일'군들은 《예견하지 못하였던 증산》이기 때문에 포장 자재가 보장되지 못하여 수매할 수도 없으며 조건과 판로가 보장 안되므로 저장도 못 하겠다는 부당한 구실을 부쳐가면서 수매 사업을 매우 무책임하게 또한 소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어찌하여 우리 상업 일'군들만이 농촌에서 농부산물이 증산되고 있다는 것, 근로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식료품 공급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가? 어찌하여 소채류나 과실의 판로가 없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직 오늘의 새로운 현실을 똑바로 인식할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자기가 맡은바 사업을 되는대로 처리하려는 당성 없고 무책임한 일'군들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함남도와 함북도를 비롯한 적지 않은 상업 기관들은 부당한 구실 밑에 금년과 같이 다량 생산된 과실, 소채류를 수매 저장하지 않았다. 이는 상품 공급 사업의 정상화를 기할 수 없게 하는바 그러한 상품은 겨울과 봄에 가서 공급을 중단케 된다.

수매 활동에서 제기되는 기본 문제는 변천된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매 체계를 시급히 개선 확립하며 이 부문 일'군들 속에서 당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규률 있는 사업 체제를 철저히 확립하며 현실의 요구를 반드시 원만하게 충족시키도록 수매 사업에서 적극성과 민활성을 강화하며 수매 사업이 점차 농촌에서의 증산과 계획화를 더욱 자극 촉진하는 방향에서 근본적인 전환과 개변을 가져 오는 데 있다. 특히 내각 결정 98호에 의거하여 소비 협동 단체들이 농 부산물 수매와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농산 식료품 공급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느니만큼 이 기관들의 역할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비 협동 단체 일'군들은 수매 활동에 존재하는 무계획성, 소극적 태도, 무책임한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 시정하고 수매 원천을 광범히 탐구 동원하며 계획적인 수매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 농촌과 농업 협동 조합 등 생산지에 깊이 침투하여 1958년도 농산 및 부업 생산 조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농업 협동 조합들과 농촌 실정을 정상적으로 료해 파악할 수 있도록 수매원들에 대한 지역 분담을 명확히 고정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자기 담당 구역의 생산물을 일상적으로 연구 파악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적극 보장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매 사업에서 계획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여 농업 생산물이 수매망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공급 판매되도록 하며 새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매 계약을 기동성 있게 체결하는 등 수매 체계를 시급히 정비 강화하여 일체 수매 활동에서 무규률 상태와 혼란 상태를 극복 시정하여야 한다.

수매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수매 가격을 정당하게 설정하며 그를 옳게 집행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호상간의 리익과 동시에 국가적 리익을 정확히 결부시키는 것이다.

오늘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가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고 농촌에서의 생산의 계획화 수준이 제고되고 상품 류통 분야에서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이 결정적으로 령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은 모든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조절자적 역할도 응당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 기관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방임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일반 시장 시세에 추미하는 현상은 앞으로 더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시급히 퇴치되여야 하며 수매 기관 호상간의 무원칙한 경쟁으로 인하여 수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등귀시키는 경향에 대해서도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수매 가격의 정당한 제정을 위하여서는 수매에서 품종별, 등급별로 가격을 제정하는 사업 체제를 철저히 확립하는 한편 농민들 속에 당의 수매 정책과 사업 원칙 등을 정확히 침투시키기 위한 해석 선전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적극적인 방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수매 활동에서 기동성, 민활성 및 적극성은 수매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기본 고리이다. 지금까지 상점에 앉아서 수매하던 그릇된 현상과 또는 각종 부당한 구실로써 수매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들을 철저히 시정하고 당이 제시한 예약 수매, 순회 수매, 위탁 수매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품질 제고를 위한 규격과 기준 등 기술적 규정들을 정확히 작성하여 농민들에게 침투시키며 중요 농 부산물 수매 계획에서의 현물 지표를 확장하여 비현실적인 금액상 계획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으로 수매 계획의 현실성을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수매품에 대한 지역간 교류 사업을 민활하게 보장하기 위한 통보 사업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자체 가공, 저장 사업을 점차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민들의 현실적 요구인 농 부산물에 대한 위탁 판매 사업을 적극화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며 수요자들의 요구를 다방면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에 더 많은 상품을 보내며 개인 상인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자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농촌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이 락후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부문내 일부 일'군들이 농촌의 장성하는 구매력에 대한 옳은 인식이 없이 막연한 과거 실적 자료에 기초한 경험주의의 틀안에서 농촌 상품 류통 계획을 작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일한 방법에 의하여 상업을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데 기인된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막연하게 금액상 계획 달성에만 급급하면서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평야 지대에 편중하여 상품 공급을 조직 진행하는 데서 초래되였다.

일부 상업 기관들은 농촌 주민들의 구매력의 장성과 그들의 수요 구조의 변화 및 각 지방의 사회 경제적 제 특성을 연구 분석함이 없이 상품 폰드를 조성하였으며 그의 지역간 배정은 소매망들의 구체적 실정을 장악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한 결과에 일부 지방에서는 일정한 상품을 체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한 상품의 부족 현상을 산생시킴으로써 수요자들의 요구를 원활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소비 조합 태천군 련맹에서는 전기도 없는 취흥 상점에 전등갓을 배정한 것을 비롯하여 전기 시설이 있는 곳에는 막대한 량의 카바이드를 배정하면서도 실지 수요자가

많은 곳에는 이러한 상품 공급이 종종 중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일부 상업 기관들은 산간 지대에 대한 해산물 공급 사업을 미약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리용 가공 사업들에도 거의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 이것은 농촌 지대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현실과 밀접히 결부시켜 연구하지 않고 무원칙한 공명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손쉽게 금액상 계획 달성에만 급급하는 상업 부문 일부 일'군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관점에서 출발되는 극히 유해로운 사업 태도인 것이다. 상업 일'군들이 상업은 항상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간직하고 당과 국가 앞에서 허심하게 사업한다면 이러한 결함들이 계속 반복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상업 부문의 지도 일'군 자신들이 옳은 사상 관점에 확고히 립각하여 당적 원칙에서 자기 사업을 철저히 수행하는 거기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 기관들과 지도 일'군들은 농촌의 변화된 현 실정을 옳게 인식 파악하고 농촌에 대한 공업 상품 공급 비중을 현저히 증대시켜야 한다. 특히 상업 일'군들은 현 시기 농촌에 막대한 화폐가 방출되고 있는 실정을 철저히 인식하고 농촌 건설에 필요한 각종 건재류를 비롯하여 문화 농촌 건설에 필요한 각종 상품들과 선진 농기구들을 대량적으로 배정 공급함에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상업망을 더욱더 농민들 속에 접근시키며 리용 시설망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며 농촌 소비 협동 단체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농민들에 대한 일용 필수품 판매 사업을 정확히 보장하는 데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일부 지방의 상업 일'군들은 국가 및 협동 단체 상업 활동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그의 령도적 역할을 부단히 제고하는 원칙에서 농촌 시장과 개인 시장에 대한 통제와 지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며 개인 상업에 대한 당의 리용 제한 및 개조 정책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조직된 생산 판매 협동 조합에 대한 지도 사업은 등한시되고 있으며 개인 상인들의 부정적 측면들은 계속 제한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심한 경우에 엄중한 범죄 행위까지 감행함으로써 결국 인민 생활에 적지 않은 장애를 주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개인 상인들의 긍정적 측면을 리용한다 하여 그들을 무원칙하게 방임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부정적 측면을 통제 제한한다 하여 긍정적 측면까지 제한함으로써 불평을 야기시키는 현상이 없도록 그들에 대한 당의 지도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내각 결정 104호에 지적된 바와 같이 개인 상인들로 하여금 국가의 법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며 나라와 인민에게 더욱 유익하게 복무하도록 하며 그들을 점차적 방법에 외하여 각종 협동 조합의 길을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등 그들에 대한 당의 사회주의적 개조 정책을 최단 기간내에 성과적으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조직된 생산 판매 협동 조합들에 대한 지도를 개선 강화하며 조합의 기준 규약을 시급히 작성 제시하여 그들의 정상적 발전을 체계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생산 판매 협동 조합들에서 일부 발로되고 있는 각종 무규률 상태와 위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시키며 조합의 공동 축적을 부단히 장성시키며 업무 활동에서 되거리 행위를 근절하고 각종 농업 산물과 지방 생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식료 부문의 업종으로 점차 전환하여 생산 가공의 비중을 점차 제고하면서 생산 협동 조합의 길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조합원들 속에서 나라의 건설 모습과 앞날의 희망에 찬 생활에 대한 선전 교양,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되도록 할 것이다.

상업 부문 사업에서 개선하여야 할 기본 문제들

상업 류통 분야에서 당의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간부 사업에서 질서와 제도가 없으며 견고한 핵심 진지가 강화되지 못한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상업 부문에서의 후비 간부 육성 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 나라 상업을 가일층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 문제이며 현 시기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고리로 되고 있다. 만일에 우리 상업 기관들에 견고한 핵심 진지가 옳게 형성되고 당성이 강하고 혁명적 군중 관점이 철저히 확립된 일'군들로 된 강한 대렬이 형성되였다면 반당 종파 분자들의 악질적 파괴 행동은 각성 높은 일'군들 앞에서 벌써 적발 폭로되였을 것이며 더욱이 그가 부식한 사상 여독을 보다 시급히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며 당의 상업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기간 우리 상업 기관들에서의 간부 육성 및 교양 사업은 극히 불만족하게 진행되였으며 간부 선발 배치에서 당적 제도와 규률이 철저히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후비 간부 육성을 위한 경제 전문 학교 및 양성소 사업 등은 심히 무질서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많은 상업 일'군들은 안목 관계와 친우, 동향 관계에 의하여 개별적 소개로써 채용되였으며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료해 사업과 교양 사업은 계속 방임 상태에 놓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설적 교육망인 상업 경제 전문 학교들과 재직 간부 양성소 사업에 대한 지도를 정상적으로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이 부문내 교육 교양 사업에는 참을 수 없는 엄중한 사상적 결함들이 있다.

오늘 상품 류통 분야 사업의 근본적 개선은 이 부문내 일'군들의 질적 구성을 부단히 개선하며 일'군들의 당성 단련을 가일층 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므로 간부 사업에서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며 실지 생산과 사회적 활동에서 단련된 일'군들로써 그 대렬을 부단히 보충하며 일'군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실제적으로 개선하여 일'군들의 사상 수준을 현저히 제고하며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고히 갖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항상 당의 정책을 적극 옹호 지지하며 그의 철저한 실천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며 일체 불순한 요소들과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하기에 준비된 열성자들로써 핵심 진지를 부단히 확대 강화하는 사업을 중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양성 기관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교수 교양 사업이 실지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높은 사상 정치적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하여 날로 발전하는 우리 상업 기관에 높은 사상 의식으로 무장된 일'군들을 계통적으로 인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당의 상업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투쟁에서 중요한 문제는 상업 기관내 지도 일'군들 자신이 당 결정에 대하여 당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즉 상업 기관내 지도 일'군들이 당 결정에 대한 형식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능과 노력을 다한다면 하부에 대한 지도는 옳게 보장되고 엄격하고 정연한 사업 체제가 확고히 수립될 것이다.

당 결정에 대한 옳은 태도란 그에 대한 추상적이며 협소한 리해가 아니라 그의 본질적 내용을 리해하고 그를 창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조직 집행하며 책임 회피의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책임질 줄 알며 실행의 가능성과 조건들을 백방으로 탐구하며 협소한 주관주의로서가 아니라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발성에 의거하여 끝끝내 당 정책의 성과적 실행을 보장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이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상품 류통 기관들에서의 당 정책에 대한 형식적 태도, 그의 외곡 등 엄중한 사실들은 바로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에 대한 허심한 태도의 결핍으로부터 발생하였던 것이다.

반당 종파 분자와 그와 결탁한 일부 불순 분자들에 의하여 지난 기간 상업 기관에 발생한 일련의 결함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실증하며 그후에 있어서도 우리의 일부 일'군들 속에는 아직도 당 정책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가 지속되였다. 그리하여 반당 종파 분자와 일부 상업 기관내 불건전한 자들에 의하여 류포된 불순한 사상 여독을 시급히 청산하며 공업 상품 공급 사업을 비롯한 식료품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상업망의 확장, 농촌에서의 상업 활동의 개선 강화, 수매 사업과 개인 상공업자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상품 류통 기관내 일'군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의 질적 구성을 제고할 데 대한 일련의 당적 과업들은 계속 부당한 객관적 조건에 빙자되여 시급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사업들이 그 시기마다 깜빠니야적으로 떠들석하고는 또다시 답보하거나 뒷걸음질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일부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를 자유 방임하는 등 사업에서 책임성이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제 경향은 우선 상업 기관내 지도 일'군들의 사상 관점, 당 정책에 대한 태도상 문제와 밀접히 결부되는 것이다.

모든 사업에서 엄격한 제도와 규률을 확립하고 일체 불순한 요소들과 경향들에 대하여는 비타협적인 사상 투쟁을 전개하며 특히 일'군들 속에서 비판의 기치를 가일층 제고함으로써 전체 상업 일'군들을 옳은 사상 관점의 소유자로, 당 정책의 적극적인 옹호, 지지자로 교양 훈련하여야 한다.

당 및 국가 결정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검열 사업의 조직,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옳은 결합, 사업에 대한 정확한 총화, 이것은 항상 일'군들을 사업 과정에서 료해 검토하며 그들을 새로운 과

업 실천에로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힘 있는 대책으로 된다.

상업 기관내 지도 일'군들은 당 결정과 지시들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그를 자체의 구체적 실정에 밀접히 결부시켜 효과적인 실행 대책을 제때에 강구하며 그의 집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그의 철저한 집행을 위하여 능숙한 조직 집행자가 되도록 자체의 자질을 제고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당 상업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에 대한 당 단체들의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지방 당 단체들에서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령역에서 상업이 갖는 정치, 경제적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이 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지 못하였으며 심한 경우에는 상업에 대하여 과소 평가하는 현상까지 존재하였다. 인민 소비품 생산이 계속 발전 강화되며 인민들의 구매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 실정은 상품 공급 사업을 현저히 강화할 것을 절실히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일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이 생동한 현실적 요구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상업 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지도를 옳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단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추궁하거나 청취하는 데만 치중하고 본질적인 당적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몇달 전까지만 하여도 평북도내 적지 않은 군당 위원회는 1월 24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서를 접수하고 7—8개월이 경과하도록 그의 집행 대책을 토의 강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군내 상업 일'군들에게 당 결정서 내용을 전달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적지 않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상업 부문에 대한 지도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심 고리를 옳게 포착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행정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지도 사업에서 응당 거두어야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일부 일'군들은 상업 부문에서 사업의 개선이 매우 굼뜨며 심한 경우에는 당의 정책을 란폭하게 위반하며 국가 재산을 탐오 랑비하며 인민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못하는 일련의 결함들이 바로 이 부문내 일'군들의 사상적 병'집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군들의 사상을 개조하며 당성을 단련하며 핵심 진지를 공고화함에 있어서 기본 보루인 초급 당 단체를 강화하는 데 적게 관심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지도 기관으로서의 당 단체들의 지도는 언제나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능숙하게 결합시키는 데 있다. 당 위원회들은 초급 당 단체들에 대한 집중적 지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상업 부문에 더욱 침투하여 실정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료해한 기초 우에서 이 부문내 초급 당 단체들의 전투적 역할을 제고하며 핵심 잔자를 더욱 강화하는 데 높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 단체들은 상업 기관 일'군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부문에 제대 군인, 애국 렬사 유가족 등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준비된 일'군들을 적극 파견하고 그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일층 개선 강화함으로써 당의 정책이 항상 광범한 열성자들의 지지 속에서 철저히 관철되도록 할 것이다.

지방 당 단체들이 상업 기관을 지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또 하나는 각급 정권 기관으로 하여금 인민 위원회내 상업 행정 부서들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하는 그것이다.

당 단체들은 각급 근로 단체들의 역할을 제고하여 상업에 대한 방조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며 특히 상업 부문내 민청원, 녀맹원들의 모범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도를 부단히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당 단체들은 상업 부문에서의 반당 종파 분자들과 그들과 결탁했던 일부 불순한 자들이 감행한 파괴 행위를 계속 전체 상업 일'군들 앞에 철저히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범죄적 사상 여독을 시급히 청산하도록 하는 사업을 끈기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와 인민 생활 향상에서 상업이 노는 역할과 중요성을 전체 인민들 속에 계속 해석 선전함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상업 활동을 적극 방조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 상업이 전체 인민들의 감시와 방조하에 보다 새로운 발전의 길에서 당의 상업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도록 할 것이다.

10월 전원 회의 결정의 관철을 위하여

기본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혁신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

우리 당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거대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이 과업들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업과 농업, 주택, 문화, 보건 등 각 부문에서 고정 폰드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가 급격히 장성될 것이 예견된다.

고정 폰드의 확장은 기본 건설에 의하여 진행된다. 그러므로 고정 폰드 확장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수준과 장성된 건설량 등에 적응하게 기본 건설 사업을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김 일성 동지는 이미 1956년에 전국 건축가 및 건설자 회의에서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설계의 표준화, 부재 생산의 공업화, 시공의 기계화를 적극 도입할 것을 교시하였으며 또한 공화국 내각에서도 해당한 대책을 강구 제시하였다.

지난날 건설 부문의 지도적 자리에 있었던 반당 종파 분자이며 혁명의 배신자인 김 승화, 리 필규와 그 추종 분자들은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진행할 데 대한 당과 정부의 정책들을 《시기 상조》라고 비방하면서 고의적으로 외곡하며 그 집행을 태공하였으며 《건축에서의 예술 지상주의》를 표방하여 나서면서 특히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에 대하여는 이를 아주 차요시하였으며 심지어 《표준 설계는 예술미를 보장하지 못한다》, 《표준 설계는 건설의 질을 저하시킨다》, 《표준 설계와 조립식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 등의 부당한 구실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이다.

반당 종파 분자들과 그 추종 분자들은 이러한 구실 밑에 대상 설계만이 《건축미와 질》을 보장할 수 있는듯이 떠들면서 설계 일'군들로 하여금 당의 방침과는 달리 대상 설계에만 매달리게 하였으며 나아가서 《개인의 명성》을 떨치기 위하여 외관과 허식과 장식 본위의 설계에 몰두케 하였다.

일부 건축가 및 설계 일'군들의 개인 공명주의적 창작 태도의 결과에 지난날 많은 건축물들의 설계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비경제적 현상들이 발로되였다. 《건축에서의 예술 지상주의》에 포로된 적지 않은 설계 일'군들은 설계를 표준화하며 부재 생산을 공업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과는 달리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건설 부재 규격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결과 올해에 건설 건재 공업성 평양시 건설 관리국 산하 기업소들에서 제작하고 있는 부재의 종류는 544 종에 달하였으며 창문의 종류는 약 200여 종이였다.

한편 일부 건설 기관 지도 일'군들과 설계 일'군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보수주의가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또한 장애로 되였다. 보수성에 물젖은 일부 일'군들은 발전하는 새로운 현실과 기본 건설에 대한 성숙된 인민 경제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보잘것 없으며 낡아 빠진 자기의 경험이 《만능》인 것으로 고집하면서 언제나 새것의 도입 적용에서 소심, 주저하며 새것을 도입하는 첫 시기에 있을 수 있는 곤난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건설 감독 기관인 국가 건설 위원회 내의 일부 지도 일'군들 속에서도 건설 분야에 대한 당 정책의 집행에서 소극적이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일부 설계 일'군들의 《건축에서의 예술 지상주의》에 추종하는 경향들이 발로되였었다. 그들은 설계에서 지침으로 되는 정확한 설계 기준의 제시,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설계 기준들의 적시 개정, 부재 규격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사업 등 설계를 표준화하여 조립식 건설에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들을 아주 불원만하게 집행하였다. 그들은 일부 설계 일'군들의 《건축에서의 예술 지상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건축에서 비례가 맞지 않는다》, 《곱다》, 《각기둥보다 원기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표준 설계가 선차냐, 부재의 규격화가 선차냐》 등등을 따지는 데 많은 력량과 시간을 소비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난날 기본 건설 분야에 대한 당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지 못함으로써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건설 사업에서 낡은 수공업적 작업 방법들이 많이 지속되여 왔다. 우리는 낡은 건설 방법으로써는 더는 전진할 수 없게 되였다.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새 단계에서 고정 폰드에 대한 수요의 확대에 따라 증대된 기본 건설의 량과 건설 방법간의 불합치가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금년에 뚜렷이 나타났다.

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 회의는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건설량과 방법간의 불합치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혁신하며 건설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 회의는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혁신하여 제1차 5개년 계획 말까지 기본 건설에서 조립화 수준은 40%, 로동 생산 능률은 150% 이상 제고할 것과 건설 원가를 28% 이상 저하시킬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 전투적 과업을 정확히 수행하려면 조립식 건설 방법의 적용에서 제기되는 기본 요구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그것은 곧 설계의 표준화 및 규격화, 부재 생산의 공업화, 시공의 기계화를 실현하며 건설에서 제도와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평양시 당 단체는 10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하여 조립식 건설의 기본 요구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당적 주의를 돌리고 있다.

10월 전원 회의 결정이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군중 속에 침투됨에 따라 최근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표준 설계 적용 범위의 확대, 부재의 광범한 규격화 및 그 종류의 대대적 축소, 현존 기계 설비의 효과적 리용과 선진 경험 및 소기계화의 광범한 도입, 부재 생산 능력의 최대한 확장에 필요한 예비들이 대중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시당 단체는 밑으로부터의 제의와 적발된 예비의 규모에 근거하여 1958년 중으로 조립식 비률을 산업 건설에서 40%, 공공 건물 건설에서 76%, 주택 건설에서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으며 건설 원가는 설계 단계에서만 하여도 20% 이상 저하시킬 수 있다는 초보적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10월 전원 회의가 제기한 과제들을 초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시당 단체는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한 예비가 상당한 정도로 탐구된 현 조건하에서 초보적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새 예비의 계속 탐구와 발견된 예비의 효과적 리용에 대한 지도 통제를 강화하는 문제에 큰 주의를 돌리고 있다.

* *

설계의 표준화는 건설의 조립화를 위한 기본 조건의 하나이다. 당 정책에 근거하여 제때에 정확히 작성된 설계는 시공 부문에서 조립식 건설이 추진되도록 통제적 작용을 놀 수 있으며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수도 건설 설계를 담당한 평양시 설계 연구소 일'군들은 그렇게 사업하지 못하였다.

시당 단체는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 이후 계속하여 시 설계 기관들과 건설 감독 기관내 일'군들의 사상적 병'집과 사업상 결함들에 대하여 개별적 충고와 함께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조직 전개하였다. 원칙적인 비판은 일'군들의 사상 관점을 바로 잡고 실지 사업을 개진하는 데 큰 방조로 되였다. 많은 설계 일'군들은 자기의 오유를 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표준 설계 작성에 착수한 때로부터 지난 1년 동안에 한'건도 작성 못 하던 표준 설계를 최근 불과 2—3개월간에 9건이나 작성하였다. 이것은 초보적 성과에 불과한 것이다.

시당 단체는 설계에서 발로된 결함의 반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10월 전원 회의 결정 집행 행정에서 시 설계 기관과 건설 감독 기관내 일부 책임 일'군들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편향에 대하여 당적 주목을 돌리고 있다.

첫째 편향은 설계의 표준화와 건설의 미관상 요구를 대립시키는 편향이다. 이것은 주로 필요한 미관상 요구까지도 허식의 개념 속에 혼합하여 버리고 건축미 일반을 거부하려는 데에서 표현되였다.

다음 편향은 부재의 규격화를 도시의 필수적인 미관상 요구에 대립시키는 그것이다. 이것은 인민군 거리나 쓰딸린 거리와 같은 기본 간선에 위치할 고층 건물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부재 종류의 축소와 조립식 건설 방법 적용의 편리 일면만 생각하고 도시 형성의 조화, 미관상 견지에서 반드시 고려되여야 할 제 요구를 무시하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설계 일'군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 관상 견지에서는 곡선으로 련결된 한 개의 건물이 필요하나 부재의 종류가 많아진다 하여 일직선으로써 접을 두 개로 쪼개자는 것이다.

다른 편향은 대상 설계와 규격화된 부재의 반복 적용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다. 개별적 설계 일'군들은 대상 설계에는 부재도 규격화된 것을 적용할 수 없는듯이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특수한 경우에 개별적 대상 설계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 대상 설계에도 부재는 최대한도로 규격화된 것을 예견하여야 한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절실히 필요하다. 반대로 같은 표준 설계를 적용하면서도 장소와 환경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약간한 가공으로 반복되는 단조성을 회할 수도 있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규격화된 부재의 적용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장하며 반복 적용의 수명을 될수록 길게 하는 데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은 한 극단으로부터 다른 극단에로의 동요를 의미하며 당이 제기한 기본 원칙과 개별적 특수성들을 결합시킬 줄 모르는 경향의 표현이며 이것은 자주성의 결핍과 책임 지기를 겁내는 소부르죠아적 조심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심성》은 건설 감독 기관 일'군들 속에도 농후하다. 개별적 일'군들은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히 심사하여 결론을 줄 수 있는 설계조차 책임지기 겁나서 수개월 동안이나 어루만지고만 있다.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오유를 피할 수 없다. 사업에서 중대한 오유를 범하지 말며 되도록 오유를 적게 범하려면 정치적으로 준비되여 있어야 하며 당 결정의 기본 정신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집행에서 항상 당성과 계급적 립장을 고수하며 보다 대담하게 창조적으로 사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만 당의 요구에 수응하여 보다 값싸고 아름답고 견고하며 쓸모 있는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으며 설계를 시공에 선행시킬 수 있다.

* *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혁신할 데 대한 당 정책을 관철시키려면 부재 생산의 공업화를 보다 정력적으로 조직 추동하여야 한다. 건설에서 조립화의 수준은 언제나 부재 생산의 규모를 릉가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질과 원가도 역시 주로 부재 자체의 질적 상태와 원가에 의하여 많이 좌우된다. 당이 부재 생산에 큰 의의를 부여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시기에 시당 단체는 부재 생산 조직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조직 정치 사업들을 진행하였으며 건설 일'군들에게 적지 않은 실체적 방조들을 주었다. 년산 4,500 립방메터 이상의 철근 콩크리트 부재 생산 능력을 가진 평천리 브로크 공장 건설에 더 많은 기술 력량과 지도 력량을 집중하고 각 트레스트 보조 공장들의 정비 확장을 위하여서도 계속 예비들을 적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평양 건설 제1 트레스트 보조 공장 로동자들은 진동기의 매 회당 능력 0,4 립방메터를 0,8 립방메터로까지 높이며 증기 양생 설비를 약간 확장하고 부재의 적재 방법을 개선하여 양생 가마의 불필요한 공간을 없앰으로써 설비 리용률을 높이며 골재 수송을 간단히 소기계화 한다면 기자재의 큰 추가적 투하 없이 1천 립방메터의 부재를 생산하던 현존 능력을 명년도에는 2천 립방메터까지의 부재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로 제고시킬 수 있다고 제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가 대중적 창발성의 앙양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지도 일'군들은 《선언》, 《약속》 하고 《준비》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제기된 기술 경제적 문제들을 재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하여 10월 전원 회의가 있은지 1개월 반이 경과하였으며 새 건설 년도를 눈 앞에 두고 건설 현장에서 방금 부재의 결핍을 느끼고 있으나 부재 생산 자체에서는 아직 새 결과와 변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의 긴급한 임무는 《부재 생산의 대대적 확장》, 《보조 공장의 확장 정비》 등을 강조하는 일반적 《선언》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신설 공장의 휘틀, 골재 준비, 정확한 생산 계획의 시달로부터 시작하여 보조 공장 로동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선진적 의견들이 속히 생산에 도입되도록 기술 경제적 조치를 취하며 부재 생산의 급속한 증가를 현실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부재 생산 능력의 확장과 함께 재질에 의한 생산 지표의 정확한 규정이 큰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재질별 생산 지표는 수요에 의하여서만 규정될 수 없고 원자재의 보장 조건에 제약된다. 이것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계획 작성에서 주관주의를 범할 수 있고 명년도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10월 전원 회의 결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건설 건재 공업성 일부 지도 일'군들이 이러한 주관주의를 범하였다. 즉 경량 브로크가 생산과 시공에 편리하다는 일면만 생각하고 《슬라크》 확보의 현실적 가능성보다 엄청나게 높은 생산 지표를 예견하였으며 반면에 벽돌 브로크 생산은 극히 차요시하였다. 시당 단체는 이것을 시정하고 벽돌 브로크 벽체 생산 비중을 《슬라크》 부재에 비하여 훨씬 높이게 하였다.

이로써 나타난 편향은 시정되였으나 벽돌 브로크에 대한 과소 평가는 남아 있다. 벽돌 브로크 리용은 시공하기 편리하고 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생산을 전문화할 수 있으며 파벽돌과 벽돌의 등급별 리용을 보장하며 상하차 로력과 운반 도중의 벽돌 파손을 경감시키는 등 일체식에 비하여 훨씬 유익하다.

조립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당분간 경량 브로크 생산에 못지 않게 벽돌 브로크 생산을 중요시하고 그의 생산 및 운반 조직을 잠시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벽돌 브로크 생산에 다공질 벽돌을 최대한도로 리용하여 그의 중량을 경감시키고 운반 및 조립 작업을 쉽게 하도록 조건을 지어주며 벽돌을 생산 공장에서 브로크화하는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건설 현장들에서도 광범히 제작 리용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부재 생산의 공업화를 큰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거나 지나치게 어렵고 신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과 브로크의 원자재를 쎄멘트, 탄재, 광재, 벽돌 등에만 국한시켜 생각하며 현존 생산 방법을 절대화하는 태도를 시정하고 폐품 리용과 간단한 설비에 의한 고정 또는 로천식, 반 로천식을 비롯하여 실정에 알맞는 새 방법을 대담하게 창안 적용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브로크의 새 원자재 원천의 탐구를 위하여서도 이미 성숙된 문제들이 많다. 최근 경공업성에서는 석회와 모래를 배합하여 《씨리까찌트》 벽체 브로크 시험 생산에 성공하였다. 석회는 그 자원이 우리 나라의 도처에 풍부하므로 브로크 생산에서 공고한 원료 원천이 보장될 수 있으며 원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게 한다. 경험은 과학 연구 기관 일'군들도 포함한 모든 지도 일'군들이 사상적으로 동원되여 성숙된 문제의 해결에 주인답게 참가한다면 지방 자재 원천을 보다 광범히 개발할 수 있으며 새 품질의 경량 골재를 얼마든지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씨리까찌트》 벽체 브로크, 류화마그네샤 쎄멘트에 의한 간벽 벽체와 산화 철분 점토에 의한 경량 골재 생산 및 기타 새 품질의 부재, 건식 미장판 등의 대량 생산을 보장하며 부재의 중량을 백방으로 감소시키며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중요한 과업이다.

* *

시공의 기계화는 조립식 건설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의 하나이다. 시공을 기계화함에 있어서 우리 당의 제1차적 요구는 현존 기계 설비의 최대한 리용과 소기계화의광범한 도입에 기초한 전반적 기계화에로의 점차적 이행이다.

현존 기계 설비 리용률 제고의 요인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주요한 것은 시공 조직 설계에 근거한 기계의 합리적 배치와 작업 조건의 정상적 보장이며 가동 일수와 교대 일수를 높이고 휴지 시간과 공회전을 최대한 축감시키는 문제이다.

그러나 기계와 함께 직접 일하는 사람들의 사상 상태와 기술 기능 수준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없다. 지도 일'군들은 기계와 함께 사람들에 대하여 주목을 돌려야 하며 기계 관리, 운전, 수리, 생산 부문 로동자, 기사, 기수들과의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기계 운전공, 조수들로 하여금 자기가 기계의 주인이라는 자각성을 가지게 하며 로동 규률과 기계의 보관 관리 및 표준 조작법 준수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책임성을 백방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설비 가공 공장에는 최근까지도 몇해 전에 수입하여 온 목나사 기계, 양정 기계를 비롯하여 근 20대에 달하는 절삭, 가공 기계들이 사장되여 있다. 그 중 일부 기계들은 비를 맞아 녹이 쓸고 부속품이 없어져 폐품으로 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내에는 탑형 기중기를 비롯하여 많은 각종 기계들이 배치의 무계획성과 작업 조건의 불비로 인하여 장기간, 때로는 수개월씩 휴지 상태에 있다. 이것은 그의 본질로 보아 해독이며 범죄와 동일하다. 적지 않은 지도 일'군들은 이것을 리해하지 못하고 비당적 현상에 대하여 평온 무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도 일'군들은 국가 재산에 대한 《객관주의적》 립장을 철저히 근절하고 기계의 보관 관리와 리용상 결함을 큰 일로 취급하며 이에 대한 대중적 격분과 비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강조하고 있는 작업의 광범한 소기계화를 위하여서는 일방으로는 창의 고안 사업에 대중의 더욱 광범한 층을 인입하며 타방으로는 이미 달성한 창의 고안과 선진 경험을 종합 일반화하며 그를 기술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 및 행정 일'군들은 창의 고안 운동을 《호소》만 하지 말고 지도하여야 하며 대중에게 당 중앙의 의도에 근거하여 창의 고안의 대상과 방향을 명백히 제시하여 줌으로써 운동 자체에 목적 지향성을 부여하여 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수직, 수평 작업에서 등'짐 운반과 손로동의 제거, 굴착 및 정지 작업과 상하차 작업, 골재 채취 부문에서 기계화 비중의 제고 등 긴요한 목표에 대중의 지혜를 집중시켜야 한다.

축적된 경험을 일반화하며 그를 기술적으로 완성함에 있어서도 계통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최근 년간에 로동자, 기술자들은 많은 중 소형 기중기들과 철재 절단기 및 기타를 창안 제작해 냈다. 이러한 기계들은 대중적 창의에 의한 것만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동종의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 형태, 중량, 성능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동종의 기계이면서도 우수한 것과 미숙한 것간의 성능 기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며 설비 가공 공장에서 생산하는 중형 기중기는 중량은 지나치게 무거우나 성능은 미약하여 많은 철재와 로력의 랑비를 초래하고 있다. 만일 우수한 기술 력량과 선진 로동자들을 조직 동원하여 다종 다양한 중 소 기중기들과 철재 절단기들에서 우수한 특질들을 찾아내며 이 특질들을 서로 옳게 배합하는 방향에서 설계를 개작하여 다량 생산을 조직한다면 그만큼 기계화 분야에서 기술적 완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기계화 수준 제고를 위한 주요 요인의 다른 하나는 선진 로동자들의 선봉적 역할로써 일부 락후한 로동자들의 보수적 경향을 극복하는 동시에 기계 작업에서 로동자들의 물질적 리해 관계를 심중히 고려하는 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작업 기준량 자체가 기계 로동보다 손로동이 더 많은 수입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로동자들은 기계 작업에서 물질적 관심을 덜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준량은 시급히 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

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 회의는 공사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며 건설 기관들의 기술 조직 지도 수준을 제고할 데 대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기본 건설은 그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아 매우 복잡하고 각 공정간의 밀접한 련계와 호상 의존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건설에서는 공정간의 보조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거나 몇 가지의 자재만 제때에 보장되지 않아도 곧 막대한 랑비와 공사 진도상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경제 부문보다 기본 건설 부문에서 더 강한 질서의 수립과 예견성 있고 주도 세밀한 계획성을 요구한다. 8월 전원 회의 후 거듭되는 비판과 사상 투쟁을 통하여 이 지도 사업에서 적지 않은 개진이 있기는 하나 다른 경제 부문에 비하여 아직 질서와 규률이 약하다. 이것은 로력, 재정, 기자재의 막대한 랑비의 지속, 계획 및 시공 규률의 위반, 빈번한 오작, 반복 공사와 사고 등에서 실증되고 있다. 결과 금년도 기본 건설에서 시내 몇 개의 트레스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의 계획 과제를 미달하고 있다.

초래된 락후성의 원인은 시공에서 행정 기술적 지도의 미약성과 작업 조건을 불원만하게 보장하는 거기에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은 주로 건설 대상의 분산성, 시공 조직의 산만성, 계획의 빈번한 변동과 설계 보장에 있어서의 건설주의 무책임성에서 기인되고 있다. 특히 지난 시기 평양 건설에서는 도시의 집약적 건설과 집중 투자에 대한 당의 요구가 적지 않게 위반되였으며 로력, 기자재, 자금, 지

토 력량의 심한 분산성이 조성되였었다. 건설 대상의 분산성은 일방으로는 행정 기술적 지도와 후방 보장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며 타방으로는 본래 약하던 행정 기술적 지도 력량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하였다.

기본 건설 부문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시공 조직 설계 작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신비화》하는 경향을 시정하고 준비 없이는 시공에 착수하지 말며 정확한 설계 및 시공 조직 계획과 각종 기술 규정과 제정된 질서와 요구에 따라 규률 있게 사업하는 제도를 세우며 동시 착공 대상을 대담하게 축소하여 로력, 기자재, 자금 및 지도 력량의 집중적이고 계획적 배치를 용이하게 하며 행정 기술적 지도와 후방 보장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도록 실지 사업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

시공 조직 자체를 지도에 유리하게 개선하는 문제와 함께 시당 단체는 시공 기관들의 기술 조직 지도 수준 제고에 큰 주의를 돌리고 있다. 이에 있어서 주되는 것은 그릇된 사상 관점과 사업 작풍을 극복하는 문제이다.

사상 관점을 바로 잡기 위하여서는 당 정책 집행에서 지도 일'군들의 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김 승화, 리 필규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의 사상 여독을 끝까지 청산하며 보수주의와 침체, 일체 안일한 현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잠시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오늘 조립식 건설 방법의 도입과 대중의 창발성에 대한 중요한 장애는 수공업적 방법의 사상적 지주로 되고 있는 보수주의이다. 때문에 10월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새것이 낡은 것을 극복하는 합법칙적 과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사상 투쟁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보수주의는 계속 대중적 타격을 받고 있으나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당의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각양한 형태를 띠고 발현되고 있다. 아직도 일부 지도 일'군들 속에서는 이미 낡아 버린 수'법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며 자기의 경험만을 절대시하고 《자존》하면서 대중의 경험과 생활의 새 요구들에 무시로써 대하며 당 결정으로부터 자기가 하여야 할 새 과업을 찾아 낼 줄 모르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미리부터 새 방법의 적용 범위를 좁은 자기 안계 내에 국한시키려하며 설계의 표준화 및 규격화와 시공의 기계화 등 문제 토의에서도 창발적 의견과 새 기술 지표들을 받아 들이기 두려워하고 있다.

수공업적 건설 방법의 뿌리 깊은 《전통》과 낡은 인습의 집요한 저항을 극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상 령역에서 발현되는 보수주의, 침체, 일체 안일성에 대한 당 단체들의 원칙적이며 비타협적인 비판과 호상 비판의 전개이다. 보수주의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 있는 투쟁 대책은 대중적 창발성에 대한 당 단체 측으로부터의 조직적 지지에 있다. 당 단체들은 대중의 창발성과 가장 선진적 력량에 의거하여 낡은 견해의 소유자들이 《할 수 없다》고 고집하던 새로운 일들을 정력적으로 조직 추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 고집에 대하여 수치를 느끼게 하며 새롭고 선진적인 것에로 그가 전진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지도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개선함에 있어서 주요 고리는 의연히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관료주의는 주로 시공 조직과 지도에서 발로되는 무계획성, 주관주의, 사무실적 사업 작풍에서 볼 수 있다.

평양 건설 관리국과 그 산하 적지 않은 트레스트 지도 일'군들의 《일과》는 주로 사무실 안에서 집행되는바 그것은 다음날 시공에서 요구되는 자재와 《애로》의 수집과 《등록》, 《애로 조건》을 해결하지 못한 일'군들에 대한 《추궁》, 이것이 그 기본 내용이다. 결과 추궁과 독촉은 날마다 반복되나 여전히 시공 준비와 작업 조건은 갖추어지지 못한다.

애로를 제때에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주먹치기로 일하는 관습을 버리고 일의 선후차와 경중을 가려 주요하고 긴급한 곳에 지도 력량을 예견성 있게 조치할 줄 알아야 하며 작업 조건의 보장을 시공에 결정적으로 선행시켜야 한다.

건설에서 당의 조립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지도 일'군들이 공명주의와 조급성을 버리고 목전의 건설 실적 비률만 따지지 말며 부재 공장의 신설, 정비 확장, 건설 기계의 관리, 생산, 수리 기관들에 대한 지도에 많은 력량을 기울여야 한다.

예견성 있게 계획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문서주의를 퇴치하며 지도에서 주관주의와 독단을 극복하여야 한다. 시내 시공 기관 내에는 《결재》, 《명령》하는 사람과 그를 《전달》하는 사람은 많으나 일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사람은 적다. 많은 문제들

이 사무실 안에서 문서상으로만 《해결》되고 있다. 또한 개별적 일'군들은 주요한 문제의 결론을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내리며 크고 적은 모든 문제를 혼자 틀어 쥐고 분주히 서두르기는 하나 일은 일대로 잘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흔히 유일 관리제 원칙의 주요한 요구인 집체적 협의제의 결여, 국 부서들과 부서내 일'군들 간의 사업 한계와 책임 분공의 불명확성, 책임 회피의 경향이 특징적으로 발로된다. 시공 부문 책임 일'군들은 기관 내에서 사업 한계와 책임 분공을 정확히 조직하고 협의제를 강화하며 국 부서들과 특히 지도 기관의 기본 성원인 지도원들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백방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불필요한 문서 공작으로부터 일'군들을 대담하게 해방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하부에 접근하여 시공 현장을 료해하고 자기 사업을 전망성 있게 조직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어야 한다.

건설 기관의 기술 조직적 지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지도 일'군들의 실무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건설 기관내 책임 간부들은 매개의 지도 일'군들이 자기의 준비 부족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며 시간과 로력을 아끼지 말고 각종 실무 강습과 경험 교환회 및 기타 형식을 통하여 그들의 정치 실무적 수준을 급속히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

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 회의는 건설에서 당의 정책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기본 조건의 하나가 기본 건설 부문내 당 단체들을 강화하며 당 조직 정치 사업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시당 단체 앞에 나서는 주요 과업은 기본 건설 부문내 초급 당 단체들을 조직적으로 강화하여 그의 정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당 사업 체계를 정확히 수립하고 대중을 조직 동원하며 당 정책 집행 여부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당적 통제를 옳게 조직하는 것이다.

최근 시당 단체는 기본 건설에 당적 주목을 더욱 돌려 이 부문 성원 구성과 작업 조건의 특수성들을 실지 사업에서 심중히 고려하면서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며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고수하며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과 10월 전원 회의 결정 집행과 결부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 로동당 평양시 위원회 부 위원장 **서 을 현**

설계의 표준화는 조립식 건설의 필수 조건

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 회의는 앞으로 거의 모든 건설을 표준 설계에 의하여 진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우선 도시 및 농촌 주택은 1958년부터 일체 표준 설계에 의한 건설에로 이행할 것을 호소하였다.

당이 제시한 표준 설계 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표준 설계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철저히 조직 집행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표준 설계의 작성을 계획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주되는 것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예견되는 기본 건설 부문의 투자액에 의거하여 전망적인 표준 설계 대상 명록을 작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표준 설계 작성의 선후차를 옳게 규정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층고 및 폭과 같은 기본 구조축 사이의 치수와 벽체——벽체, 층막, 건물의 폭, 창문 등 건축 부재의 크기에 대한 치수를 표준 설계 전반에 걸쳐 류별하여 통일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바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유일 단위 척도 체계를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 10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근거하여 얼마 전에 평양시 내의 각 설계 기관, 시공 기관, 건재 생산 기관 책임 일'군들의 회의에서 부재의 규격을 통일시켜 사명이 동일한 건물에 대한 표준 설계의 수를 축소할 것을 토의한바 있다. 회의에서는 주택과 합숙 건물은 전체 벽체 브로크를 17종, 충막은 동일한 2종류의 휘틀에 각이한 철근의 배근으로 6종, 창문은 2종, 출입문은 4종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기타 공공 건물에서도 동일한 규격의 부재들을 반복 적용할 수있는 조건들에 착안하였다. 경험은 우리들이 당 정책을 받들고 그의 관철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부재 규격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바 각 도시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건설 기관별, 도시별로 생산되는 부재의 종류를 통일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통일 축소된 건설 부재 규격에 기초하여 표준 설계를 작성한다면 사명이 동일한 건물에 대한 표준 설계의 수를 축소시킴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 방법의 하나로 된다.

그리고 지난날과 같이 무계획적으로 기관 단위로 표준 설계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각 설계 기관들의 특수성과 그들의 력량 관계 등을 충분히 타산하고 설계 대상을 옳게 분배함으로써 표준 설계 작성의 계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 설계 작성을 계획적으로 추진시킴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표준 설계에 대한 기술 과제가 주문 기관들을 거쳐 국가 건설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심중히 토의 확인된 후에 설계 기관에 넘어 가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 작성 도중과 설계 완료 후에 기술 과제의 기본 내용의 변동으로 설계를 재작성하게 되거나 지어 설계가 취소됨으로써 설계 력량을 랑비케 하며 설계 작성 완료 기한이 연장되는 현상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작성되는 표준 설계는 우리 나라 건설 작업에서 장성되는 기계화 수준을 심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건설 기계를 계획적으로 도입할 것과 조립식 건설에 필요한 건재 가공 공장, 건설 부재 생산 공장들의 확장, 기술 력량의 장성 등을 세밀히 타산하여 설계를 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면서 빠넬조, 브로크조 등의 표준 설계를 진행함과 함께 지방의 실정에 적합하게 소기계화로써 건설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설계도 광범히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 일'군들은 표준 설계의 작성에서 예비와 허식을 근절하여 건설 원가를 최대한으로 저하시키는 데 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설계 일'군들은 지난날 설계 작성에서 발로되였던 비와 같은, 우리 나라 기후 조건과 경제 형편에 맞지 않게 벽체를 지나치게 두텁게 하는 것, 특별한 근거 없이 건물의 충고를 높이는 것, 공공 건설에서 필요 이상 큰 홀을 만들거나 복도를 넓게 하는 것 등으로 건설 원가를 높이는 현상을 없애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설계 일'군들은 가능한한 지방 건재 원천을 백방으로 동원하며 부재 중량의 감소와 목재의 절약 등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준 설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우리 나라의 기후 조건과 인민들의 생활 풍습 등을 옳게 타산함으로써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며 그들이 사용함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날 작성된 일부 표준 설계들은 우리 나라 각 지방의 기후 조건과 지방적 생활 풍습들을 고려하지 않고 량강도와 같이 기후가 찬 곳이나 황해남도와 같이 비교적 더운 곳이나를 분별함이 없이 작성된 결과에 사용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였었다. 그러한 표준 설계들은 종종 생활 풍습상 전통을 가진 온돌을 건축에 도입하지 않고 마루로서만 설계된 것들이 많다. 앞으로 온돌에 대한 연구를 더욱 체계화하여 주택, 합숙, 려관 기타 공공 건물에 광범히 적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아 유리하다.

표준 설계는 설계 일'군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표준 설계는 일정한 기한,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 반복 적용되느니만큼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표준 설계로서 채택되기 전에 반드시 엄밀한 검토와 실제적인 시범 건설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범 건축을 통하여 건물 구조 형식의 합리성과 시공의 용이성, 건설에서의 조립성 제고, 새로운 건설 재료의 적용, 건설 기간 단축의 가능성, 로력의 절약 등을 포함한 원가 저하 등등에 관한 문제들이 확증되여야 하며 특히 쓸모에 있어서 인민들의 생활상 편리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되였는

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물의 건축적 효과에 대하여서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된 표준 설계 초안에 의한 이와 같은 시범 건축을 통하여 광범한 주민층들과 시공 일'군들로부터 제기된 각이한 의견들을 종합 분석하여 표준 설계를 종국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작성되는 표준 설계 내용에는 국내 국외에서 달성된 새로운 과학적인 성과들이 반드시 반영되여야 한다.

지난날 설계한 많은 주택들과 합숙들은 채광과 통풍이 잘 보장되지 못하여 실내가 음침하고 답답하며 온돌과 뻬치까들이 자기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다시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나라의 특수한 기후 조건과 생활 풍습에 따르는 건축 양식과 구조 문제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된다. 또한 조립식 건설에 필요한 각종 건재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의 적용이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혹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도 기인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설계 기준들을 시급히 제정하며 우수한 표준 설계들을 작성하기 위한 설계 자료들과 방법론들을 만들어 내며 새로운 건재들을 탐구하기 위한 과학 연구 사업을 개선하며 과학 연구 성과들을 제때에 설계에 도입할 데 대한 철저한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설계 일'군들은 우리 나라의 고귀한 건축 예술 전통에 대하여 계속 심오하게 연구하여 그를 현재 도달된 기술 수준, 사용되는 건재, 지리 및 기후 조건과 인민들의 요구 정도와 합리적으로 결부시켜 건축에서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진 민족적 형식을 창조하는 데 많은 력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10월 전원 회의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까지 최단 시일 내에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설계 력량들을 집중하여 설계 기관 자체를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계 기관에 배치된 일'군들에 대한 당적 행정적 지도 사업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매개 일'군들이 훌륭한 표준 설계를 완성하는 것을 자기가 당으로부터 위임 받은 가장 영예로운 과업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준 설계 작성에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재능을 동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표준 설계에 대한 합평회, 경험 교환회들을 광범히 조직하는 동시에 표준 설계에 대한 대중적 현상 모집 사업도 종종 조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설계를 표준화하며 규격화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우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들은 우리 설계 일'군들이 당과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튼튼히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개선하며 당과 정부의 방침의 집행에 사상적으로 옳게 동원되는 경우에만 원만히 집행될 수 있다.

최근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설계 일'군들 자신의 기술 부족에서보다도 당 정책에 튼튼히 의거하지 못하는 그릇된 사상 관점과 태도로부터 더 많은 결함들이 발생되였다.

그러므로 설계 기관내 당 단체들의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설계 일'군들 속에서 당 조직 정치 사업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당 단체들은 설계 일'군들이 당의 방침과 의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자기의 창작 활동을 전개하며 그들이 설계 도면상을 통하여 나라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성을 표시하며 도면상의 선 하나, 점 하나라도 당의 정책과 결부시킬 줄 알게끔 하는 데 당적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국가 계획 위원회 중앙 설계 연구소 소장 한 제 선

맑스-레닌주의 미학의 몇가지 문제

문 종 상

맑스—레닌주의 미학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현실 인식의 미학적 본질과 특수적으로는 그의 최고 발현인 예술의 본질과 인간 생활에서 그가 수행하는 기능, 예술의 발전을 특징짓는 일반적 합법칙성, 예술 창조 과정을 관통하는 기본 방법,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비롯한 현실의 미학적 속성과 인간의 미'적 감정의 본질 등의 미학적 범주들을 연구한다.

이로부터 맑스—레닌주의 미학 연구의 과업은 철저하게 맑스—레닌주의 당성을 고수하면서 예술 생활에 침투하여 부르죠아 미학 예술 리론과의 가차없는 투쟁을 전개하며 예술 발전을 그의 력사적 합법칙성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예술 발전의 방법론적 기초를 해명하며 예술 창조 사업과 평론 활동에 지도 리론을 주며 인민들을 고상한 미'적 정서로서 교양함에 있다.

우리 미학 연구의 당면한 구체적 과업은 우리 당 제3차 대회가 그의 기본을 제시한 바와 같이 리광수,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등 반동 부르죠아 예술가들이 전파한 사상적 악영향과 그리고 공화국 남반부에서의 퇴폐한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습에 의하여 계속 전파되는 반동 예술 사상과의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며 우리 고전 예술과 기타 세계 각국의 고전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그의 발전의 합법칙성과 그의 계승의 필연성, 그의 기본 방향을 해명하며 그리고 그의 계승에 있어서 의거하여야 할 예술적 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우월성을 리론적으로 해명하며 그리하여 보다 많은 예술성 높은 창작품들로서 인민들을 고상한 애국주의와 혁명적 락관주의로 교양함에 있다.

*　　　*

미학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예술의 미학적 본질에 관한 유물론과 관념론간의 투쟁은 오늘에 있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관념론적 미학자들은 현실과 예술을 분리시켜 예술을 《절대 리념》의 의식 형태로 간주하거나 또는 천재들의 개인적 내부 세계를 의식하는 형태로 간주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예술적 의식의 일차성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술의 인식적 및 사상—교양자적 역할을 무시하고 예술을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례컨대 주관적 관념론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현실의 미학적 속성중 아름다운 것이란 단순히 《주관적 령혼의 반응》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를 리론적으로 기초지은 것은 칸트였다. 그는 아름다운 것은 객관적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천적인 관념 속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관적 관념론자들과는 달리 객관적 관념론자들은 아름다운 것의 객관성을 인정하나 그것을 다만 《절대 정신》의 외화로 간주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들도 역시 아름다운것의 객관성을 부인한다. 이러한 견해는 헤겔 철학에 그 리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이처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주관적 및 객관적 관념론적 부르죠아 미학 사상은 그들의 반동적 예술관 즉 《예술을 위한 예술》, 《순수 예술》 등등의 리론적 기초로 된다. 그리하여 부르죠아 미학은 자기의 대상을 현실 생활과는 격리된 《천재》들의 내면 세계와 그들에 의하여 도출된 《예술적 형식》의 연구에 국한시킨다. 여기로부터 부르죠아 미학은 아름다운것, 추악한 것, 희극적인 것, 비극적인 것 등등과 같은 미학적 속성의 객관적 존재를 거부하며 예술의 주요 임무를 다만 현실 생활을 보충

하는 데, 즉 부르죠아지의 오락적 취미를 만족시키는 데에 국한시키고 만다. 이와 같은 리론은 예술의 현실 개조적 능동적 역할을 부인하려는 부르죠아 계급의 반동적 리해 관계의 표현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부르죠아 반동적 미학적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맑스주의 발생 이전에 있어서의 가장 선진적인 세계관의 대표자들이였던 19세기 로씨야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의 미학 리론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에 대한 견해의 관념론적 제한성은 역시 미학 리론에 있어서도 부족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오직 맑스주의 창시자들만이 미학 리론을 포함한 온갖 관념론적 반동 리론에 대한 가차없는 분쇄 비판과 로동 계급의 세계관으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창시로서 과학으로서의 미학의 성립도 기초지었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에 그 리론적 기초를 둔 유물론적 미학은 현실이 일차적이고 예술적 의식은 이차적이라는 견지로부터 출발한다. 맑스—레닌주의 미학은 예술을 인간에 의한 현실 생활 반영의 주요한 형식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반작용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대하여 추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로 된다고 간주한다.

사회적 의식의 이여의 모든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예술도 역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 생활의 인간 의식에의 반영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예술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의 인간을 묘사 대상으로 함으로써 다름아닌 생활을 그의 전체성에서 형상적인 특수한 형식을 통하여 보여 주는 것으로써 그의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 이여의 사회적 의식 형태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것은 례컨대 개념의 형태로써 현실을 인식하는 과학과는 구별되는 의식 형태인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의 현실 반영의 진실성은 물론 자체의 특성들에 의해서 비본질적, 우연적 현상들을 생활에 있어서의 본질적이며 합법칙적인 것을 예술적으로 천명하여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리용한다. 례컨대 연암 박 지원은 《량반전》에서 과학에서라면 전혀 그의 서술이 필요 없었을 바로 그런 점들 즉 량반들 생활의 구체적 환경,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들, 지어는 식사에 있어서의 순차성까지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제 현상들을 통해서 그는 당시의 봉건 귀족, 량반들의 착취적 본성과 무위도식, 호화 방탕한 생활을 폭로하였다. 이러한 현실 반영의 진실성 따라서 그의 높은 사상성과 내용, 그리고 이 내용에 가장 적절하게 적응한 형식을 위한 예술적 기량을 요구하며 보장하는 수'법은 사실주의 예술적 방법이다.

예술 창작의 력사적 경험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면서 맑스—레닌주의 미학은 생활의 진리를 반영한 작품들만이 생명이 있으며 진실한 예술 작품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18세기 실학의 대가들인 홍 대용, 박 연암, 정 다산 등 과거의 위대한 사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이 생활의 내면적 합법칙성에로의 심오한 침투성을 보장했기 때문에야말로 자기의 시대적 생활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커다란 사상적 미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더 설명을 요하지 않는 현실 반영의 사실주의적 방법의 진실성이 갖는 힘의 물질적 증거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인 진실한 묘사가 예술 창작의 필수 조건으로 된다는 것, 따라서 이것은 예술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객관적 합법칙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칙의 요구를 떠날 때 작가, 예술가는 허위적 공상의 《창조자》로 밖에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언제나 예술가들이 현실 생활에 접근하여 그에서 배우며 그 속에서 생활의 본질적 측면들을 포착 형상화하라고 가리켜 왔으며 또 가리키고 있다.

생활을 그의 본질적 측면에서 포착하는 것은 바로 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인간을 사업과 로동 속에서 관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인간은 그의 사업과 로동을 통해서만 그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의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들의 활동 즉 사회 생활을 정당하게 보기 위하여는 작가, 예술가들의 변증법적 유물론으로의 무장이 요구된다.

만일 예술가가 맑스—레닌주의 철학적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한다면 그는 현실의 복잡다단한 현상 가운데서 철의 흐름으로 관통되여 나가는 생활의 론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의 예술적 필치는 생활의 론리, 생활의 진실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활의 가장 진실한 반영 즉 생활을 그의 력사적 발전 속에서, 생동하는 구체성 속에서 창조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맑스—레닌주의 미학이 가르치는 사실주의 발전의 필연적인 새로운 단계인 사회주의 사실주의 방법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이 방법만이 자기의 길을 발견한 새 시대의 사람들——창조자들—투사들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에 의하여 우리 시대의 가장 긍정적 주인공들인 로동 계급과 농민, 전사들이 생동성 있게 묘사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혁명 실천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 형상의 당면 과업의 가장 중심적인 고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사실주의 방법에 있어서 현실을 혁명적 발전 속에서 묘사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상적 교양 문제와 밀접한 련계를 가진다. 왜냐 하면 이는 현실을 변증법적으로 정당하게 보게 하며 그리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활의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기 때문이다.

예술에서의 진실——이는 생활 중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예술적 형상적 반영이다. 오늘 우리 예술가들의 유일한 창작적 방법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 사실주의 방법은 남조선에 있어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류포되고 있는 각종 부르죠아 반동 미학 리론 특히 가장 반동적인 죤. 듀이의 실용주의 미학을 비롯한 실존주의, 모더니즘 등의 자연주의 및 형식주의와는 적대적으로 대립한다.

사회주의 사실주의 방법은 우리 작가 예술가들을 형식, 쩨마, 슈제트, 쟌르 및 기타 일정한 규범으로써 구속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실주의 방법에 의거하는 예술가들은 과거에 대해서나 현재에 대해서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물에 대해서나, 자연이나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묘사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 이후 일련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일부 예술가들은 개인 숭배를 반대한다는 기치 밑에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마치 쓰딸린의 개인적 창조물인 듯이, 또는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예술가들에게 《강요》된 작가들의 창작상 자유를 구속하는 방법인 듯이 묘사하면서 사회주의 사실주의 방법을 거부하려고 시도하였는바 이들의 시도는 이미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방법에 확고히 선 작가, 예술가, 평론가들로부터 응당한 론박을 받았다. 예술가들의 창작의 자유에 대한 《억제》는 사회주의 사실주의와는 하등의 련관성도 없다.

우리의 전체 예술 일'군들은 우리 당의 정당한 문예 로선에 지도되면서 일제 통치하에서부터 이미 사실주의적 방법에 확고히 의거한 카프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기치 높이 창작의 자유를 누리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물질적 담보인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장엄한 투쟁 속에서 새로운 현실과 거기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사람들의 사상 감정을 형상화하였으며 자유로운 토론들을 전개하여 왔다.

예술적 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는 우리 예술가들을 우리 혁명 발전의 로정에 대한 심오하고도 명백한 리해로서 무장시키며 우리 사회 현상의 내부에 침투할 가능성을 준다. 이것은 사회주의 사실주의만이 곧 미래에로 향하는 력사적 흐름 속에서의 진실한 예술적 전형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

맑스—레닌주의 미학에 있어서 주요한 기본 문제의 하나인 예술적 전형화란 생활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그의 사회 력사적인 구체성에서 감성적인 개성화된 성격을 통하여 일반화하는, 따라서 사회적 전형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예술에 있어서의 형상 창조의 고유한 수'법이다.

맑스—레닌주의 미학에 있어서의 이 원칙의 비속적인 리해와의 투쟁은 우리 예술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자는 반드시 모범 로동자라야 하며, 젊은이는 반드시 새로운 사람이여야 하며 늙은이는 반드시 허리가 굽고 수염이 드리운 완고한 보수성의 체현자라야 하는 등등, 이러한 전형화의 표준성의 《틀》은 우리 사회주의 사실주의 예술의 정신과는 모순된다. 반면에 이 방법은 각기 다른 력사적 및 사회적 조건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각이한 사회 인간층, 긍정적, 부정적 혹은 새것과 낡은 것의 각양한 성격들을 역시 각양한 측면에서 그의 본질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써 전형화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예술적 전형화는 예술의 객관적 법칙이다. 전형화 없이 진정한 예술은 불가능하다. 전형화의 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만이 예술가는 개성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을 해명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것에 대한 자연주의적 서술의 오유에 빠지지 않고 생활에서 본질적인 현상을 포착하여 개성을 통한 예술적 일반화로서의 전형화에 의한 진정한 예술 작품의 창조가 가능한 것이다.

전형의 창조는 생동한 예술 형상을 거쳐서 현실의 화폭, 인간 성격과 그들의 생활 환경, 그들의 행동, 사고 및 체험의 묘사를 통해서 실현된다. 사람들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리지적 정신 세계, 아니 지어 육체적 행동까지를 동반하여 예술가가 그린 그 생활의 화폭 속으로 뛰여들어 그 생활이 지향한 그 결론에로 이끌리어 가며 정열로서 체험하며, 이런 혹은 저런 성격, 사회 력량에 공명하거나 반항한다. 예술은 이것을 통하여 감상자들에게 그 생활 현상에 대한 인식을 주며 미'적 또는 그와 련결하여 정치 도덕적 관계에서 교양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실주의 예술에 있어서의 전형화는 묘사 대상에 대한 태도와 선택에 대한, 그리고 또 묘사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예술가의 필연적인 일정한 당적이며 계급적인 리해 관계의 발로와 무관계하게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예술가에게서 자기 주인공에 대한 명백하고도 일정한 관계를 요구한다. 김 옥성 작곡으로 된 《섬멸의 노래》를 들어 보건대 짧고도 웅장한 이 곡은 가렬한 전투장에서 전투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의 심오한 극적 내용을 집약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조선 인민군 전체 성원들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는 그 붉은 실오리——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서 안받침된 전우애와 동시에 원쑤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을 보여 주는 데 성공하였다.

우리 예술가들에 의하여 창조된 전형의 훌륭한 긍정적인 성격들은 커다란 힘을 가지고 영웅적 우리 인민의 이모저모를 체현하고 있다. 이들 품성은 선발된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수백만 보통 사람들에게 고유한 그것인 것이다. 그러나 인민들은 훌륭한 가운데서도 보다 훌륭한 것 속에서 자기들의 생활적 리상을 찾는다. 우리 예술가들은 아직 인민이 요구하는 그런 창조적 수준에, 현실의 웅장한 사회주의 건설의 새 세기적 진보 앞에 뒤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예술가들에게는 보다 훌륭한 긍정적 주인공의 창조에로의 헐조 높은 노력이 요구된다.

예술적 전형의 심도에 대한 척도의 문제는 그 전형의 사회적 의의에 대한 문제와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최근 년간에 우리 예술계에서는 단지 긍정적 주인공만을 전형이라 부르거나 좀 더 나아가서 작품의 주요 주인공만을 전형이라 인정하는 약간의 편향들이 있었다.

예술에 있어서의 전형은 다만 긍정적인 것, 진보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한 낡은 것, 반동적인 것—총체로 부정적인 것도 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것이 점차 낡아지는 것도 전형일 수 있다. 우리는 낡은 것, 반동적인 것을 옳게 알지 못하고는 그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조차 정당하게 볼 수 없다. 미제에 대한 침략적 본성을 알고 증오를 표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드디여 보다 뜨거운 조국애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부정적 현상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로쇠한 것의 전형적 특징과 사회적 본질을 폭로함에 있어서 풍자는 특별히 큰 역할을 논다. 그러나 우리 예술 분야는 이 점에 있어서 상당한 자기 비판이 요구된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박 연암이 필요하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기간에 있은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2월 연설에 뒤이여 관료주의자들을 폭로 비판하는, 문학과 기타 예술 분야에서의 약간의 깜빠니야적 풍자 예술 창작이 진행되였다. 허지만 그 풍자적 《정열》의 불'길은 곧 사라져 버렸다. 오늘에 있어서 풍자의 분야는, 그것도 극히 미약성을 보이고 있는 그라휘크 부문에만 거의 제한되여 있다.

현실은 예술의 모든 분야 앞에 부정적 현상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적 폭로를 요구한다.

부정적인 현상, 성격에 대한 풍자적, 과장적 전형화는 그것이 본질을 보다 명확화하며, 따라서 직관적이며 직접적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대중의 도덕, 정치적 미'적 교양에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인물과 긍정적 인물간의 량적 배치 관계를 론의한다면 그것은 무용한 일이다. 문제는 도대체 부정적 인물들이나 긍정적 인물들의 수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어떤 리상을 반영하며 그가 자기의 독자들이나 혹은 관중들로 하여금 어떤 눈을 가지고 묘사되는 형상을 보게 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예술 작품들은 새롭고 진

보적인 것의 힘과 그 승리의 불가피성에 대한 신심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예술에 있어서는 인식 기능과 사상—미학적 기능을 분리시킬 수 없다. 선진 사상의 립장에서 현실의 제반 현상을 선택하며 일반화하면서 예술가는 자기의 독자, 관중들의 시야를 넓히며 그들을 사상—미학적 견지에서 교양한다. 이런 까닭에 전형화의 원칙은 동시에 곧 인민 대중 속에서의 일정한 정치적 도덕적 리념 및 미학적 취미의 교양에 관한 원칙인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불후의 고전들과 특히 대중 속에 그의 넓고 깊은 지반을 가지고 있는 한 설야의 《황혼》, 《대동강》, 리 기영의 《고향》, 《땅》, 《두만강》 등 뛰어난 문학 작품들을 비롯하여 영화, 연극, 음악, 미술의 수 많은 걸작들은 고전을 보충하면서 자기의 커다란 영향력으로써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적극 동원함에 있어서 당 사업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예술 작품이 필연적으로 내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상적 경향성—당성의 측면을 찾아 볼 수 있다.

* *

예술가의 현실 사실에 대한 태도는 그의 세계관의 표현이다.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 예술 창작 과정에 있어서도 그들에 의하여 세워진 목적 지향성은 곧 예술에 있어서의 계급성 당성 및 예술의 사상적 방향들을 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인간은 그가 사회적 존재인만큼 언제나 일정한 사회적 계급 및 계층에 속하여 있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그의 의식은 필연적으로 그가 속한 계급, 계층의 사상을 표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반동적 예술 본질의 음폐를 목적삼은 미제의 고용 간첩 박 헌영, 리 승엽, 림 화 도당들은 1946년에 자기들이 채택한 소위 《문화 로선》에서는 무계급성의 문화 건설을 지껼이였다. 이러한 무계급성, 무당성의 허위성은 일찌기 레닌이 마하, 아베나리우스의 소위 《제3의 로선》의 《철학》을 비판하는 자기의 저서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에서 무계급성, 무당성을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계급성의 발양 형태로서의 부르죠아 계급성의 표현이라는 고전적 평가에 의하여 격파된지 오랜 허수아비의 주먹 방패와도 같은 것이다. 부르죠아 계급성, 당성의 표현의 특성은 바로 이와 같은 그의 음폐적 반동성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당—예술가들은 결코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예술가들이 대변하는 계급인 조선 로동 계급은 결코 자기 계급의 당성을 음폐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공공연한 선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그의 리익은 바로 우리 조선 인민이 나가야 할 혁명 수행의 객관적 행정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사실주의 예술에 있어서의 예술 창작의 당성 즉 로동 계급의 당성은 선진 세력의 발전 동향과 세계 반동 세력의 운명을 정당하게 보여 줄 것을 예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작가, 예술가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자기의 주관주의적 서술의 《자의》에로 나가도 좋다는 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립장에 선 작가, 예술가들만이 가장 철저한 객관적 립장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외곡함이 없이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본질에서 반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로동 계급의 사상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 설야의 해방전 작품인 《황혼》에서 김 재당과 안 중서를 비롯한 사람들의 계렬을 통해 그들 서로가 자기 리익을 위한 투쟁에서 물어뜯고 《사랑》하고 욕지거리를 퍼붓는 자본의 노예들을 보며 그들과 대립하여 준식이를 비롯한 학수, 복술, 분이 등 자기들 처지의 단순한 수호자로부터 요구자들로, 아니 혁명가들로 장성하는 조선의 로동 계급을 본다. 작가는 화해할 수 없는 완전히 적대적인 사람들의 이러한 두 계렬을 보여 줌으로써, 또한 로동 계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주며 그들의 온갖 곤난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불가피성을 보여 줌으로써 일제하 조선 사회의 력사적 진실을 분장이 아니라 가장 생생한 화폭에서 보도록 도와 준다.

또한 여기에서 다른 측면으로 고찰할 수 있는 우리 당성의 내용은 우리 혁명의 동력인 로동 계급을 그의 핵심으로 한 인민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적극 옹호하여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승리를 보장, 촉진하는 데 있다. 왜냐 하면 우리 승리의 힘은 인민들의 근본적 리익의 대변자인 로동당과 인민의 통일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예술의 사명은 인민의 생활과 밀접히 결부되여 풍부하고 다양한 현실을 옳게 반영하며 그들의 사회 개조적 전투적 활동, 거기에서 발양되는 지향과 목적, 고상한 도덕적 품성들을 명료하게 보여 줌으로써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숭고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불러 일으키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 예술에서 인민성과 그의 통일을 보장하는 당성의 전 내용이다. 따라서 당성은 우리 예술의 사상적 골간을 이룬다.

이와 같이 숨김 없는 전투적 당성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고상한 사상성에 우리 예술이 가지는 우월성의 또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투적 당성으로서 이루어진 고상한 사상적 내용만으로서는 예술은 성립하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은 대중을 전취할 수 없다. 여기에는 김 일성 동지가 정당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오직 **높은 예술성**으로서 강하여진 고상한 사상성만이 요구되는 것이다.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술 작품이 인민들 속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려면 높은 예술성을 구유하여야 한다. 예술 작품의 높은 예술성은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인력으로써 생활의 진실을 설득시키며 위대한 투쟁에로 그들을 인도한다. 만약 예술가가 그 형상을 통하여 구체적 감성적 내용의 묘사가 아니라 다만 일반적인 사상의 설명에 그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형상**이라고 말하기조차 힘들 것이며 따라서 여기서는 예술성에 대하여 론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제재의 현실성 혹은 우월성,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상적 구상만으로는 대중에게 설득력 있고 힘찬 사상—미학적 영향을 줄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 미학은 랭정하고 무감각하며 굳어져버린 설명조가 아니라 형상들의 실질적인 설득력, 정서적 충실성의 높은 예술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예술성은 작가 예술가의 꾸준한 노력의 산물로서의 수완 있는 기교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이 경우에 커다란 역할을 노는 것이 예술 작품에 있어서의 내용과 형식의 통일인바 이것 없이는 작품의 예술성은 론의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 미학은 예술의 기교 문제를 그것이 형상하는 현실에 대한 진실성의 척도에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현실 생활상의 진실을 떠나서는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진실한 예술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예술적 기교 문제를 다만 형식만을 잘 다듬어 나가는, 말하자면 하나의 《손재주》와 동일시함으로써 형식주의적 경향으로 흐르는 편향과 날카로운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술에 있어서의 형식과 내용을 형이상학적으로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내용에 대한 형식의 선차성을 주장하며 예술의 내용과 기타 의식 형태들의 내용을 동일시 해 버리는 비속 사회학적 결론에로 이끌어 간다. 맑스—레닌주의 미학은 예술가의 기교를 우선 생활에서 새롭고 전형적인 것을 볼 줄 알며 생활상의 진실 앞에 충실할 줄 아는 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예술가에게서 요구하는 것은 생활의 진실을 볼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진실을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다시 미학적 견지에서의 산 진실로 포착할 줄 아는 데 있는 것이다.

미학적 견지에서의 산 진실의 형상——그것은 **우리의 견해에 의하여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될 리상의 발로** 즉 현실의 **아름다운 묘사**를 말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묘사——이것은 아름다운것 자체와는 구별된다. 혁명의 적을 추악한 자들로 묘사하는 것은 인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증오하게끔 한다. 이것은 그 대상 자체는 추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아름다운 묘사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미학적 속성 가운데는 엄연히 아름다운 것이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왜냐 하면 맑스—레닌주의 미학적 견지에서의 아름다운 것이란 그의 기본에 있어서는 모든 추악하고 낡은 반동적인 것들을 극복 타개하고 승리에로의 자기의 전진을 보장하는 새것, 진보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운것——그것은 주로는 그 인간의 선진적 정치적 견해와 고상한 도덕적 풍모의 통일에서 표현된다. 기타의 모든 아름다운 것의 징표들은 다만 그것을 보충해 주는 의미에 있어서만 아름다운것의 가치를 발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름다운것에 대한 견지는 매 개인에 있어서의 각이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력사적 계급적 제한성에 귀착된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인간이란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을 리해한 기초 우에서 준비된

정신적 육체적 능력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우리 당원 대중 속에서 그의 가장 뚜렷한 모범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다. 그러나 예술은 아름다운 것만을 내용으로 할 수 없으며 또 아름다운 것만으로써는 결코 예술로서 성립될 수 없다. 아름다운것 자체는 추악하고 저속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만 자기를 나타내며 강조하는 의미에서 리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예술적 기교는 생활의 진실과 심오하고도 아름다운 사상적 내용을 그에 적응한 그리고 인민들이 가장 열렬한 사랑으로서 받아 들일 수 있는 인민적인 형식 속에 표현할 줄 아는 데 귀착된다.

인민적 형식——이것은 오랜 세기를 두고 인민들 자신이 자기들의 천재와 사랑으로서 창조해 온, 그리하여 아직 그들의 따뜻한 품 속에 죽지 않은 고전들에서 그 모범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은 일찌기 자기 문예 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고전 계승 문제를 내놓았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술성 문제와 결사하여 고전 계승의 기본 문제들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　　　*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주위를 개조하여 아직 일찌기 없었던 어떤 것을 창조하는 데만 오직 종사하고 있는 듯한 바로 그러한 혁명적 위기의 시기들에 있어서도 그들은 제발 도와 주십사 하고 전전긍긍, 강마(降魔)의 주문(呪文)을 외워 과거의 망령들을 자기 앞에 불러 내서 그들의 이름, 그들의 전투적 표어, 그들의 의상(衣裳)을 빌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력사의 관록이 붙은 이 의상을 떨쳐 입고 빌려 온 이 대사(台詞)를 사용하여 세계 력사의 새로운 한 막을 연출하고저 하는 것이다》(《맑스, 엥겔스 예술론》작가 동맹 출판사 판 80 폐지).

계속하여 《이와 같이 이 혁명들에 있어서 사자(死者)들의 부활은 낡은 투쟁을 모작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새로운 투쟁을 찬양하기 위하여 소용되였던 것이며, 일정한 과업을 실제로 해결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 과업의 의의를 가상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또 혁명의 환영을 다시금 배회시키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혁명의 정신을 다시금 발견하기 위하여 소용되였던 것이다》(상 동서 82 폐지).

이 명제는 력사적 유물론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의 그것도 포함한 기타 사회 과학 령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고전적 명제로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싹은 낡은 태내에서만 그의 발육을 보장 받는다. 이것은 낡은 형식의 리용 문제가 새로운 내용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구로 되는 객관적 합법칙적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에 있어서의 낡은 형식의 리용 문제는 주로는 고전 예술의 계승 발전 문제에로 귀착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일반적인 철학적 의미로 사용된 낡은 형식이란 말이 고전 예술의 형상적 형식이란 말과 동일시 되여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우리는 그것이 담고 있는 선진적인 사상적 내용의 계승도 포함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는 맑스—레닌주의 미학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언제나 그의 문예 정책에서 고전 계승 문제를 중요 원칙의 하나로 내세웠으며, 따라서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등 반동 문인들과 결탁하여 우리의 혁명적인 문학 예술의 전통과 민족 고전을 허무주의적으로 배척하며 종파 행위를 감행한 박 창옥, 기 석복, 정 률, 홍 순철 등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문학 예술에 있어서의 레닌적 원칙성과 순결성을 보다 철저히 고수하는 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 고전은 시대적 요구에 적응하여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의 거창한 생활 속에 이룩하고 있는 예술적 성과에서 새로운 알맹이들을 섭취하면서 찬란한 개화 발전의 일로를 걷고 있다.

계승과 동시에 혁신은 우리 예술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 예술계는 이량 측면의 통일 속에 고전 계승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의 부족점으로 하여 일부 일면적 오유의 편향들을 발로시키고 있다. 그 첫째 편향은 고전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이며, 그 둘째 편향은 고전을 그대로 우리의 새로운 현실에 적용하려는 복고주의적 태도이다. 이러한 편향들은 고전 계승에 있어서 유해로운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꾸준하며 철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작가, 예술가들은 김 일성

동지의 다음과 같은 교시를 언제나 생활적 지침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고전의 보고(寶庫)를 리용한다 하여서 그를 봉건적 옛날이나 봉건적 침체성을 노래하며 예술의 낡은 형태를 리상화하는 것으로 전변하여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낡은 예술을 고상하고도 새로운 현대 예술의 립장에서 비판적으로 섭취하여야 하겠습니다》(김 일성 선집 4권, 30 폐지).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 예술가들에게 민족 유산 계승에 관한 당적 원칙의 해명을 준 것이다.

우리의 예술은 오늘 당의 정당한 문예 정책에 따라 그의 발전의 거대한 일보를 힘차게 내디디였다. 거대한 제이보는 보다 곤난한 과업들의 해결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의 미학자들, 부문별 예술 평론가들은 고전 유산 계승 발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개별적 예술 부문들이 달성한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들에 의거하여 그것들을 총화 일반화하며 그리하여 새 시대의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도록 혁신적인 길에로의 전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아직 당적 요구의 수준에서 리론적 해명을 줌이 부족하다.

고전 계승에 있어서 많은 론쟁들이 전개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 창작의 문제, 시대 구분에 대한 문제, 작품의 사상성, 전형성, 문제성 등등 많은 구체적 문제들에 있어서 진전이 미약하다.

이것은 우리 당 앞에 그의 실천을 맹세한 전체 예술학자들, 평론가들, 전체 예술 창조 집단과 그 매개 성원들로 하여금 보다 획기적인 투쟁에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당적인 전투적 과업으로 된다.

사회주의와 평화적 공존 리념의 승리

고 화 영

현 시기 국제 무대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사변들을 주시하고 종합하여 보면 우선 우리들은 사회주의가 보다 강력한 시대적 추세로서 급속히 장성 강화되여 가며 또한 그것이 인류 력사와 국제 관계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현 시기 국제 정세는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되는 각이한 사회 경제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의 리념이 전 세계 인민들을 파악하며 물질적 힘으로 전변되면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을 경축한 의의 깊은 해인 1957년도의 모든 국제적 사변들을 개괄하였을 때 더욱 그러하다.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사회주의의 불가항적 추세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사회주의는 오늘날 보다 강력한 추세로 전진하고 있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경제적 위력 장성의 높은 속도는 두 체계간의 경제적 경쟁에서의 주요한 특징으로 되고 있다. 1957년도 쏘련의 공업 총생산량은 1913년에 비하여 33 배, 1917년에 비하여 46 배나 된다. 이와 반면에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는 미국의 공업 총생산량은 이 기간에 겨우 4 배 밖에 증가되지 못하였다.

경제 발전에서의 높은 장성 템포는 쏘련을 선두로 하는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적 위력의 장성 강화를 보장하여 주었으며 또 주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 공업 총생산량에 있어서 쏘련이 차지하는 몫은 과거 1917년 당시에 0.5% 밖에 못 되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20% 이상으로 되였으며 또 전체 사회주의 진영이 차지하고 있는 몫은 근 30%에 달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계가 자본주의 체계보다 훨씬 우월하며 경제적 경쟁에서 그가 불가피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우에서 지적한 사실과 아울러 로동 생산 능률의 급속한 장성 템포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쏘련에서는 1918년부터 1957년까지의 기간에 로동 생산 능률이 년 평균 10%의 템포로 장성하였다면 미국에서는 3.2%, 불란서에서는 3%, 영국에서는 1.9% 밖에 못 되였다. 1913년에 비하여 쏘련 공업에서의 년간 로동 생산 능률은 약 9.5 배로 장성하였으나 미국에서는 겨우 2.3 배 밖에 장성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쏘련은 로동 생산 능률에서 현재 영국과 불란서를 앞섰으며 미국을 따라 잡고 있다.

사회주의적 경제 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적 생산의 높은 발전 템포는 사회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경제 관계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을 능히 따라 잡으며 앞서게 하는 모든 가능성을 조성하여 주었다.

쏘련에서의 모든 5개년 계획은 이 기본 경제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 놓았으며 또한 그것은 쏘련과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인구 1인당 공업 생산에 있어서의 간격을 단축시켰다. 1913년 혁명전 로씨야의 인구 1인당 생산량은 미국의 13 내지 14분의 1이였으나 현재는 미국의 2.6분의 1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쏘련은 미국을 따라 잡으며 그를 앞서게 될 것이다. 계획에 의하면 인구 1인당 우유 생산에 있어서 쏘련은 1958년에, 육류는 1960—61년에 미국을 따라 잡을 것이 예견되고 있다.

사회주의 체계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무한한 전망을 열어 준다. 최근 년간에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쏘련에서 달성한 과학 기술적 성과들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쏘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첫 대륙간 탄도 로케트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였다. 더욱이 쏘련에서의 인공 위성 발사의 성공은 인류의 문명사에서 새로운 기원, 새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과학 기술 발전에서 세계 제1이라고 항상 과장하던 바로 그 미국이 아직도 대륙간 탄도 로케트와 인공 위성을 갖지 못하였으며 2 년내로 쏘련을 따라 갈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지도자들은 10 년이 걸릴 것이라고 비명을 올리고 있다.

쏘련에서의 인공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는 쏘베트 과학과 기술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에 대한 시위였다. 그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즉 두 체계간의 경쟁에서 《누가 누구를》하는 문제에 대하여 명백한 해답을 주었다.

두 세계적 체계의 존립은 두 가지 상이한 경제적 발전 로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몰락의 일로를 걷고 있으나 사회주의적 경제는 무한히 발전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계는 사회 발전을 억제하고 있으며 더욱더 뒤흔들리고 불안정하게 되였다. 아직 자본주의 세계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비교적 좋은 경기는 많은 면에서 군비 경쟁과 기타 일시적 요인들의 불견고한 기초 우에서 조성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경제는 새로운 심각한 동요와 위기들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사회주의 체계는 자본주의와의 평화적 경쟁에서 자기의 우월성을 충분히 과시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달성한 모든 과학 기술적 성과들은 사회의 진보와 생산의 제고, 인민 생활 수준의 제고에 리용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평화와 전쟁 방지에 리용되고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체계간의 경쟁에 있어서 종국적 승리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체계의 것으로 될 것은 의심할바 없다. 오늘 력사는 사회주의가 세계적 무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전환기에 들어 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인류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 운동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전 세계에서 승리할 것이 불가피하다.

평화적 공존 원칙은 세계 평화 유지의 기본

두 체계의 두 가지 상이한 경제 발전 로정은 국제 정치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립되는 두 가지 로선을 조성케 하였다. 그것은 전쟁과 평화이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전체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전 세계의 공고한 평화 유지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 원칙을 자기들의 대외 정책의 총로선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렬강은 사회주의와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는 전쟁 준비와 국제 긴장 상태의 격화를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으며 《힘의 립장》을 자기의 대외 정책의 총로선으로 삼고 있다.

국제 정치에서 두 가지 로선—전쟁과 평화, 《힘의 립장》에 선 정책과 평화적 공존 정책은 서로 대립되여 투쟁하고 있는바 이것이 곧 현 시기 국제 생활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중근동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

《힘의 립장》에 선 제국주의 렬강은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려는 목적하에 구라파에서는 웽그리야 반혁명 폭동을 조작하였으며 중근동에서는 애급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침략적 책동은 쏘련을 선두로 하는 강력한 세계 평화 력량 앞에 좌절되고 말았으며 국제 긴장 상태는 다시금 완화의 방향으로 전환되였다.

어디까지나 《힘》을 광신하고 있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세계 도처에서 침략적 책동을 감행함으로써 다시금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중근동 지대가 그들의 이러한 야망을 실현할 중요한 대상의 하나로 되였으며 따라서 그는 국제 긴장 상태의 중요한 초점으로 되였다.

중근동에서 긴장 상태를 조성케 한 장본인은 바로 미국 침략 계층이다. 그러면 왜 미제는 중근동에 대하여 그렇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도 맹렬한 침략적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미국 침략 계층이 중근동 지대를 자기의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일부로 보고 있으며 이 지역을 자기의 세력권에 넣고 여기에 있는 풍부한 석유 및 기타의 자원들을 략탈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미국 침략 계층은 중근동이 처하여 있는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리용하여 그를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병참 기지로 만들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중근동을 세계 제

패의 야망을 달성하는 전략적 발판으로 만들려고 한다.

세째로 현재 중근동에서 추구하고 있는 미제의 침략적 목적이, 고조된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고 다시금 여기에 옛날과 같은 제국주의적 식민지 체계를 복구하려는 데 있다.

미국 침략 계층은 중근동에 대한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광분하면서도 작년 말 애급을 반대하는 영, 불 및 이스라엘 침략 전쟁이 일어났을 때 2중적 태도를 취하였다. 한쪽으로는 영, 불 및 이스라엘을 사촉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평화 애호가》인듯이 자기를 가장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산하였다. 애급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에서 영, 불이 패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제 자신의 식민주의가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오늘 애급 인민들은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성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반식민주의 투쟁에 궐기한 아랍 인민들의 맨선두에 굳건히 서고 있다.

미국 침략 계층은 자기의 침략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시금 영, 불의 참패를 리용하려 하였다. 영, 불의 참패와 세력 쇠약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미제에게 예속케 하였는바 미제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간주하고 《진공 상태》의 리론을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침략적 야욕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이 봉착한 것은 《진공 상태》인 것이 아니라 바로 중근동 인민들의 강력한 민족 해방 운동이였다. 이와 아울러 특히 중근동의 석유에 대한 국유화의 사상은 미제가 영, 불의 세력권을 계승하려는 데 큰 방해로 될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의 지반까지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미국 침략 계층은 중근동에 대한 시급한 침략 계획을 작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아이젠하워주의》이다.

《아이젠하워주의》는 미제의 경제 및 군사적 침략 정책의 가일층의 발전이며 가장 로골화된 표현이다. 종전의 대중근동 정책보다 《아이젠하워주의》에서 새로운 것은 4억 딸라와 같은 《경제적 원조》보다 《군사적 원조》 즉, 중근동에 대한 무력 적용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아이젠하워주의》는 선포된 첫날부터 아랍 인민들의 일대 반항에 봉착하였다. 애급, 요르단, 씨리아 및 기타 아랍 국가들이 《아이젠하워주의》를 거절하자 미국 침략 계층은 곧 직접적인 무력 간섭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이젠하워주의》를 강요하기 위하여 미국 침략 계층은 정월 중순부터 지중해 미국 제6 함대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2월에는 다호란의 군사 기지 사용에 관한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야의 협정을 5개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처음부터 군사적 모험을 획책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와 함께 미국 침략 계층은 한편으로 영, 불의 세력을 압제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그들과 결탁하여 《힘의 립장》에 서서 공동적으로 아랍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할 데 대한 합의 도달에 광분하였다. 바그다드 조약 군사 위원회에의 미국의 정식 가입, 요르단 및 기타 문제들에 대한 결정들을 채택한 버무다도에서 있은 아이젠하워와 맥밀란간의 회담이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미, 영간에는 중근동 석유 산지를 위한 치렬한 투쟁이 버러지고 있다.

오만과 기타 지대들에서의 사건은 중근동 지대에 대한 미, 영간의 모순과 그에 대한 미제의 2중적 태도를 다시 한번 폭로하여 주었다.

오만에 대한 미제의 적극적 태도는 《아이젠하워주의》에서 흘러 나온 것이며 동시에 그의 식민주의적 성격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젠하워주의》의 침략적 본성에 대해서는 요르단에서의 사변들이 더욱 뚜렷하게 폭로해 주고 있다. 미국 신문들까지도 요르단 정변을 《실천에 옮겨진 아이젠하워주의》라고 규정하였다.

요르단에 대한 미제의 악랄한 책동이 비단 그로 하여금 《아이젠하워주의》를 접수케 하는 데만 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후의 모든 사태가 말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요르단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음으로써 미제는 아랍 민족 해방 운동과 중립 정책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선두에 서 있는 애급과 씨리아를 손쉽게 격파할 것을 목적하였다.

요르단 정변 후 미국 침략 계층은 《아이젠하워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적 독립과 중립주의를 고수하는 씨리아의 애국적인 현 정부를 전복하고 자기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반동 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갖은 음흉한 침략적 책동을 다하였다.

미국 침략 계층은 다마스크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의 암약, 지중해 미국 제6 함대의 동원으로써 《포함(砲艦)외교》 수단의 적용, 경제적 압력, 반동층에 대한 3—4억 딸라의 경제적 《원조》, 이스라엘과 토이기에 대한 사촉 등을 통하여 반정부 전복 음모를 직접 조직하였으나 그들의 이러한 흉계는 백일하에 폭로되였으며 씨리아의 애국적 력량의 단호한 반격에 의하여 여지 없이 분쇄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의 발전에 극도로 당황한 미국 침략 계층은 돌연 《씨리아의 공산주의화》와 씨리아의 《타국에 대한 위협》을 떠들면서 미 국무 차관보 핸더슨을 중근동에 파견하여 이스라엘, 토이기 및 기타 아랍 국가들의 수뇌자와 함께 씨리아를 반대하는 침략적 계획을 토의하였으며 토이기 군대를 씨리아 국경에 집결시켜 침략 전쟁을 도발할 것을 획책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발악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 가게 되였다. 씨리아를 반대하는 미국의 흉악한 침략적 계획은 씨리아 인민은 물론이고 전체 아세아 인민들과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준엄한 규탄을 받았다. 공동의 적 미제를 반대하기 위하여 애급은 자기의 군대까지 동원하여 씨리아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원조하기에 총동원되고 있다.

특히 평화의 성새 위대한 쏘련은 제국주의 침략 계층의 모험적 책동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결정적 경고를 줌과 동시에 만약 씨리아를 반대하는 침략 전쟁이 도발되는 경우에는 유엔 헌장의 원칙에 의거하여 침략자들을 제재하는 데 자기의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단호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리하여 미국 침략 계층과 그의 추종자들은 감히 씨리아를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당장 도발하는 데로 넘어 갈 수 없게 되였다. 《아이젠하워주의》는 여기서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러나 지금 정세는 씨리아에 대한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였으며 중근동 지대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씨리아 국경 지대에서 음흉한 책동을 계속 감행하고 있으며 오만과 기타 중근동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는 식민주의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각성을 높이여 《아이젠하워주의》가 향하는 걸음마다를 주시하고 있으며 그의 침략성을 폭로 규탄하고 있다.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항상 자기들의 대외 정책의 총로선인 평화적 공존 원칙에 립각하여 중근동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규탄 반대하며 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는 중근동 지대 인민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쏘련은 중근동 문제의 옳은 해결은 《힘의 립장》에 선 《아이젠하워주의》인 것이 아니라 중근동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이 나라들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며 군사 쁠럭 정책을 포기하며 모든 분쟁 문제는 오직 평화적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평화적 공존의 원칙이라는 것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정세는 오직 평화적 공존 정책만이 중근동 문제의 옳은 해결이라는 것을 뚜렷이 확증하여 주고 있다.

평화적 공존의 원칙은 비단 중근동 문제의 옳은 해결을 위한 기본일 뿐만 아니라 전체 아세아에 있어서의 평화 유지를 위한 중요한 조건인 것이다. 미국 침략 계층이 아세아를 강점하고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세아토 국가들과 장 개석 도당과 일본에게 원자 무기 공급을 획책하고 있으며 조선에서의 정전 협정과 월남 문제에 대한 제네바 결정을 로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남조선과 남부 월남을 군사 기지화하며 동시에 캄보쟈와 라오스 및 인도네시아와 같은 중립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파괴 행동을 조직하고 있는 이때 평화 유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조선을 비롯하여 전체 아세아 지역에서 외래 침략 군대 주둔과 특히 미제의 원자 기지화를 반대하여 공동적으로 투쟁할 것과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의 준수이다.

이와 함께 이 5개 원칙을 기초로 하고 전체 아세아 국가들의 집단적 안전 체계의 창설이야말로 아세아에서의 공고한 평화 유지의 튼튼한 담보로 될 것이다.

구라파의 평화와 서부 독일의 군국주의 문제

구라파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문제는 현 국제 생활에서 여전히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라파에서의 평화와 안전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력사적 경험이 말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세계 대전의 쓰라린 경험은 구라파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되였으며 전체 인류에게 재난과 불행을 가져 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때문에 구라파에서의 전쟁 방지와 공고한 평화 유지 문제는 중요한 국제적 문제이다.

구라파에서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고 구라파의 모든 국가들, 즉 나토의 참가국이나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이나를 불문하고 전체 구라파 제국을 포괄하는 집단적 안전 체계의 창설이 가장 중요하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전체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이를 위하여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왔다. 위대한 쏘련은 집단적 안전 체계의 창설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치는 국제적 회합들과 또한 자기의 선언서 및 각서들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집단적 안전 체계 창설을 백방으로 방해하면서 계속 《힘의 립장》에 서서 나토와 같은 군사 블럭을 강화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평화적 공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세계 평화 력량의 위력 앞에 세계 도처에서 패배 몰락됨에 당황한 제국주의 침략 계층, 특히 미제는 력량 관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려는 목적하에 국제적 협정들과 약속들을 위반하면서 서부 독일의 군국주의화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 침략 계층이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구라파에서의 《패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서부 독일의 군국주의 재생에 주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독일이 처하여 있는 지리적 위치가 구라파의 중심이며 전쟁 도발과 침략에 유리한 지대이라는 것.

둘째로 독일 군대는 독일 군국주의가 형성되던 비스마르크 시대로부터 히틀러 시대까지의 사이에 여러 차례의 침략 전쟁을 통하여 전쟁 경험이 많다는 것.

세째로 또한 미국 독점체들은 독일 군국주의적 독점체들과 아주 긴밀한 련계를 맺고 있다는 것.

네째로 서부 독일은 미국의 중요한 채무국이라는 것 등에 있다. 미국 침략 계층은 이러한 관계가 서부 독일로 하여금 자기의 충실한 《동맹자》로 되며 나토의 돌격대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타산 밑에 미국 침략 계층은 제1차 대전 후에도 그러하였거니와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와서는 독일 군국주의 재생을 위하여 각 방면에 걸치는 《원조》를 다하여 왔다. 직접 미국 자본이 서부 독일에 투입되면서 독일 군국주의를 재생시켰다.

이러한 결과 서부 독일의 경제는 1955년에 벌써 현저한 확장을 보았으며 따라서 대규모적 군수 산업을 위한 경제 정책을 취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였다. 이 시기에 서독 군국주의자들에게 군수 산업을 위한 경제적 전제 조건과 아울러 정치적 조건도 부여되였던 것이다. 1955년 5월에 독일 군국주의자들로 하여금 군대를 창설하며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파리 협정이 체결되였다.

1956년 서부 독일의 경제는 계속 확장되였다. 1956년 서부 독일의 석탄 채굴량은 1936년의 1억 1천 7백만 톤으로부터 1억 3천 5백만 톤으로, 선철은 1천 2백 60만 톤으로부터 1천 7백 60만 톤으로, 강철은 1천 4백 80만 톤으로부터 2천 3백 20만 톤으로 각각 장성하였다. 전년도에 비하여 1956년의 수출액은 20% 증가하였으며 대외 무역 발란스에 있어서 수출 초과 액은 29억 마르크나 되였다. 이리하여 현재 독일 군국주의자들은 대규모적 군수품 생산을 위한 경제적 준비 계단을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시기에 있어서 특별한 주목이 요하는 것은 서부 독일의 원자 무기 생산과 사용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 서부 독일 독점체들은 《물리 화학 연구 협회》라는 간판 밑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하고 수다한 재정과 생산 수단을 집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서부 독일은 《유라톰》에 대한 협정에 의하여 독일내에 없는 원자력 생산의 원료들과 경험들을 손쉽게 얻게 되였다. 이리하여 현재 서부 독일에서는 원자 무기 생산을 위한 모든 기술—경제적 기초가 구비되였으며 그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였다.

서부 독점체들은 미제의 《원조》에 의하여 달성한 자기들의 경제적 력량을 침략과 전쟁에 복무하게끔 그들의 앞잡이인 본 정부 지배층을 적극 추동하고 있다. 금년 10월에 있은 서부 독일의 선거 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농후하게 되였다. 이것은 선거 후 아데나우어의 정강에도 뚜렷이 반영되고 있다.

서부 독일의 군국주의자들은 현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리 협정에서 예견된 50만 군대의 창설에 광분하고 있다. 특히 엄중한 사실은 1956년 12월 본에서 있은 나토 회의에서 서부 독일이 《전술적》 원자 무기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 결정이다. 독일 군국주의자들도 원자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얻게 되였다. 이리하여 오늘날 서부 독일 군국주의가 구라파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가장 위험한 존재로 되고 있다.

미국 침략 계층은 세계 제패의 야망 밑에 독일 군국주의를 재생시키면서도 영, 불에게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공동 전선에서 독일 군국주의가 놀 역할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가지게끔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계획하는 의도와 희망대로 현실은 발전되고 있지 않다. 그들 간에는 심각한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서부 독일과 불, 영간의 모순은 각 방면에서 발로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들의 중요한 원인은 서부 독일 제국주의자들의 팽창의 첫 방향이 서방에 돌려지고 있으며 우선 불란서와 영국의 리해 관계를 저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부 독일에 서구 렬강의 군대가 점령하고 있으며 서부 독일의 정치, 군사적 주도권이 아직 서구 렬강에게 장악되고 있는 사정은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된 서부 독일과 서구 렬강간의 모순을 더욱 첨예케 하고 있다.

물론 공산주의의 가장 간악한 적인 아데나우어는 《공산주의 위협》을 광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데나우어 정부는 미제의 《원조》에 의하여 구라파를 우선 독일 군국주의자들에게 예속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데나우어 자신이 자기의 연설에서 말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강한 구라파의 창설은 동쪽을 독일에게 반환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이며 그리고 이것이 우리 활동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이러한 발언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히틀러가 쏘련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1941년에 도발하기 전에 우선 오지리, 체코슬로바키야, 파란, 노루웨이, 불란서, 백의이, 화란 및 발칸 제국을 정복하였고 그러함으로써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에 필요한 경제 및 군사적 지반을 닦았던 것이다.

서부 독일은 구라파 팽창과 패권을 위하여 당분간 정치, 경제적 방법을 쓰고 있다. 구라파 어느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우세한 서부 독일은 이를 리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구라파 석탄 및 강철 공동체와 구라파 지불 동맹이 창설될 때나 특히 금년 3월에 로마에서 채택된 《공동 시장》과 《유라톰》 창설에 그렇게도 열성을 낸 서부 독일의 의도는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부 독일 군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오늘날까지 달성해 놓은 경제적 위력에 정치 및 군사적 력량으로써 안받침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공동 시장》과 《유라톰》의 창설은 이것을 도와 줄 것이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전후 시기 미국 침략 계층과 서부 독일 제국주의자들이 그처럼 욕망하던 나토 서구라파 6개국의 군사, 경제 및 정치적 동맹의 결성을 의미하며 더욱이 동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은 그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강한 서부 독일에게 속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결국에 가서 매개 참가국들의 정치도 독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목적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부 독일의 군국주의자들은 현재 미국의 충실한 동맹자인 듯이 하고 있으나 그들의 종국적 목적은 세계 제패에 있다. 금후 서부 독일 군국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욱 강하게 될 것이며 그때면 미제에게도 유해로운 요구 조건들을 제기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벌써 현 시기에도 미제와 서부 독일간의 모순들이 발로되고 있다. 력사는 불원간 서부 독일의 군국주의자들이 누구에게 우선 타격을 줄 것인가를 보여 줄 것이다.

서부 독일의 군국주의자들의 대외 정책의 첫 방향이 서구 팽창에 있다 하여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침략 계획의 초조성을 늦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부 독일의 군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하여 단말마적인 증오를 하고 있으며 그를 반대하는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부 독일의 군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달성된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가 크면 클수록 공포와 초조감을 더욱 가지게 된다.

독일 군국주의자들이 우선 누구에게 타격을 주던지간에 도발된 전쟁은 항상 인민들에게 끝없는 재난과 불행을 가져 온다.

구라파에서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 군국주의를 제거하여야 한다. 현 시기 미국의 방조하에 독일 군국주의가 재생되고 있으므로 하여 구라파 중심에 전쟁 위험의 온상이 조성되고 있는 이

때 구라파의 평화 유지를 위하여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독일 군국주의와 복쑤주의를 반대하는 독일 인민의 평화 애호 력량과 전체 구라파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이다.

독일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성과 여부는 구라파 평화 유지 뿐만 아니라 독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직접적 련관성을 갖고 있다. 독일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곧 독일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의 성취는 독일 사람들 자신의 손에 달려 있으며, 독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위한 충분한 력량과 가능성이 있다.

독일 군국주의의 제거, 독일 문제의 민주주의적 해결과 아울러 집단적 안전 체계의 창설은 구라파 및 전 세계 평화 유지 공고화의 가장 견고한 담보로 될 것이다.

군비 축소 문제

평화를 유지 공고케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군비 축소이다.

력사적으로 각국 특히 군사 쁠럭들의 군비에 대한 호상 경쟁은 불가피적으로 참혹한 전쟁에로 이끌어 갔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의 발생이 그러하였다. 현재 구라파에 존재하고 있는 침략적 나또의 발광적 군비 확장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 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고 원자 및 수소탄, 또한 그것을 지구의 어떠한 곳으로도 보낼 수 있는 강력한 대륙간 탄도 로케트의 출현은 각국들과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였으며 따라서 전쟁이 발발되였을 때의 그의 참혹과 위험은 더욱 크게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군비 축소 문제는 전 세계 인민들의 절실한 생활적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비 축소 문제를 가지고 벌써 10 여 년간 많은 국제 회담들과 론쟁들이 벌려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하등의 긍정적 해결이 성취 못 되였다. 10 여 년간의 모든 력사적 경험은 물론이고 최근 벌려졌던 유엔 12차 총회에서의 이에 대한 토의 과정은 누가 군비 축소에 대한 방해자이며 누가 그를 위한 투사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군비 축소에 대한 쏘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근본적인 립장은 간단 명료하다. 그것은 각국의 병력과 상용 군비의 대폭적 축소, 특히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생산과 사용의 금지와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의 즉시적 중지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쏘련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새로운 비망록을 제출하였다. 쏘련은 병력 축소를 3계단으로 나누어 미국과 쏘련은 제1 계단에서 2백 50만 명까지, 제2 계단에서 2백 10만 명까지, 제3 계단에서 1백 70만 명으로 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또한 핵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우선 5년간 그 무기를 사용치 않을 데 대하여 의무를 질것과 기타 군비 축소 문제의 합의의 기초루 될 수 있는 일련의 합리적 조치들, 례컨대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 금지에 대한 합의를 우선 볼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계속 고집하며 군비 경쟁에 광분하고 있는 서부 렬강은 군비 축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백방으로 방해하였으며 심지어는 군비 축소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합의마저 완강히 반대하여 나섰다. 그들은 그를 위하여 군비 축소 문제를 독일 문제를 포함한 기타 정치적 문제 해결에 종속시켰고 핵 무기 시험 중지에 대한 문제는 제기조차 하지 않으면서 다만 5개국 군축 분과 위원회 회담을 재개할 것을 제의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엔 군비 축소 위원회에는 12개국, 사실상 군비 축소 회담이 진행되는 분과 위원회에는 불과 5개국 밖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나 여기서의 회담들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성원들이 군비 경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또 성원국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이 5개국 군축 분과 위원회의 재개를 제의하고 있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의 의도는 군비 축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방해하고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려는 데 있었다.

모든 경험은 유엔 총회의 위임에 의하여 군비 축소에 대한 협정 초안의 준비에 종사하고 있는 현존 기관들이 무능력하였으며 본질상 아무러한 성과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었다. 때문에 군비 축소 문제의 전문 기관인 유엔 군축 구성 자체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

유엔 총회에서 쏘련 대표는 군비 축소 문제의 토의와 관련하여 조직 구성상 결점과 또한 군비 축소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정을 타산한 끝에 금번 군비 축소 상설 위원회의 창설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방안을 제출하였다. 이 상설 위원회에는 전체 82개 유엔 성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군비 축소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토의 해결할 수 있는 광범한 대표 기관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쏘련이 현 시기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인 군비 축소에 대한 합의를 보기 위하여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 *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평화를 념원하여 평화적 공존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렬강은 여전히 《힘의 립장》에 서서 전쟁 준비와 국제 긴장 상태의 격화에 광분하고 있다. 나또, 바그다드 조약 및 세아또와 같은 군사 쁠럭의 모든 활동과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 경쟁, 세계 도처 특히 최근 중근동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 책동들은 자본주의 세계에 사회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 체계의 붕괴 과정을 억제하려는 반동적 경향이 아직도 농후하며 따라서 전쟁 발생의 기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현대 조건하에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비단 제국주의가 갖고 있는 경제적 및 정치적 요인으로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계급적 및 정치적 력량의 전반적 관계에도 많이 달려 있다.

오늘날 국제 무대에서 계급적 및 정치적 력량 배치는 제2차 세계 대전 전에 비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사회주의가 강력한 세계적 체계로 전환 강화된 사실,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와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가일층의 앙양과 아울러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의 장성 강화, 평화 옹호 지지자들의 대렬의 확대 강화 등은 세계 평화 력량을 더욱 증대시켰다. 정치, 경제, 군사적 모든 면에 강유력한 사회주의 진영 특히 대륙간 탄도 로케트와 같은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쏘련이 이 력량의 선두에 서고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와 민주와 평화 진영의 위력을 더욱 강대케 하여 주었다.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 력량은 전쟁과 반동 세력보다 훨씬 강대하며 따라서 현 시기에 평화적 공존 리념의 불패의 생활력은 더욱 빛나고 있으며 전쟁 방지의 실제적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국제 무대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강력한 력량들의 단합은 전쟁의 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바 제국주의적인 전쟁 광신자들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전쟁을 감히 도발하는 경우에는 제국주의는 사멸할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인민들은 그처럼 혹심한 고난과 희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제도를 더는 참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

심각한 력사적 변혁과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된 력량 관계의 변동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정책의 실현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조건으로 되며 이를 타산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책의 정당성을 다시금 실증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형은 전쟁의 위협이 전연 사라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쟁 광신자들은 전쟁을 갈망하고 있다. 때문에 모든 인민들은 그들의 전쟁 방화를 위한 온갖 책동을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며 평화를 고수하여야 한다.

우리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사회주의와 평화 력량에 의거하여 적들의 준동을 제때에 분쇄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것이며 그러함으로써 세계의 공고한 평화 유지 사업에 기여할 것이다.

꼰술따찌야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1)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은 사물 발전의 보편적 과정이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모든 사물은 호상 모순된 대립물의 통일로 되고 있으며 이 모순된 대립물들의 투쟁을 통하여 사물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해결되며 이 모순의 해결은 사물의 발전을 가져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사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운동이 있으며 운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모순이 존재한다.

엥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호상 모순된 사물들의 상호 작용이나 서로 배척하는 힘과 서로 끌어 당기는 힘이 없이는 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모순된 힘의 작용 없이는 사물의 운동이 있을 수 없다.

가장 단순한 기계적 운동에서도 벌써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동시에 그 지점에 있으며 동시에 그 지점을 떠나고 있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어떤 운동이든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 시간과 공간은 바로 무한히 련속되고 있는 동시에 그것은 또한 유한한 불련속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는 데 기인된다.

자연 과학은 모든 자연 현상들의 운동 발전이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으로써 특징지어 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원자는 양전기를 띈 원자 핵과 음전기를 띈 전자들의 통일로 되고 있으며 또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프로톤과 중성자도 역시 호상 대립되는 힘을 가지고 상호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소립자》들이 대체로 례외 없이 자기와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소립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현대 과학은 무기계에서의 모든 변화는 이와 같은 사물의 대립된 힘의 호상 작용의 결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유기계에서도 생물이 살아 나가는 것은 결국 유기체와 그의 환경간에 부단히 발생하는 모순들을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에 의하여 해결하여 나가는 데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인간 사회의 령역에 있어서도 생산력과 생산 관계, 토대와 상부 구조, 진보적 계급과 반동적 계급들 간의 모순은 사회의 진정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이 모순들을 해결하여 가는 과정에서만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가령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화된 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사자본주의적 소유 관계와의 모순, 반동적 자본가 계급과 진보적인 로동 계급과의 모순, 자본가들의 독재 국가, 그들의 타락한 퇴폐적 문화와 새로운 로동 계급의 당, 그의 사상 및 선진적 문학 예술 운동과의 모순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순들은 오직 낡은 것과 새것간의 투쟁을 통하여 새것이 낡은 것을 극복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로동 계급에 의하여 대표되는 새로운 것이 부르죠아 계급에 의하여 대표되는 낡은 것을 파괴하고 승리하였을 때에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는 것이며 보다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가 발생하게 된다.

인간 사유에서도 모순은 항상 발전의 동력으로 된다. 사물을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분석도 필요하고 종합도 요구된다. 그리고 낡은 지식과 새로운 인식과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서 인간의 지식이 발전한다. 보통 우리들이 어떤 사물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할 때에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새로 제기된 사실과의 사이에 모순을 발견하였을 때이다. 이 모순의 해결이 지식의 발전을 가져 오게 한다.

이와 같이 모든 운동과 변화 발전의 기초에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모순의 해결만이 사물의 보다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가져 오는 것이다.

사물의 발전은 오직 모순을 해결하는 데서만 가능하다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음폐할 것이 아니라 그 모순을 폭로하며 해결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혁명적 실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명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부르죠아지의 앞잡이들인 사회 개량주의자들은 부르죠아지와 로동 계급 사이의 모순을 음폐하거나 《조화》시키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 당은 이와 같은 개량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자본가와 로동 계급의 모순은 조화시킬 것이 아니라 로동 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통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가령 백두산 천지의 물과 한라산 꼭대기에서 태우는 불과의 사이에는 호상 작용이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물과 불의 호상 배척하는 힘의 작용은 다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으나 호상 작용이 없는 모순이다. 호상 작용을 통하여 서로 대립되는 힘이 통일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변증법적 모순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변증법적 모순은 반드시 대립된 힘의 작용이며 투쟁인 동시에 그 투쟁하는 힘이 통일되고 있다는 데 특색이 있다.

가령 자본가와 로동자는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간의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로동 계급은 자기가 해방되기 위하여 자본가를 반대하여 투쟁한다. 그러나 그들은 호상 작용과 투쟁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라는 한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자본가만 있는 자본주의 사회도 있을 수 없고 로동자만 있는 자본주의 사회도 있을 수 없다. 대립된 량자가 통일되어 자본주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순의 투쟁과 통일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면 모순의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에서 어느 것이 절대적이며 어느 것이 상대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이에 대하여 대립물의 투쟁은 절대적이며 통일은 상대적이라고 가르친다.

세계에는 움직이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는 사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운동이 절대적이고 정지가 상대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모순의 통일은 항상 상대적이며 그 투쟁은 절대적이다. 대립물의 투쟁이 아무리 미미하고 사물의 통일이 아무리 견고한듯 하여도 모순의 투쟁은 반드시 발전하여 그 통일을 파괴하고 다른 사물로 변화시키고야 만다. 만약에 통일이 절대적이며 투쟁이 상대적이라면 모든 사물의 진정한 변화는 있을 수 없게 된다. 가령 자본주의 사회의 통일이 절대적이고 그 모순이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는 오직 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에서만 있을 수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로 전변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통일은 상대적이며 그 모순의 투쟁은 절대적이라면 자본주의 사회의 통일과 상대적 안정성이 강한 것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드시 그 내부 모순의 발전의 결과 파괴되고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대립물의 투쟁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모순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용하며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순은 항상 변화 발전하고 있다. 즉 모순은 항상 발생하며 장성하며 해결된다.

모순이 가장 발전되지 못한 단계를 보통 차이라고 말한다. 차이도 역시 모순의 표현이다. 모순이 차이 정도로 되고 있을 때에는 사물의 통일은 아직 공고하며 대립된 측면들 간의 투쟁이 아직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차이는 그 사물의 운동의 주요한 내용으로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초기에도 자본가와 로동 계급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시초에는 봉건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사회 생활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었다. 따라서 자본가, 소자산 계급, 로동자, 농민들은 모두 귀족들과 대립되고 평민 또는 제3 계급으로서 그 내부 모순이 첨예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점차 발전되면서 자본가와 로동 계급의 모순은 격화되어 간다. 로동 계급은 점차 자기를 자본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생각하게 되며 자본가를 적대적인 계급으로, 자기 투쟁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즉 로동 계급이 계급으로 형성되였을 때에 자본가와 로동자들 간의 모순은 차이의 단계로부터 대립의 단계로 이행한다.

만약에 모순이 차이의 단계에 있을 때에는 그 차이를 없애는 것이 사물 발전의 기본 과업으로 될 수 없으나 모순이 대립에로 발전되였을 때에는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사물 발전의 기본 과업으로 된다. 봉건을 반대하는 것이 주되는 투쟁이였던 자본주의 생산 방식 발생의 초기에는 자본가와 로동자들 간의 모순의 해결이 사회 발전의 주되는 과업으로 제기될 수 없었으나 자본가와 로동자들 간의 모순이 대립의 단계로 발전하였을 때에는 그 모순 해결이 사회 발전의 기본적 과업으로 된다.

차이와 대립은 모순 발전의 각이한 단계들이다. 그러나 차이가 항상 발전하여 대립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다. 가령 우리 나라에서 지금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간에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이 발전되면 대립으로 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점차 비본질적 차이로 전화될 것이다.

대립물의 투쟁이 가장 첨예화된 상태를 갈등이라고 말한다. 갈등은 대립물의 투쟁이 격화되어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물의 멸망, 파괴가 초래될 수 있는 처지에 도달하였을 때를 말한다. 제국주의 단계에서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간의 모순은 갈등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공황과 전쟁같은 파괴적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제국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되는바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다. 모순은 발생하며 발전하며 해결될 뿐만 아니라 대립물은 호상 전환된다.

대립물이 호상 전환되는 과정은 자연에서나 사회에서 보편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원자 핵 내부에서 프로톤은 중성자로, 중성자는 프로톤에로 호상 전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 경쟁은 점차적으로 발전되여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면 자기의 반대물인 자유 경쟁을 부인하는 독점에로 전환된다.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간의 투쟁이 격화되어 로동 계급이 자본가 계급의 독재를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하면 로동 계급은 피지배 계급으로부터 지배 계급에로 전환되며 자본가 계급은 지배 계급으로부터 피지배 계급에로 전환되며 청산 소멸된다.

이상과 같이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은 사물의 변화 발전의 원인을 밝혀 주며 대립물의 통일이 어떻게 자기의 반대물로 호상 전환되는 가를 가르쳐 준다. 이것은 발전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같이 생각하며 모든 사물

들에 대하여 사물의 동일성과 차이성만을 인정하고 그 호상 작용, 호상 전환을 보지 못하는 형이상학적 발전관과 견해를 철저히 분쇄하여 준다. 즉 이 법칙은 발전의 본질을 해명하여 주는 법칙으로서, 발전에 관한 과학으로서의 변증법의 《핵심》으로 된다. 우리는 모순의 본질과 모순의 보편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모순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가, 그 표현 형식과 성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표현 형태들과 그의 성격

모순의 각이한 형태들 가운데서 우선 내부적 모순과 외부적 모순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물과 현상이든지 그것들은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물과 항상 호상 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물과 현상은 자기 자체 내부의 일정한 모순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순의 발전에 의하여 변화 발전하는 동시에 다른 사물과의 모순의 호상 작용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물의 운동 변화의 내부적 원인으로 되는 모순을 내부적 모순이라고 하며 한 사물과 다른 사물간의 모순을 그 사물들의 외부적 모순이라고 한다.

가령 사회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 토대와 상부 구조 등의 내부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는 자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사회는 오직 자연을 정복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는 자기의 내부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연과의 외부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내부적 모순과 외부적 모순은 호상 상대적으로만 리해할 수 있다. 내부적 모순을 떠난 외부적 모순이란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외부적 모순을 떠난 내부적 모순은 생각할 수 없다.

가령 우리 나라는 여러 가지 내부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등 민족 반역자들과 로동자, 농민 기타 근로자, 전체 인민들 간의 모순도 있고 미 제국주의와의 외부적 모순도 가지고 있다. 가령 제국주의 진영을 한 개의 통일체로 관찰한다면 미제와 영국과의 모순은 내부 모순이지만 미국이나 영국을 하나 하나의 제국주의 국가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미국과 영국간의 모순은 외부적 모순으로 된다.

사물 발전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내부적 모순이다. 외부적 모순은 내부적 모순을 통하여서만 작용한다.

사회는 자기의 내부 모순과 외부 모순을 가지고 있다. 사회 내부에서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간의 모순, 토대와 상부 구조간의 모순,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간의 모순들은 모두 사회의 내부적 모순들이다. 그러나 사회는 또한 자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자연—지리적 환경은 사회 존립의 외부적 조건으로 되며 따라서 자연—지리적 환경과 사회와의 모순은 외부적 모순이다. 사회 발전에서 자연—지리적 환경이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 내부의 모순들을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명제의 하나이다.

한 사회로부터 다른 사회로 이행하여 나갈 때에도 항상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은 사회의 내부적 모순이다. 즉 혁명에서 사회의 혁명적인 세력이 반혁명을 타도하는 투쟁 없이는 혁명이 승리할 수 없다. 사회 혁명은 오직 사회 내부의 모순의 발전의 결과이다. 따라서 부르죠아들이 떠벌리는 소위 《혁명 수출론》은 아무 근거도 없는 허위적 중상이다.

위대한 쏘련 군대는 조선 인민을 해방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놀았다.

그러나 쏘련 군대에 의한 우리 인민의 해방은 아직 조선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민 정권의 수립과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민주 개혁들의 실시 및 사회주의 건설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전체 애국적 력량들이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반혁명 세력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하여 온 결과이다. 물론 이 투쟁에서 쏘련 군대와 쏘련 인민은 계속 우리 나라 혁명 세력을 지지하며 방조하여 주었다. 따라서 쏘련 인민의 부단한 원조는 우리 혁명 승리의 주요 조건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아무리 쏘련 군대가 해방하여 주었고 원조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내부적 모순이 없다면 혁명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외부적 모순은 내부적 모순을 통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외부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내부적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가 어떤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유린하고 예속화하기 위하여서는 민족 내부의 예속 부르죠아지 및 지주들과 결탁하여 로동자, 농민 기타 인민 대중들을 억압하게 된다. 여기에서 예속 국가 인민들이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국내에서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지주, 예속 자본가 등 민족 반역자들을 소탕할 필요가 있다. 즉 민족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고 통일될 때에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강력한 힘으로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동 계급이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로동 계급 내부의 기회주의적 요소들을 청산하고 로동 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로동 계급의 당이 강력한 당으로서 로동 계급의 적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당내의 종파 분자들의 존재를 청산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모순의 해결 없이는 사물이 발전할 수 없다. 내부 모순의 해결은 사물 내부의 통일을 강화하며 사물 내부의 통일의 강화는 사물의 외부 모순 해결에서 주요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물 발전의 근원은 모순의 극복에 있으며 새 통일은 발전의 결과이며 발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발전의 결과와 수단을 발전의 원동력과 구별하여야 한다. 내부적 모순과 외부적 모순은 복잡한 호상 작용을 한다.

내부적 모순이 외부적 모순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외부적 모순이 내부적 모순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인간도 시초에는 자연의 일부분이였다. 그러나 인간이 로동을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게 되였으며 인간과 자연과의 모순은 내부적 모순으로부터 외부적 모순으로 전환되였다.

8.15 해방전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점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조선 인민간의 외부적 모순을 내부적 모순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일제는 조선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며 조선 말과 조선의 모든 력사와 풍습까지 말살하려고 하였다. 8.15 해방전 일제의 노예화 정책의 결과 조선 민족 내부에서 출현하게 된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충실한 주구로서 이들과 조선 인민간의 모순은 일제와 조선 인민간의 모순과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과 조선 인민간의 모순은 일제와 조선 인민간의 외적 모순이 내적 모순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15 해방전 일제와 조선 민족간의 모순은 외부적 모순이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지주와 자본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선 사람들을 착취하였으며 억압하였다. 즉 일제는 다만 조선 민족 내부의 지주나 예속 자본가들을 발판으로 하여 조선 인민을 착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의 군대와 경찰, 자기들의 자본가와 지주들을 통하여 조선 인민을 억압하며 착취하였다. 여기에서 일제의 세력의 일부가 조선 사회의 내부적 모순의 한 측면으로 된다. 그러나 조선에 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조선의 예속 부르죠아지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조선에 있던 일본 자본가들은 자기 근거를 일본 본국에 가지고 있었고 조선의 예속 부르죠아지보다도 더욱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8.15 해방전 조선에서 조선 인민과 일본 제국주의와의 모순은 외부적 모순이였다.

내부적 모순이 항상 외부적 모순보다 큰 것은 아니다. 가령 전쟁시에는 외부적 모순이 내부적 모순보다도 더 크다. 8.15 해방전 조선에 있어서의 조선 민족 내부의 모순에 비하여 조선 민족과 일제와의 모순은 비할바 없이 컸으며 조선 사회 발전을 억압하는 결정적 힘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부적 모순이 그 사물 발전에서 더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은 그 사물 발전에서의 비정상적 상태이며 례외적 현상이며 대체로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물의 기본 모순과 비기본 모순을 구별하여야 한다.

어떤 사물의 존재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작용하며 그 사물의 모든 모순의 근원이며 이 모순의 변화는 그 사물의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순을 기본 모순이라고 한다. 비기본 모순은 기본 모순의 작용에 의하여 제약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다.

사회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물질적 부의 생산이 요구되며 생산력과 생산 관계간의 호상 작용이 요구된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간의 모순은 사회의 모든 모순의 근원이며 정치적 또는 문화적 모든 부면의 모순의 작용을 제약하여 주는 기본 모순이다. 사회의 기본 모순은 매개 사회 경제 구성태에 따라서 각이하게 표현된다. 가령 노예 사회에서는 노예 소유자적 생산 관계와 노예 사회의 생산력간의 모순으로 나타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적 성격 사이의 모순으로 나타난다. 계급 사회에서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기본 모순이 기본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간의 모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 계급간의 모순은 기본 모순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로동자간의 모순은 기본 모순이라고 부른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기본 모순은 계급 사회에서의 기본 모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모든 모순의 기본으로 되는 모순이 존재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도달된 생산력의 수준과 부단히 장성되는 인민들의 수요와의 사이의 모순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 모순이라고 본다. 이 모순의 부단한 해결만이 사회주의 사회를 발전시키여 점차 공산주의 사회에로 이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기본 모순은 여러 가지 모순으로 표현된다. 가령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본 모순은 경제 공황,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간의 계급 투쟁, 자본가들의 독재 정권과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적 요구간의 모순,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야와 로동 계급의 사상간의 모순 등 허다한 모순들이 나온다. 이와 같은 모순들 가운데서 어떤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 모순 해결에서 가장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일정하지 않다. 기본 모순 해결에서 가장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모순을 주요 모순이라고 부른다.

주요 모순과 기본 모순은 보통 일치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모순은 기본 모순과 일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시적 성격을 띨 수 있다.

전쟁 시기에는 외부적 모순이 주요 모순으로 될 수 있으며 혁명에서는 낡은 정권과 혁명적 계급간의 모순이 주요 모순으로 된다. 혁명의 기본 원인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에 있으나 이 기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급선무로 되며 따라서 혁명에서 주되는 문제는 정권에 관한 문제이다.

8.15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 주요 모순은 일제와 조선 인민간의 모순이였으며 현 단계에서는 미제와 조선 인민

간의 모순이 주요 모순으로 된다. 8.15 해방전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기본 모순을 오직 일제의 기반으로부터의 해방을 전제로 하고서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과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주요 모순은 일정한 시기에서 많은 모순들 가운데서 어떤 모순이 결정적 역할을 노는가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며 모순의 주요 측면은 모든 모순이 대립물의 호상 작용인 것만큼 대립물 중에서 어떤 측면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규정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자본가와 로동자간의 모순에서 자본가가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로동 계급이 계급으로 형성되면서 로동 계급은 점차 자본가들을 타도할 수 있는 력량으로 장성되며 로자간의 모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8.15 해방전 일제와 조선 인민간의 모순에서 일제의 세력은 조선 인민보다 강하였고 이 모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쏘련 군대에 의한 조선 인민의 8.15 해방은 모순의 주요 측면이 결정적으로 조선 인민의 측에로 이행하게 하였다.

사회에서 계급들 간의 모순은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대적 모순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 사이의 모순이다. 이 모순은 리해 관계가 적대되는 관계인 데 이 적대성은 일시적 또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로부터 불가피적으로 일어나는 적대적 관계이다. 가령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간의 적대적 모순은 자본가가 로동자를 착취하지 않고는 자본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항구적이며 불가피적인 현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적대적 모순은 결국 한 계급이 다른 적대적 계급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비적대적 모순은 계급 호상간의 모순이 근본적으로 적대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리해 관계의 상반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리해 관계의 일치를 가지고 있는 계급들 간의 모순에서 표현된다. 가령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간의 모순은 량 계급이 모두 착취를 반대하며 근로하는 계급이기 때문에 서로 리해 관계가 근본적으로는 상반되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그 모순의 해결은 점차적으로 어느 계급이 어느 계급을 타도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적대적 모순은 그 리해 관계가 근본적으로 적대되기 때문에 폭력적 방법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 어떤 지배 계급이나 착취 계급도 순순히 자기의 권리와 지위를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적대적 모순은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도 해결될 수 있다. 인류 력사는 지금까지 모든 적대적 모순들 즉 노예주와 노예, 봉건 령주와 농민, 자본가와 로동자간의 적대적 모순이 혁명에 의하여서만 해결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폭력의 적용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가령 착취 계급의 반항이 강할 때에는 혁명은 무장 폭동과 공민 전쟁의 방법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혁명 세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반혁명의 반항이 약할 때에는 무장 폭동이나 공민 전쟁에까지 이르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의 적용은 반드시 요구된다. 가령 8.15 해방 후 우리는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 등을 무장 폭동과 공민 전쟁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폭력이 전연 제외된 것은 아니다.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평화적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위대한 쏘련을 선두로 하는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사회주의의 견인력이 매우 크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 대중의 력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무장 폭동이나 공민 전쟁 없이도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계급 투쟁과 폭력 일반의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간의 모순도 적대적 모순이다. 따라서 이 모순이 타협적 방법에 의하여서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평화적 공존 정책은 결코 두 진영간의 부단한 사상 투쟁과 정치 투쟁 및 경제적 경쟁을 부인하지 않는다. 평화적 공존 정책은 두 진영간의 모순을 전쟁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반대할 뿐이다. 비적대적 모순은 폭력적 방법에서가 아니라 교양과 설복, 비판과 자기 비판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된다. 가령 로동 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기타 근로 인민들 간의 비적대적 모순은 계급 투쟁과 폭력의 방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호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며 공동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호상 비판을 통하여 해결된다.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호상 전환될 수 있다.

자본주의 상승기에 있어서 자본가들과 봉건들과의 모순은 적대적 모순이다. 그러나 점차 자본주의가 발전되면서 로동 계급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하게 되자 자본가들은 점차 봉건들과 결탁하게 된다. 여기에서 지주와 자본가들 사이의 모순은 기본적으로 비적대적 모순의 성격을 띠게된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지주가 자본가로도 되고 자본가가 지주로도 되는 것이다. 8.15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 많은 자본가들이 동시에 조선의 지주들이였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가와 로동자간의 모순은 착취자와 피착취자간의 모순이며 따라서 적대적 모순이다. 그러나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하에서 부르조아지는 예속 부르조아지와 민족 부르조아지로 분렬된다. 예속 부르조아지는 로동 계급의 적대적 계급으로서 직접 타도의 대상으로 되지만 민족 부르조아지는 오히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동맹의 대상으로 된다. 여기에서 민족 부르조아지와 로동 계급 사이에는 착취자와 피착취자간의

적대적 모순도 있으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서로 협력하여야 될 동맹의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 계급이 옳게 통일 전선 정책을 써 나가면 로동 계급과 민족 부르조아지와의 관계는 비적대적 모순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로동 계급과 민족 부르조아지간에 비적대적 모순이 존재할 수 있었다면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는 적대적 모순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적대적 모순은 비적대적 모순에로 전환되며 비기본 모순은 기본 모순에로 전환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것은 로동 계급의 당의 정확한 정책이다. 로동 계급의 당은 모순의 한 개 형태가 어떤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타산하고 모순의 형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가령 로농 동맹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로동 계급의 당의 적극적 노력에 의하여서만 수행된다. 만약에 로동 계급의 당이 농민들을 부르조아지의 영향하에서 떼여 내며 부르조아지와 농민간의 적대적 모순을 격화시키며 로동 계급과 농민간의 비적대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하지 않는다면 로동 계급과 농민간에는 근본적으로 리해 관계의 일치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동맹이 아니라 충돌에까지 이를 수 있다. 로동 계급의 당은 공동의 적을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로농 동맹을 강화하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광범한 인민 대중들과의 통일 전선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통일 전선은 결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로동 계급의 당은 항상 통일 전선 내부에서도 로동 계급과 기타 계급들과 계층 사이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부단한 투쟁을 전개하며 공동의 원쑤들과 통일 전선에 망라된 계급들 간의 적대적 모순을 격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부단히 전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전선은 단결을 위한 투쟁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통일 전선 뿐만 아니라 모든 단결은 오직 공동의 투쟁 대상과의 모순을 격화시키며 단결을 약화시키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투쟁이 요구된다. 로동 계급의 당 내에서도 당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부단히 적대 계급에 대한 계급 의식을 강화하며 당의 리익을 자각시키며 당성을 강화 단련하는 동시에 당의 통일을 약화시키는 모든 비계급적 또는 반당적 경향들, 특히 자유주의, 개인 리기주의, 종파주의적 경향들과 부단한 투쟁이 요구된다. 김 일성 동지가 종파 분자들과의 투쟁을 깜빠니야식으로 수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교시한 것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당내의 불순한 요소들에 대하여서는 그 모순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제때에 폭로 비판하여 나가야 당의 통일을 보존할 수 있다. 당내의 비판과 자기 비판의 활발한 전개 없이는 당내 모순을 제때에 해결할 수 없으며 당의 통일을 보존할 수 없다.

이상 간단히 모순의 각이한 형태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순의 형태는 다만 이상에서 지적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며 또 구체적 환경에서 각이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어떤 사물의 모순을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물의 다양한 내부 모순과 외부 모순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내적 외적 모순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3) 현 계단 우리 나라에서의 모순의 성격에 대하여

우리 조선 인민은 지금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8.15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던 가장 큰 장애물은 낡은 식민지 반 봉건적 경제 제도였다. 따라서 8.15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 기본 모순은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과 식민지적, 반 봉건적 낡은 생산 관계간의 모순이였다. 이 기본 모순은 낡은 식민지 반 봉건적 경제 제도를 유지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자들, 지주, 예속 자본가들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간의 대립 투쟁으로 표현되였다.

8.15 해방을 맞이하여 조선 인민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하고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였다. 즉 일제의 통치 기구를 파괴하고 인민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토지 개혁과 산업 국유화 등 민주주의적 개혁을 수행하여 낡은 생산 관계를 청산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점차 사회주의에로 과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남반부에서는 계속 미제의 강점하에서 식민지 반 봉건적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나라의 기본 모순은 사회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북반부의 인민 민주 제도와 남반부의 식민지 반 봉건 제도간의 모순으로 되고 있다. 이 기본 모순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을 일방으로 하는 반동 세력과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동맹을 기초로 하는,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광범한 애국적 인민간의 적대적 모순으로 표현된다. 현 단계에서 우리 나라의 주요 모순은 미제, 리 승만 도당들과 조선 인민간의 모순이다. 미제와 조선 인민간의 모순은 외적 모순이며 국내 지주, 예속 자본가, 친미파, 친일파 등 민족 반역자들 (리 승만 도당들에 의하여 대표되는)과 조선 인민간의 모순은 내적 모순이다. 현 단계에서 내적 모순과 외적 모순이 서로 통일되여 일방으로는 반혁명 세력을 형성시키고 있으며 타방으로는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조선 인민의 혁명 세력을 형성시키고 있다.

미제와 국내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전국적으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 즉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을 타도하지 않고는 우리 나라의 기본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미제와 조선 인민간의 모순이나 국내 반동 세력과 조선 인민간의 모순이나 모두 적대적 모순이다. 따라서 이 모순의 해결은 오직 치렬한 계급 투쟁과 민족 해방 투쟁을 통한 혁명적 (폭력적 또는 평화적) 방법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서종일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로선은 결코 민족 해방 투쟁과 치렬한 계급 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더욱 강력히 요구한다. 여기에서 평화적이라는 것은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을 완전히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공민 전쟁이나 무장 폭동을 거치지 않고도 능히 조선 인민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을 완전히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자면 인민의 원쑤인 미제와 그의 주구들인 지주, 예속 자본가들과의 치렬한 계급 투쟁을 통하여 인민 대중이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단합되여야 하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치렬한 계급 투쟁이 요구된다.

그러면 어떤 조건하에서 공민 전쟁과 무장 폭동에 의거하지 않고 우리 나라의 주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미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대적 모순의 해결에서 폭력의 적용 정도는 반동 세력의 반항의 정도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것은 또 딴말로 바꾸어 말하면 모순의 해결 방법은 모순의 주요 측면이 어느 측에 있는가에 따라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반혁명 세력이 약하고 혁명 세력이 강할 때에는 모순 해결의 방법은 혁명 세력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결정될 수 있다.

우리 나라 주요 모순에서 모순의 주요 측면이 혁명 세력인가 반혁명 세력인가, 즉 우리 나라에서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중 어느 것이 강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의 모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간의 모순의 주도권이 어느 편에 있는가를 고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내부 모순만 보면 매우 간단하다. 즉 한줌도 못 되는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친미파의 세력과 전체 조선 인민간의 력량을 대비하여 보면 도저히 문제가 안될 정도로 조선 인민의 편이 강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즉 조선 인민은 북반부에 강력한 민주 기지를 가지고 있다. 조선 인민은 민주 기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민주 기지의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 및 기타 각계 각층이 모두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단결되고 있으며 경제, 정치, 문화의 모든 부면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리 승만 도배들에 의하여 대표되는 국내 반동 세력은 나날이 그 내부 모순이 격화되고 있으며 약화되고 있다. 민족 산업은 파괴되고 근 400만의 실업자와 반 실업자들과 100만 여 호의 절량 농가, 60 여 만의 걸식 아동들이 사선에서 헤매이고 있다. 따라서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의 힘은 리 승만 도배들에 의하여 대표되는 반혁명 세력보다 비할 바 없이 강하다. 따라서 미제만 우리 나라에서 물러 간다면 우리 나라에서 주요 모순의 해결은 매우 용이하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외래 침략 세력인 미제와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미제와 조선 인민간의 모순은 다만 조선 인민과 미제와의 모순으로만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인민을 반대한다는 것은 곧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 시기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간의 적대적 모순 관계에서 모순 해결의 주도권은 사회주의 진영에 장악되고 있다. 최근 쏘련에서 진행된 대륙간 탄도탄 발사의 성공과 2차에 걸친 인공 위성 발사, 세계 최대의 려객기 뚜 114호 등은 쏘련의 위력이 미국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쏘련이 강력한 물질적 력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9억 이상의 인구를 차지하는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이 통일 단결되고 있으며 전 세계 근로 인민들과 평화 애호 인민들이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세계사는 벌써 제국주의자들의 의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이 지향하는 방향에로 움직이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애급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웽그리야에서 반혁명을 흉책하고 씨리아를 침범하려고 갖은 음모와 술책을 다하였다. 그러나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강력한 반격을 받고 자기들의 흉책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사이의 모순의 주요 측면은 벌써 사회주의 진영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대 진영간의 모순의 주요 측면이 사회주의 진영에 있는만큼 미제가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고 만약 그들이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을 도발한다면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그들의 실패는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조선 인민과의 모순 해결에서 아무런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조선 인민은 쏘련,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친선 단결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반부의 민주 기지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조선 인민의 물질적 력량과 단결은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부단히 미제를 조선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으며 미제와의 적대적 모순을 해결할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즉 미제에는 모순 해결의 가능성이 없으며 조선 인민에게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요 측면이 역시 조선 인민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주요 모순의 주요 측면이 조선 인민에게 있기 때문에 이 모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이 지향하는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외부적 모순은 반드시 내부적 모순을 통하여서만 작용한다. 미제는 오직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통하여서만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식민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미제가 남반부를 계속 강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조선 인민이 미제의 앞잡이들을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킨다면 미제는 조선 인민에게 작용할 수 있는 내부 모순을 상실하여 버리게 된다. 이렇게까지 극단히 생각하지 않는다 하여도 제국주의 앞잡이들이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되면 고립될 수록 외적 모순의 작용은 점점 더욱 곤난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미제와 리 승만 도배를 일방으로 하는 모순의 반동적 측면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며 조선 인민의 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모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순의 주요 측면을 강화하는 데 있다. 우리 나라 주요 모순의 주요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내부의 모순을 제거하고 인민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물질적 력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조선 인민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의 물질적 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이러기 위하여서는 공화국 북반부에다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그러면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어떤 모순을 해결하고 있는가?

8.15 해방 후 인민 정권의 수립과 민주 개혁의 결과 우리 나라 북반부에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였고 점차 사회주의에로 과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 과도기에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 소상품 경제 형태, 사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의 세 가지가 있다. 이 경제 형태들과 관련하여 로동 계급, 근로 농민 및 사자본주의적 요소들의 세 가지 계급들에 의하여 조성된 모순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와 소상품 경제 형태 사이에는 착취와 피착취간의 모순이 아니기 때문에 적대적 모순이 아니라 비적대적 모순이 존재한다. 토지 개혁의 결과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은 더욱 강화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와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 사이에는 착취와 피착취의 적대적 모순이 존재한다.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서 《누가 누구》를 하는 결사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와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 사이에 버러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 국유화의 결과 산업의 대부분이 사회주의 형태로 전환되였고 사자본주의적 요소는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투쟁은 사회주의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였다. 전쟁 전에 벌써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사자본주의적 요소는 사회주의적 경제에 기본적으로 예속된 관계에 놓이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산업 국유화의 결과 제국주의 부르죠아지가 타도되고 오직 남은 것은 중소 부르죠아들이였는 데 이들은 국영 산업이 아직 발전되지 않은 일정한 부면에서는 인민 생활을 위하여 유익한 역할을 놀 수 있었다. 따라서 사자본주의적 요소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제한, 제재하며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리용하면서 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정책이 요구되였다. 그런데 경제의 주도권이 완전히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에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형태들 간의 모순의 해결 방법은 완전히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에 의하여 장악되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형태를 대표하는 국가는 수시로 사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하여 혹은 리용 개조하며 혹은 제한하는 정책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사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끝까지 량립할 수는 없다. 사자본주의적 경제는 청산하든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북반부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은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에게 예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단계에서 국가의 정책을 접수하고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북반부에서 사자본주의적 요소들과 사회주의와의 적대적 모순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국가의 지도적 역할 밑에 해결될 수 있다.

우리 당은 로동 계급과 민족 부르죠아지의 공동의 원쑤인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 간의 적대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면서 민족 부르죠아지와 로동 계급간의 적대적 모순을 부차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며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형성되는 동맹 관계를 일차적인 것으로 전환시킨다. 즉 우리 당은 민족 부르죠아지와 로동 계급 사이의 적대적 모순을 미제와 리 승만 도배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점차 비적대적 모순에로 전환시키고 있다.

소상품 경제 형태와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간의 비적대적 모순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된다. 사회주의적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과 농촌의 락후한 소상품 경리 형태 사이에는 모순이 발생한다. 농촌에서의 낡은 생산 관계를 철페하지 않고서는 선진 기술과 선진 영농법을 도입할 수가 없으며 또한 부농들과 고리대금업자들의 장성과 그들의 착취를 근절할 수 없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개선될

수가 없다. 여기에서 농촌의 낡은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로동 계급과 농민간의 모순은 비적대적 모순이며 두 계급은 가장 견실한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순 해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동 계급은 백방으로 농민들을 방조하며 그들에게 사회주의적 경리의 우월성을 해설 설복함으로써 농민들의 자원성의 원칙에서 농촌의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수행하였다.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국가는 농촌에 유능한 간부들을 파견하며 제대 군인과 고중 졸업생들을 다수 파견하며 농기계와 비료, 농약 등을 공급하며 관개 하천 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농민들에게 막대한 방조를 주고 있다. 이리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개인농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됨으로써 로농 동맹은 가일층 강화되었으나 도시와 농촌간에는 아직 본질적 차이가 남아 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각 계급들 간에는 아직 여러 가지 비기본적인 모순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모순을 제때에 해결하지 않고 축적하여 간다면 이 모순들은 격화되여 충돌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우리 당은 백방으로 사회주의 경제 형태를 강화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모순의 주요 측면을 가일층 강화하고 동시에 각계 각층들 간의 비기본적 모순을 제때에 해결하며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 밑에 모든 애국적 력량을 통일시키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완수를 위하여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작용하는 모든 내부적 및 외부적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순의 주요 측면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전체 인민 대중들을 조직 동원하고 있다.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의 강화와,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로농 동맹에 기초한 인민 대중의 통일과 단결은 우리의 승리의 기초로 된다.

—김 일성 종합 대학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 강좌—

서적 해제 및 평론

리 청원 저 《조선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 관하여

황 장 엽
김 후 선

반일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력사 과학 분야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전투적인 연구 과제의 하나이다. 이 과제의 과학적 해명은 해방전 우리 나라 혁명 운동사 특히 로동 운동의 력사적 행정을 체계화하며 조선 혁명 운동 발전의 합법칙성을 천명하여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 준비를 위한 혁명적 실천을 해명하는 거대한 리론적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가 혁명 운동사 서술의 방법적 체계에 토대를 지어 주는 것은 물론 이 문제의 심오한 해명을 통하여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항일 해방 운동의 혁명적 전통을 선양하며 조선 로동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 분자들의 반맑스주의적 파벌 투쟁의 극악한 죄행을 철저히 폭로함으로써 오늘 우리 당 대렬의 가일층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가지는 실천적 의의도 큰 것이다.

이 과제의 해결은 문제의 본질 자체로부터 규정되여 있는 바와 같이 깊은 과학적 내용과 엄격한 당성 원칙을 요구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에 대한 문제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혁명적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문제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맑스—레닌주의 당에 있어서 그 당들의 활동의 기본적 임무로 되여 왔고 또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적 과학에 속하는 이 문제의 리론적 탐구와 과학적 해명은 특히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해방전 혁명 운동에 있어서 종파 분자들의 해독적인 파벌 투쟁으로 인하여 혁명적 당을 창건하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한 특수한 력사적 조건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 실현의 특수성을 밝히며 또 그 정책을 인식하고 그를 실천 활동에서 구현하기에 노력한 견실한 공산주의 지도적 핵심의 역할을 천명해 내야 하느니만큼 이것은 력사에 대한 력사주의적 태도와 당성 원칙의 결합을 무조건적으로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업과 요구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조선 혁명의 구체적 과정에 적용하여 창조적으로 연구함으로써만 비로소 해결되며 또한 그 해결을 올바르게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에 관한 연구는 우리 력사 학계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되여 왔으며 이러저러한 형태로 그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 로작은 매우 적으며 이 문제 연구는 제일보를 내디디고 있는 데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연구의 일부 로작들 중에는 적지 않은 결함들과 부족점들이 내포되고 있으며 심중한 오유와 리론적 착오를 발로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에 대한 연구에서 발로되고 있는 이러저러한 오유들 중에는 우리 혁명의 전통을 정확하게 파악함에 있어서 원칙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과 관련된 것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오유들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으며 시급히 시정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이 글에서 리 청원 저 《조선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1955년 과학원 출판)에서 발로되고 있는 몇 가지 원칙적인 결함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약간의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즉 여기에서 우리들이 취급하려는 문제는 20년대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문제와 30년대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사상 조직적 기초의 축성에 관한 문제들과 조선의 민족 부르죠아지의 성격에 관한 문제 및 기타 일련의 방법론적 의의를 가지는 몇 가지 문제들이다.

*　　　*

우선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 문제를 고찰하는 방법론

에 있어서 교조주의적 오유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저자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명제를 조선의 구체적 실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적지 않게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범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에로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저자는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 계급의 형성을 20년대 중엽 즉 1925년 조선 공산당 창건을 결정적 지표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조선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형성 시기가 20년대 중엽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론증하는 태도가 교조주의적이라는 것이며 또 다른 나라의 경험을 교조주의적으로 우리 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그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 형성의 중요한 징표로서 당의 존재를 보는 것은 사실이다. 당이 조직됨이 없이는 로동 계급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계급적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기 곤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반적 명제가 매개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을 떠나서 기계적으로 적용되여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시초부터 로동 계급의 력량이 민족 부르죠아지의 력량보다 강하였으며 특히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하에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로동 계급속에 급속히 전파됨에 따라 매우 빠르게 로동 계급이 정치적인 독자적 세력으로서 투쟁 무대에 진출하였었다.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전파는 로동 운동의 급속한 발전에 거대한 작용을 놀았으나 이와 동시에 소부르죠아 인테리 속에서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의 출현을 동반케 하였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상 단체》들의 출현을 보게 하였다. 이 《사상 단체》들은 맑스—레닌주의 소조로서가 아니라 맑스주의 기'발 밑에서 종파 집단으로 전락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부터 그 존재의 가치가 없는 종파 단체들이 출현하였다.

1925년의 조선 공산당은 이러한 종파 단체들을 극복하지 못한채 창건되였다.

창건된 공산당은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나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에 대한 진실로 혁명적인 볼쉐비크적인 지도를 보장하지 못하였으며 또 보장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군중 속에 지반을 가지지 못한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존재였으며 진실로 혁명적인 로동 계급의 투쟁 조직이 아니였으며 거기에 가담한 모든 종파 단체들의 활동은 우리 혁명 발전에 해독 밖에 가져 온 것이 없다. 맑스는 로동 계급이 독자적으로 력사 무대에 등장할 때 《모든 종파는 본질에 있어서 반동적인 것》(《맑스, 엥겔스 선집》 2권 445 페지)이라고 규정하였다. 바로 우리 나라에서도 모든 종파 단체들은 반동적인 역할 밖에 논 것이 없다.

물론 우리들은 25년 조선 공산당에 대하여 결코 허무주의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에 가담한 종파 단체들이 우리의 진정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과 로동 운동 및 반일 민족 해방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방법론 즉 변증법적 유물론은 리론과 실천의 통일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로동 계급의 리익의 립장에 튼튼히 선 당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저자가, 진정한 맑스—레닌주의 당이 아니였으며 또 결국에 가서 종파 분자들의 파벌 투쟁으로 인하여 해체된 25년 조선 공산당을 조선에서의 진정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정당으로 평가하면서 로동 계급의 형성의 징표를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로동 계급의 리익을 위한 당적 립장이 아니며 여기에서 범하고 있는 교조주의는 단순한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교조주의가 아니라 당적 립장과 유리된 방법론에 의거하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저자의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는 우리 나라 로동 운동이 30년대에 와서 무장 투쟁의 형태를 취하게 된 리유를 설명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로동 운동에서의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에 관한 이.브.쓰딸린의 명제 (쓰딸린 저작집 5권 《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전략과 전술에 관하여》 참조) 들을 거의 그대로 인용부 없이 서술하고 30년대의 로동 운동이 무장 투쟁 형태를 띠게 된 객관적 조건은 일제의 가혹한 파쑈적 탄압, 주관적 요인은 우리 로동 계급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장성 성숙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동서 216 페지 이하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 명제로서는 우리 나라 로동 운동의 질적 비약성이 설명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는 로동 운동이 폭동적 형식을 취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도 무장 투쟁의 형태를 취하게 될 필연성은 설명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는 절대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진행한 항일 무장 투쟁이 우리 혁명 운동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다는 것이 설명될 수 없다. 즉 이것으로서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출현 없이도 무장 투쟁이 가능하였다는 결론 밖에 나올 것이 없을 것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도외시하고 있다. 즉 그것은 첫째로 우리 로동 계급이 력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맑스—레닌주의로 무장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를 받게 되였다는 것, 둘째로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 핵심의 출현은 종래 각종 종파 단체들에서 떠들던 비속화되고 실천과 유리된 공론들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진정한 맑스—레닌주의가 위대한 쏘련 및 중국을 통하여 우리 로동 계급에게 전파되였으며, 대중 투쟁의 무기로 되기 시작하게 된 결과라는 것, 세째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미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위대한 쏘련의 원조와 원쑤들과의 가혹한 투쟁에서 훈련 장성되여 혁명의 령도권을 쟁취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원조가 있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모든 조건들이 조선과 쏘련의 접경 지대인 중국 동북 지방에서 가장 유리하게 조성되였다는 것 등등이다.

이와 같이 저자는 이 문제 해석에서 문제를 단순화하고 특히 국제적 원조와 주관적 요인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지도자들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는 데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30년대 투쟁의 질적 특색을 정확하게 파악함이 없이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가 어떻게 실현되였는가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 로동 계급의 형성을 위하여서는 당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25년 공산당의 존재를 주요하게 내세우던 저자는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 수립에서는 당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장 투쟁과 《조국 광복회》의 존재에 대하여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완전히 형식주의에 떨어지고 있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리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맑스—레닌주의적 새형의 당 창건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형식상 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이 없이 무장 투쟁과 《조국 광복회》의 운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의 실현도 불가능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국제당과의 긴밀한 련계하에서 조선에서의 새로운 형의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 사업을 빛나게 수행해 나갔다. 즉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면서 일국 일당의 원칙에 립각하여 당 조직을 체계적으로 조직 확장하였으며 당 생활을 강화하였으며 당성을 단련시키며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왔던 것이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당 조직을 가지였으며 또 통일적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사상적, 조직적 및 전술 전략적 기초를 구축하는 투쟁 없이 조선의 로동 계급의 헤게모니는 절대로 실현되지 못하였을 것은 의심할 여지 없다. 그러나 저자는 바로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 실현의 문제를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당 창건의 투쟁과 분리하여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는 민족 부르죠아지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자기 저서의 도처에서 민족 부르죠아지와 예속 부르죠아지의 개념을 분간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저자는 타협적 민족 부르죠아지 또는 예속적 민족 부르죠아지라는 용어와 민족 부르죠아지의 타협적 부분 또는 예속적 부분 등으로 민족 부르죠아지와 예속 부르죠아지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으며 결국 민족 부르죠아지의 개념은 민족 부르죠아지와 예속 부르죠아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속 부르죠아지와 민족 부르죠아지는 그들이 노는 역할이 전연 상반된다. 원래 민족 부르죠아지의 개념은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나온 것인 데 예속 부르죠아지는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에 추종하여 자기의 민족적 립장을 망각한 부르죠아지로서 민족 부르죠아지 보다도 오히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민족 부르죠아지의 개념에 예속 부르죠아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리 승만 도당들에 의하여 대표되는 남반부의 예속 부르죠아지를 민족 부르죠아지의 범주 속에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을 제기한다면 이 두 개념이 도저히 혼동할 수 없는 각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저자는 민족 부르죠아지에 대한 개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 부르죠아지에 대한 로동 계급의 당의 정책에 대하여서는 더욱 커다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저자는, 때로는 민족 부르죠아지와 로동 계급이 농민 쟁취를 위하여 투쟁하기 때문에 민족 부르죠아지를 고립시켜야 되는 것같이도 쓰고 있으며 (동서 202 페지) 어떤 때에는 예속 부르죠아지를 고립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서 289 페지 참조).

이와 같은 혼란은 민족 부르죠아지의 개념을 명확히 가지지 못하는 데서 뿐만 아니라 1905년 로씨야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에 관한 레닌의 로작을 교조주의적으로 우리 혁명에 도입하려는 데서 기인되고 있는 듯 하다. 일제와 야합한 예속 부르죠아지는 일제와 같이 직접 타도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며 그의 중립을 보장하도록 고립시킬 대상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고립 정책은 전술적 조치로서, 가령 타도하기 위하여서도 우선 고립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혁명의 대상이 아닌 세력을 어떻게 고립시키겠는가 하는 문제에만 국한시켜서 고립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저자는 예속 부르죠아지를 민족 부르죠아지로부터 구분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민족 부르죠아지를 어떤 시기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민족 부르죠아지가 혁명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혁명의 대상이 아닌 세력을 꼭 고립시킬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로씨야 제1차 혁명에서 부르죠아지를 고립시킨 것은 로씨야의 부르죠아지가 로동 계급과 혁명의 령도권을 다투었기 때문인 것이

다. 만약에 민족 부르죠아지가 로동 계급과 혁명의 령도권을 다툴 정도로 강하지 못하며 로동 계급이 이들을 능히 전취하여 그의 령도하에 혁명에로 동원할 수 있을 때에는 민족 부르죠아지를 고립시키는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전취하며 그와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 수립 이전이나 이후이나 동일하게 로동 계급과 민족 부르죠아지와의 관계를 취급하고 있다. 저자의 이와 같은 견해는 특히 《신간회》에 대한 문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신간회》를 조선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반제 통일 전선 조직으로서 많은 점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놀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서 159 페지 참조).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가 수립되지 못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적 당의 지도가 결여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 전선을 민족 단일당의 형식으로 형성하려고 한 《신간회》가 시초부터 옳지 못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저자는 《신간회》 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헤게모니를 강화하지 않고 그를 해산한 것은 잘못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25년 공산당을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간주하는 조건하에서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의 사상적, 조직적 및 전술 전략적 기초가 확립된 조건하에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광범히 조직되였던 《조국 광복회》와 《신간회》를 동일한 통일 전선체로서 볼 수는 도저히 없다. 《신간회》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민족 통일 전선에 대한 비속화이며 민족 부르죠아지에 대한 교조주의적 견해의 표현이다.

저자는 일제와 타협한 예속 부르죠아지는 고립시키며 민족 부르죠아지와는 무조건 동맹하여야 된다는 그릇된 견해로부터 출발하면서 마치 예속적 부르죠아지의 일제와의 타협은 로동 계급의 헤게모니를 위하여 필수적 조건인 듯이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자기 저서 2장 5절에서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 실현의 전제 조건의 급속한 성숙을 서술하면서 《타협적 민족 부르죠아지의 일제와의 야합의 로골화》 (동서 201 페지 이하)를 주요한 조건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1931년 5월의 신간회 해소 투쟁은 조선에서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간의 일대 격전이였으며 이 투쟁 과정에서 부르죠아지는 패배 당하였다》 (동서 206—207)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마치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실현의 조건이 성숙된 징표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저자의 민족 부르죠아지에 대한 견해와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에 대한 리해가 얼마나 교조주의적인가를 잘 표현하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조주의, 형식주의적 태도를 몇 가지 지적하면서 반드시 언급하여야 할 것은 고전에 대한 태도이다. 저자는 자기의 문장의 상당한 부분을 고전과 기타 문헌들로부터 취하고 있는 데 그중 많은 것이 고전들을 인용부 없이 저자의 글로서 쓰고 있는 것이다. 가령 제2장 제2절 《일제하 조선 프로레타리아트가 해결하여야 할 혁명의 제 과업》에서는 쓰딸린의 중국 혁명 문제에 대한 로작 중에서와 모 택동 동지의 《중국 혁명과 중국 공산당》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야비하게도 국내 학자의 저작에서도 표절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맑스—레닌주의 과학을 연구하는 학도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초보적 규범을 무시한 견실치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몇 가지 방법상 문제에서 나타난 결함을 지적하고 저서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간 상세히 언급하려 한다.

* *

20년대 조선의 로동 운동을 서술함에 있어서 저자가 범하고 있는 많은 결함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20년대 로동 운동에서 종파가 끼친 해독성을 옳게 폭로 비판하지 못한 점이다.

물론 저자는 종파의 해독성을 비판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저자의 모든 론리가 매우 애매하고 자가 동착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명할 구실을 줄 수 있다. 우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때는 민족 부르죠아지와 예속 부르죠아지를 가르키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을 가르지 않고 쓰고 있다. 그리고 1925년 당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그것이 마치 맑스—레닌주의 보급에 있어서 큰 역할을 논 것같이 서술하고 있으며 어떤 때는 《무정형한 집합체》 (동서 154 페지) 라고 하면서 그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많은 추상적 어구들과 사실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결국 20년대 로동 운동을 과대 평가하며 특히 종파들이 끼친 해독성을 폭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는 《엠엘파》의 죄악을 폭로하지 않고 있다.

저자는 1925년의 조선 공산당을 과대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1925년 당 창건은 혁명 운동의 새 시기로의 이행을 의미하였으며 조선에 있어서의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급속한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동서 151—152 페지 참조) 라고 쓰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장성된 로동 운동의 객관적 반영으로서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이 창건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당은 대중적 기반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주로 소부르죠아 인테리들로서 구성되어 있었고 국제 공산당의 지도와 방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파 분자들의 파벌 투쟁에 의하여 진정한 로동 계급의 당으로는 발전하지 못한채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였다.

1925년 조선 공산당에 참가한 종파 분자들은 로동 계급의 대중적 투쟁을 옳게 지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속히 앙양되고 있던 로동 운동에 기초하여 당이 창건되고 맑스—레닌주의가 대중 속에 깊이 침투하여 가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문제를 본다면 1925년에 창건된 공산당은 비록 그것이 장성된 로동 운동의 반영이기는 하였으나 종파 분자들의 파벌 투쟁 때문에 로동 운동을 지도하지 못하고 해산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1925년 조선 공산당 창건을 《맑스—레닌주의 보급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사회주의 선전에 리용된 첫 합법적 출판물들인 《신 생활》, 《조선지광》이 마치 《맑스—레닌주의 강령 원칙》(동서 117 페지)을 전파한 듯이 과장하고 있다. 이것은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나라에 전파된 사실과도 전연 부합되지 않으며 사상 발전의 합법칙성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한 출판물들이 아직 맑스—레닌주의의 강령 원칙을 선전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다. 례컨대 《신 생활》 창간호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예수교의 교리와 일치되는 것같이 서술되여 있지 않았던가! ※

※1922년 3월 15일 창간된 《신 생활》 창간사에서 주필(김명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썼다. 즉 자연계에서 새나 물'고기가 자유롭게 사는 것은 물건을 사유하지 않고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예수교의 교리와 일치된다고 쓰고 있다. 《그 리유는 과연 어데 있나뇨, 他 아니라 自然界에 在한바 大自然의 물자를 各히 私藏치 아니하고 이것을 저들이 總히 共有로 하여 各히 必要한 時에 必要한 것을 임의로 수용하는 까닭이니 이 말은 일즉 야소의 절규한 것이로다》 (《신 생활》 창간호 4 페지).

뿐만 아니라 이 출판물은 부하린이나 뜨로쯔끼같은 기회주의자들의 리론을 선전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무정부주의자인 크로뽀르킨의 리론도 광범히 선전하였다.

1927년 2월에 잡지 《조선지광》에는 《新語解釋》이라는 표제로 례컨대 정치 투쟁이란 무엇인가, 당이란 무엇인가라는 등에 관한 해설들이 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부하린과 지노비예브의 말을 인용하면서 반맑스주의적 리론을 류포시키고 있다.

이러한 출판물들에는 로동 계급의 계급 의식을 각성시키며 원수들에 대한 투쟁 의식으로서 근로 대중을 교양하는 그 어떠한 문구조차도 찾아 볼 수 없다. 여기에는 전체가 파벌 투쟁을 목적한 공론 뿐인 것이다.

저자는 또한 《엠엘파》의 기관지였던 《대중 신문》, 《리론 투쟁》을 당 기관지로서 묘사하면서 《이 출판물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 잡지로서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전파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놀았다》 (동서 136 페지) 고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출판물들이 끼친 해독성에 대하여 폭로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소위 《방향 전환론》을 긍정적이며 합법칙적 현상인 듯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방향 전환론》이 제기된 것은 《화요파》, 《서울파》, 《북풍파》 등의 파벌 투쟁이 《로동 운동 내의 기회주의적 신조인 정치 운동을 부인한 <경제주의>의 강화와 민족 개량주의자들의 <자치 운동> 이 대두하게 된 좋은 조건》(동서 154 페지)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사태는 필연코 1926년 말부터 《분산으로부터 통일에로》, 《자연 발생적인 조합 운동으로부터 목적 의식적인 정치 운동에로》 라는 구호하에 《사상 단체 해체》, 《파벌 박멸》, 《자치 운동 배격》, 《정치 운동 시인》, 《민족 단일당 결성》 이라는 구호를 낳게 하였으며 《방향 전환론》이 대두하게끔 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방향 전환론》의 《구호들은 정당》 하고 《리론적으로 정당》 (동서 157 페지) 한 데 오직 실천적으로만 옳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저자는 《조선 로동 계급이 자기 자신의 투쟁 과정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려는 요구가 현실적으로 제기된 것은 1926년 말의 <방향 전환론>에서 그 단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운동은 조선 로동 계급이 자기의 계급적 장성에 따라 로동 운동과 사회주의를 결합하려고한 것이였다》 (동서 174 페지)고 주장하고 있다.

《방향 전환론》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요구되는가? 이것은 오직 조선 로동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준 각종 종파 그루빠들, 특히는 《엠엘파》 종파 분자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데만 요구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파 그루빠들은 그들의 반맑스주의적 파벌 투쟁에 대한 대중의 증오와 계급 의식에 각성된 대중들의 밑으로부터의 반종파적 열정 및 종파 종식에 대한 팽배한 기분을 역리용하여 《파벌 박멸》이라는 기'발 밑에 숨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종파 분자들은 추악한 자기의 범죄적 죄과를 새로운 외의(外衣)로 분장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당시 일본 로동 운동에서 류행하였고 또 일본 로동 운동에 큰 해독을 끼친 기회주의 리론이였던 소위 《후꾸모도주의》가 제창하는 《방향 전환론》,

《단결하기 전에 깨끗이 분리하라》, 《혁명적 결합은 리론 투쟁으로부터》, 《경제 투쟁에서 정치 투쟁으로》라고 부르짖은 것을 기계적으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후일 《엠엘파》의 핵심 성원으로 된 동경 《1월회》가 이들의 수'법을 《직수입》하였으며 《화요파》의 《정우회》도 이를 부르짖었으며 나중에는 《엠엘파》가 당내 《헤게모니》 쟁취를 위하여 이 기'발을 리용하였던 것이다. 《엠엘파》는 《방향 전환론》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들의 주장이 《맑스—레닌주의 보급에 다대한 공》이 있는 듯이 선전하였던 것이다.

저자가 찬양하려는 《대중 신문》, 《리론 투쟁》은 바로 《엠엘파》의 선전 출판물로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공헌》보다도 그를 비속화시켰으며 조선 혁명의 당면 문제를 선전하며 또는 공산주의 대렬의 통일을 위하여는 복무되지 못하였다. 이 출판물들은 로동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한 것이 아니라 파쟁의 도구로 리용되였다. 이 출판물들에는 로동 계급의 계급 의식을 제고시키며 그들을 맑스—레닌주의적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글들이란 없으며 로동자, 농민들을 위한 기사란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다. 모든 기사는 전부 종파 분자들의 공론 뿐이며 그 추상적 리론조차 교조주의와 비맑스주의적인 판단으로써 시종일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실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견해나 립장이 《엠엘파》의 종파적 립장을 옹호하는 데로부터 흘러 나온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서울, 화요, 북풍파 등은 지적하였으나 《엠엘파》에 대한 본질적인 분석은 주지 않고 있으며 《엠엘파》가 당의 《헤게모니》 쟁취를 위하여 감행한 보다더 간교한 반당적 죄행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로동 계급의 진출이 현저히 강화되여간 시기에 새로이 규합된 《엠엘파》는 사상 령역에 있어서 반맑스주의적 리론을 퍼뜨리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상으로는 당중당인 《엠단》을 핵심으로 하여 공산주의 대렬 내의 비렬음흉한 종파 활동의 지반을 꾸미였다. 최 창익, 한 빈 동을 주장(主將)으로 한 《엠단》은 《당의 협동》, 《당의 통일》이라는 구호 밑에 당 내외에서의 분렬을 더 건져 낼 수 없는 상태에까지 몰아 넣었으며 오직 《당내 헤게모니》를 위하여서는 동지들을 타격하고 심지어 조선 로동 운동에 주는 국제 공산당의 원조와 지도를 양봉음위(陽奉陰違)하였다. 이와 같이 《엠엘파》가 조선 로동 운동 발전에 끼친 해독은 실로 막대한 것이였다.

저자는 《신간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저자는 《신간회》가 로동자, 농민, 혁명적 인테리, 중 소 민족 부르죠아지의 혁명적 쁠럭이라고도 보았으며 또는 《통일 전선을 지향》하였고 《당적 형태를 띠였으며》(동서 158—159 페지 참조) 《조선에서 처음으로 반제 통일 전선 조직으로서의 신간회》(동서 159 페지)는 공산주의자들이 《민족 단일당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지하여 그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동서 158 페지) 라고 쓰고 있다.

저자의 견해는 《신간회》가 어쨌든 혁명적 쁠럭 혹은 민족 통일 전선이였다는 것, 당이 지도하였다는 것, 《신간회》는 당적 형태 즉 민족 단일당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엠엘파》 계통의 종파 분자들이 소위 《방향 전환론》을 주장할 때에 《분산으로부터 통일에로》라는 구호를 들었다. 이 때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구호는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이 로동 계급의 대중 투쟁에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파들이 《엠엘파》 중심으로 뭉치는 종파들의 통일을 의미하였으며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을 의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의 구호는 맑스—레닌주의 당의 전략 전술과는 하등의 공통성이 없는 비맑스주의적인 로선이였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마치 맑스—레닌주의 당의 전략 전술의 하나로서 통일 전선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이것은 오직 《엠엘당》이 진정한 맑스—레닌주의 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외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엠엘파》 종파 분자들이 마치 어떤 맑스—레닌주의적 정치 로선이나 가지고 있은 것같이 미화하려는 옳지 않은 견해이다. 《신간회》 자체가 민족 개량주의자들의 단체이였으며 개량주의적 성격을 띤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의 단체이였다.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서 생각하다가 좌우경적 과오를 범하는 것 하고, 전연 당이라는 개념을 옳지 않게 생각하는 기초 우에서 나온 오유와는 동일시 할 수 없다. 종파 분자들이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장은 곧 《신간회》와 같은 개량주의 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주장이였다. 그러나 저자는 마치도 《엠엘파》가 레닌주의적 립장에서 《통일》을 주장하였고 심지어는 《통일 전선》과 같은 발전된 전술을 취할려고 하다가 당을 《신간회》에 해소시키는 우경적 오유를 범한 것같이 사실을 외곡하고 있는 것이다. 《신간회》야말로 당시 종파 분자들의 《과오》인 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의 가면을 쓰고 로동 운동 내에 기여 들었던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인테리들이 자기의 본질을 폭로한 것이였다. 조선의 로동 계급을 기만하여 민족주의적 단체의 지배하에 로동 계급을 끌어 들이려고 한 종파 분자들의 죄악을 폭로할 대신에 그들이 마치 로동 계급을 위하여 《통일 전선》을 형성하려고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력사적 사실에 대한 날조와 기만에 불과한 것이다.

이 당시에 종파 분자들은 로동 계급과 농민의 투쟁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로동 계급의 령도권을 수립하는 문제는 전연 생각지도 못 하였을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이들의 립장은 전연 로동 계급의 립장이 아니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신간회》에다 해소시키려 한 것이다. 따라서 시초부터 《엠엘파》의 립장은 소부르죠아적 립장에 서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당이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당이 아니였으며 따라서 로동 계급의 계급적인 독자적 정책을 내세우지조차 못 하였던 사실을 전혀 도외시하고 《신간회》가 《통일 전선》이요, 《단일당》이요 하면서 요란스럽게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의 용어를 쓰는 것은 본질상 《엠엘파》의 종파적 활동을 합리화하는 것이며 그들의 소위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밖에 안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엠엘파》는 리론상으로는 《방향 전환론》을 미끼로 《신간회》를 통하여 《통일 전선 사업》을 전개한 것처럼 떠들어 대면서 다른 파는 파쟁에만 몰두하였으나 자기 파만은 혁명 운동에 일정한 역할이 있은 듯이 오래'동안 류포시켜 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주고 있는 《방향 전환론》, 《신간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대중 신문》, 잡지 《리론 투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모두 반맑스주의적 《종파 유익설》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저자는 20년대의 종파들의 해독성을 신랄하게 분석 비판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파 분자들의 본질을 애매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종파 발생의 주객관적 조건들을 분석하는 데서도 발로되고 있다.

저자는 조선에서 맑스주의 크루쇼크들이 모두 《사상 단체》인 듯이 묘사하면서 이것들이 혁명 진영 내에 종파를 발생케 한 매개체였으며 그의 온상이였다고 쓰고 있다(동서 164—166 페지 참조).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의 급속한 전파에 따라 우리 나라의 산업 중심지들에 조직된 맑스—레닌주의 소조 또는 맑스—레닌주의 연구 소조들은 서울에만 집결되여 종파 단체로 된 소위 《사상 단체》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10월 혁명의 영향하에서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가 전파되기 시작하자 각 지방에서는 여러가지 명칭을 띤 맑스주의 크루쇼크들이 수다히 발생하게 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크루쇼크들을 종파적 단체로서 규정할 수 없다. 이 단체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전파시키며 로동 계급을 각성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놀았던 것이다.

우리가 종파 단체로 부르는 《사상 단체》들은 전연 이와 같은 맑스—레닌주의 크루쇼크들과는 성질이 다르다. 《사상 단체》로 불리워지고 있는 각종 종파 단체들은 시초부터 반맑스주의적이였으며 기회주의적이였다. 따라서 종파 단체와 맑스주의 연구 소조 또는 크루쇼크들을 동일시하며 종파 발생이 불가피적 현상인 것같이 묘사하는 것은 종파 분자들의 죄악을 합리화하며 20년대 로동 운동을 전부 종파 분자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려는 《종파 유익설》의 한 류형이라고 볼 수 있다.

20년대는 우리 나라에서 로동 계급이 급속히 장성되여 간 시기였으며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나라 로동 운동 속에 전파되였으며 그것이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의 전략 전술로 될것이 절실히 요구된 시기였다. 20년대의 로동 운동에서 나타난 종파 분자들은 맑스주의자가 아니였으며 로동 계급의 이데올로그들도 아니였다. 이들은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인테리들과 몰락된 량반 출신 인테리들이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낡은 것을 다만 새로운 맑스—레닌주의 간판으로 음페하고 대중을 기만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종파 분자들의 해독은 우리 나라에서 급속히 장성하여간 로동 운동을 분렬시키였으며 로동 계급 속에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의 전파를 저해하였으며 진정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방해한 데 있는 것이다.

* *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를 위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보여 줌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일 무장 투쟁 단계에로의 민족 해방 운동 발전의 력사적 필연성과 그의 합법칙성을 론증하면서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해결된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의 확립, 조선 혁명 수행에 대한 정확한 정치 로선과 정책들의 강구 실시, 혁명 운동의 대중적 지반의 확대 강화를 위한 실천적 투쟁 등을 통하여 새형의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사상 조직적 준비 과정을 론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년대의 종파의 극악한 해독성을 청산하기 위해서와 혁명 운동에 대한 온갖 좌우경 기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 프로레타리아트로 하여금 진실로 조선 혁명의 령도적 계급으로 단련되게끔 한 견실한 조선 공산주의 력량의 장성과 그 집결 과정, 그의 실천적 활동을 구명하는 데 돌려야 할 것은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지도적 핵심인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활동을 불충분하게 취급하였으며 소홀히 하였다. 저자는 우선 저서의 핵심적 부문인 제3장을 전체의 4분의 1 밖에 주지 않았다. 물론 분량이 문제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에게 있어서는 이는 이 부문이 차지하여야 할 그 중요성으로 보아 형식주의적인 태도의 발로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자기의 방식화에 근거하여 개별적 사실들의 론증에 치우치고 있는바 무장 투쟁, 유격 근거지 내의 정권, 민족 통일 전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문제의 론증에만 급급하였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견

해로는 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의 하나는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 정책을 실현하게끔 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조직체의 결성 과정, 다시 말하여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을 통하여 반드시 해결되여야 하였을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이 시종 관철되도록 보이여 주어야 할 것이였다는 그 점이다. 이것은 왜냐 하면 맑스—레닌주의 혁명적인 전략과 전술을 실현하는 데 준비된 전형적 조직체인 당에 대한 문제의 구명이 없이는, 그러한 혁명적 당 창건을 위한 투쟁 문제를 본질적으로 전개하지 않하고서는 헤게모니 정책에 대해서, 헤게모니의 수립에 대해서 말할 수 조차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도 개개의 문구들에서 당 창건 과업이 무장 투쟁과 결부되게 되였다는 것, 통일 전선 형성이 당의 창건 준비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였다고 지적은 하고 있다 (동서 214 페지, 252페지 참조).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말로서 언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30—40년대의 조선 로동 운동을 관찰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 사상으로 관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혁명 운동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실현의 전제 조건의 급속한 성숙》(동서 174—211 페지)에서나 《1930년대 조선에서 무장 투쟁이 일어나게 된 조건들》(동서 213—228 페지)에서 무장 투쟁에로의 이행의 주객관적 조건 (동서 217—221 페지)을 고찰하였으나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을 일반화하며 그에 의식성을 부여하는 임무의 담당자인 견실한 공산주의 력량의 장성을 지적하지 않았으며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출현은 그저 구호와 같이 우연한 현상으로 제기하고 있다.

30년대의 계급 투쟁의 새로운 조건에서 혁명 력량 배치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통찰과 대중 운동의 구체적 형태를 일반화하여 그것을 목적 의식적인 무장 투쟁 단계로 제고시키는 데는 20년대의 혁명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반당적 종파 세력을 반대하여 그를 극복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핵심적 력량이 없이는 또 그 력량의 장성 발전을 보이지 않고는 력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 일성 동지와 그의 전우들을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활동의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온갖 종파적 경향과 기회주의와의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공산주의 진영 내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헌신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온갖 비속화의 경향과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조선 혁명의 구체적 실천에 맑스주의 리론을 결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투쟁을 통하여 민족 해방 운동의 최고 형태인 항일 무장 투쟁 단계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분석은 없이 일제의 파쑈 폭압과 국내 운동의 폭동화의 조건들을 가지고 투쟁 형태의 이행 문제를 형식주의적으로 정식화하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며 본질적인 점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옳게 해명해야만 김 일성 동지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투쟁 방침이 명확히 천명되는바 저자는 이와 같은 설명이 없이 30년대 정세가 당 창건을 요구하였다는 것으로서만 (동서 213 페지) 문제를 끌어 가고 있을 뿐이다.

무장 투쟁을 로동자, 농민들의 대중 운동과 긴밀히 결합시키고 정치적 및 경제적 투쟁 구호를 결부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자체의 사상 조직적 단련 강화 과정과 떼여 놓을 수 없었다. 이에 있어서 사상 령역에서의 투쟁은 좌우경을 반대하는 《량조 전선》에서 심각히 전개되였는바 이 《량조 전선》이야말로 혁명 앞에서의 동요와 투항을 반대하여 또한 국제주의 원칙을 리탈한 협애한 민족 배타주의적 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한 것이였으며 조선 혁명 투쟁에 있어서의 소부르죠아적 동요를 극복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확고한 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상 투쟁이였다. 또한 그것은 관문주의를 반대하며 통일 전선을 거부하려는 좌경 기회주의와의 투쟁이기도 하였다. 《량조 전선》 투쟁의 전개는 혁명 진영 내의 종파적 해독 분자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되였던 것이며, 례컨대 《민생단》과 같은 간첩 파괴단을 박멸할 수 있게 한 사상적 투쟁이였다.

종파를 종식시키며 공산주의자들의 원칙적인 통일을 전제로 하여서만 공산주의적 핵심 력량을 조직화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반종파 투쟁의 실천적 활동을 보여줌이 없이 어떻게 대중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에 대하여 운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저자는 사실의 론증과 천명이 없이 《종파의 대립 투쟁의 악독한 영향은 청산되게 되였다》(226 페지)고 단언하기만 하였다. 이는 빨찌산 투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가장 주되는 투쟁의 측면에 대한 얼마나 심한 과소 평가인가, 이렇게 되다나니 빨찌산 활동은 개선 행렬식으로 되여 나갔으며 국내 운동에서는 《종파적 해독》이 물로 씻은듯이 사라지고 만 것으로 되였다. 과연 그렇게는 서술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저자는 30년대에도 악독한 종파 행동을 계속 감행한 각종 그루빠들을 외면하였지만 력사적 사실은 있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대중의 선두에 나선 그때에 있어서도 각종 종파 그루빠들은 《공산주의자 협의회》(엠엘파), 《당 재건 준비 위원회》(화요파), 《당 재건 공작 위원회》(서상파)라는 간판을 걸고 무엇을 감행하였는가?

그들은 당 재건이란 명목 밑에 결국은 파쟁을 연장하였으며 혁명의 리익보다 자기파의 리익을 더 높이 내세우지 않았는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반맑스주의적 종파 분자들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그 행로에서 사상 의지 행동의 통일을 성취하였으며 강철의 대오로 육성 단련되였던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가 20년대에 실현될 수 없었던 주되는 리유가 종파의 해독성에 있었다면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를 현실적으로 수립한 30년대는 종파를 극복 청산해 나간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이 실천적 투쟁의 측면을 높이 천명하여야 될 것이 자명한 것이 아닌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적인 단련 과정을 보여 주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자는 무장 투쟁 과정에서 발전 공고화되여 나간 공산주의자들의 조직——당 단체, 공청 및 군중적인 외곽 단체들과 통일 전선 조직으로서의 《조국 광복회》와 그의 국내 조직인 《민족 해방 동맹》——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김 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한 혁명 운동의 지도적 핵심의 령도하에 이룩된 내외 혁명 력량—공산주의 력량의 전일화 과정을 천명하는 것이 매우 미약하였다. 저자는 결국 헤게모니 실현의 조직체로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조직 확대된 당 단체들의 확대 발전, 통일 전선 조직의 출현 과정과 그 확대 강화를 본질적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무장 투쟁 과정을 당 단체의 건설 과정과 분리시킬 수 없는 동시에 대중을 조직 집결하며 그를 통일 전선에 결속시킴에 •있어서의 당적 조직의 확대와도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무장 투쟁이 전개된 일대에서 가능한 모든 력량을 다하여 당 단체들을 확장하여 당원들과 간부들을 훈련 교양하였으며 그 영향하의 군중 단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련계를 상시로 보장하였다. 이 간고한 투쟁 행로에서 각계 각층 인민을 망라한 통일 전선 공작이 준비 진행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조국 광복회》를 창건해 낼 수 있었다.

《조국 광복회》의 창건은 문'자 그대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조선 혁명 운동을 지도하는 중요한 공간을 창출한 것이다. 국제 반파쑈 인민 전선 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였고 조선 혁명의 구체적 전개에 가장 적응한 이 통일 전선의 실현은 조선 민족 해방 투쟁을 계속 성장 발전시키며 단련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집결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무기를 주었던 것이다. 실로 《조국 광복회》가 창건되던 30년대 중엽에 항일 빨찌산 부대의 국경 대안——장백 지구 진출은 거대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조국 광복회》 (국내에서는 《민족 해방 동맹》)를 통해서 수행된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의 혁명 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하는 데 커다란 기여였으며 또 이 투쟁 행정에서 단일한 강령으로 그 의지 행동의 유일을 기하게 된 공산주의 그루빠들의 통일과 결합 과정이야말로 혁명적 당 창건의 조직적 준비의 주되는 부면의 하나로 되였던 것이다.

이러한 력사 발전 과정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가 여하히 수립되였는가가 더 명백히 론증될 수 있는 바 이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조국 광복회》 강령에 대한 분석인 것이다.

저자는 이 강령이 《당의 전술적 제 원칙》(동서 248 페지)의 준비라고 지적하고는 있다. 그러나 저자는 10대 강령과 같은 혁명적 강령의 완성이 공산주의 운동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지적하지 않았으며 이 강령이 어떤 전술적 원칙을 천명한 것이며 그것이 프로레타리아트 령도하의 조선 민족 해방 투쟁에 주는 의의가 어떠하였는가를 심오하게 리론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강령은 30년대의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제 관계의 과학적 판단에 기초하면서 조선 프로레타리아트 앞에 제기된 반제 민주주의 혁명의 당면한 임무를 과학적으로 정식화한 것이였으며 이에 있어서 강령의 기본 전술적인 원칙은 부르죠아 민주 혁명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 사상으로 일관되여 있는 것이며 반제 민족 해방 운동 단계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요구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의 조선에서의 구체적 적용을 심오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강령의 작성 및 그 전파가 혁명 운동 진영을 통일하며 그 력량을 강화시키는 데 준 실제적인 면들을 더 보여 주어야 했다고 본다. 실로 《조국 광복회》 강령은 모든 혁명가들에게 실천에 있어서의 지침이였으며 혁명 로선에 대한 온갖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며 그들의 정치적 계급적 의식을 제고하며 종파 분자들과의 사상 조직적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함에 있어서의 강력한 무기로 되였었다. 강령의 작성은 그 자체가 종파 분자에 대한 큰 타격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김 일성 동지와 그 전우들의 지도하에서 민족 해방 운동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의 요구가 실현되여 나갔는바 그 실현은 혁명적 당 창건을 위한 사상 조직적 준비 투쟁과의 심오한 결부가 없이는 도저히 서술될 수 없는 것이다.

항일 무장 투쟁의 전 행정은 공산주의적 핵심의 접결 단련 과정이였으며 대중과의 련계의 부단한 강화 과정이였으며 유일한 규률로 결속된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의 강화 발전 과정이였다. 빨찌산 투쟁 형태를 통하여 로동 운동, 농민 운동을 그에 결합시키면서 조선 혁명을 통일적으로 지도한 이 영광스러운 행로는 아직 통일된 맑스—레닌주의 당은 조직된 형태로 존재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사상 조직적 및 전술적 준비는 구축된 것으로써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혁명적 전통을 밝혀 주는 관건이 있다고 보며 이것을 떠나서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 문제의 론의는 형식적이라고 본다.

기본 관점으로부터 일탈하고 있는 저자는 《항일 무장 투쟁의 성격》을 론하면서 문제의 일면적인 고찰을 하고 있다. 저자는 《중국 공산당의 무장 투쟁은 곧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하에서의 농민 전쟁이다》라고 한 모 택동

동지의 말을 인증하면서 《조선에서의 유격 투쟁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하에서의 농민을 주력으로 한 인민 대중의 무장 투쟁이며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라고 하는 것은 곧 공산주의자들의 령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농민을 주력으로 한 유격 투쟁과 공산주의자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곧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관계인 것이다.》 또 《이는 동시에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이 형성되면서 있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바로…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가 수립되여 가면서 있다는 것을 의미…》 (229 폐지)하며 《무장 투쟁은 이 모든 과업을 해결하는 근본적 고리였기 때문에 결국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실현의 공간으로 되였다》 (동서 230 폐지)라고 썼다.

저자가 강조하는 관점은 무장 투쟁이 실질상 농민 전쟁이라고 한 지적을 무장 투쟁을 지도한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요, 무장 대오의 구성의 주력이 농민이였기 때문인 것으로 리해하는 모양이다. 저자의 이러한 도식은 중국 혁명의 구체적 특성으로서 모 택동 동지가 지적한 통일 전선과 무장 투쟁에 대한 규정의 비속화된 수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 택동 동지는 당과 농민과의 관계의 본질적 면에서 무장 투쟁을 농민 전쟁으로 지적하였던 것이나 그 지적에서는 결코 무장 대오가 농민으로 구성되여 있다고 하는 것을 주요 리유로 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무장 투쟁을 실질상 농민 전쟁이라고 한 것은 중국의 구체적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무장 투쟁이 곧 프로레타리아트 령도하에서의 농민의 토지 혁명 투쟁》 (《모 택동 전집》 제2권, <하> 34 폐지, 당 출판사판)임을 의미하여서였다. 이것은 중국의 력사적 및 사회적 정형, 중국 혁명의 특성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였다.

저자가 모 택동 동지의 말을 비본질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우리 혁명과 중국 혁명이 띠고 있는 구체적 차이를 엄밀히 분석함이 없이 항일 무장 투쟁은 곧 농민 문제 해결의 공간으로, 로농 동맹의 표현으로만 규정하려는 것은 일면적인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의 견해를 그대로 따른다면 무장 투쟁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의 농민 운동이였다는 결론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농민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동맹의 표현은 무장 대오의 성원이 농민이였다는 그것으로써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장 투쟁 형태를 로동자, 농민 및 광범한 인민들의 각종 투쟁 형식과 배합시키며 민족 해방 투쟁에서 농민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정확히 표현한 로선과 정책의 강구, 특히 강령상 요구에 그를 직접 반영시킨 그와 같은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자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프로레타리아트 헤게모니 수립의 행정을 분석함에 있어서의 결함들은 본질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이러한 결함의 퇴치는 당성 원칙 우에 서서 력사를 옳은 관점에서 서술해야 할 정확한 사상 관점부터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저자의 이 본질적 결함은 그가 20년대의 로동 운동사를 외곡하고 있는 것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

끝으로 몇 가지 문제를 더 지적하려고 한다. 저자는 전거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을 묘사함에 많은 자료를 도입하였다. 그는 《목포지》를 인용하여 초기 항만 부두 로동자들의 투쟁을 보이였다. 그러나 그는 그 투쟁이 《반제적이며 정치적》이라는 데에, 《로동자들이 그 발생기부터 국가의 자주를 위하여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투쟁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35 폐지) 고 과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밖에도 저서의 여러 곳에서 로동자들의 정치 투쟁을 론의한다. 프로레타리아트는 경제적 리익을 위한 경제 투쟁 뿐만 아니라 부르죠아 정권의 혁명적 전복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프로레타리아트의 근본적인 경제적 리익은 정치 투쟁에서 집중적인 표현을 보는바 프로레타리아 계급 투쟁의 최고 형태는 정치 투쟁이라는 것이 주지되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투쟁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자연 생장적 로동 운동 단계에서가 아니라 로동 운동에 사회주의 의식이 주입되였을 때, 그리하여 의식적 로동 운동으로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이 정치 투쟁으로 이행하는 때 비로소 계급적 운동으로 되는 것이요, 일정한 정당을 위한 투쟁으로 전화되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 나라 로동 운동의 발전 단계들을 엄밀히 구별하지 않고 아무데나 정치 투쟁을 결부하고 있다.

력사 자료에 대한 엄밀한 선택과 검토는 력사적 정확성을 기하는 전제 조건이다. 저자가 왕왕이 보여 주는 자료 취급과 인거(引據)는 무비판적이거나 미화가 많다. 저자는 19세기 말에 출현한 《조합》들을 직맹으로 묘사하였는바 자본가의 어용적 또는 청부적 조직으로 출현한 조직들을 직맹으로 묘사함은 리해할 수 없다.

동시에 광범하게 리용된 통계는 조선 총독부의 관용 통계로서 반드시 맑스주의 력사가들은 그 통계의 부르죠아적 허위성에 대한 근본적 분석을 통해서만 사용하는 엄격한 태도가 보여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밖에도 일제하의 혁명의 과업에 대한 분석, 3.1 운동 이전 레닌의 명제에 의거하면서 전개한 조선 혁명 운동 발전의 제 단계에 대한 론의, 맑스―레닌주의 소조에 대한 분석 등에 걸치여 더 론의할 여지가 있다. 이것은 더 전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1957년 《근로자》 총내용

호수·폐지·제　　　목·필　　　자

—중 요 문 헌—

2　3　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김 일 성
3　3　상품 류통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김 일 성
4　3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함남도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되는 몇 가지 과업……………김 일 성
5　22　웨·이·레닌의 새 문헌들
8　3　문덕 선거구 선거자들 앞에서 한 연설……………김 일 성
10　3　최고 인민 회의 제2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연설……………김 일 성
10　16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에 제하여(테제)
11　3　위대한 10월의 사상은 승리하고 있다……………김 일 성
11　8　사회주의 국가들의 친선과 단결…김 일 성
11　16　기계 공업 부문 전국 열성자 회의에서 진술한 연설……………김 일 성
11　24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쏘련 최고 쏘베트 경축 회의에서 한 보고 ……………엔·에쓰·흐루쑈브
12　3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
12　13　평화 선언
12　18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경축 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 회의들에 참가한 우리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 ……………김 일 성

—권 두 언—

1　3　증산하며 절약하자
2　21　정의의 군대
3　14　경제 건설에 대한 지도 수준을 제고하자
5　3　만국의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6　3　당 사상 사업의 개선 강화를 위하여
7　3　쏘련 공산당의 레닌적 통일은 필승 불패이다
9　2　당과 정부와 인민의 위대한 통일
10　45　위대한 40 년
11　52　맑스—레닌주의의 불패의 기치 밑에
12　36　위대한 사변, 위대한 강령
12　43　12월 전원 회의의 거대한 생활력

—론　　　문—

1　8　당의 통일 단결의 가일층의 강화를 위한 투쟁은 당원들의 선차적 과업
2　25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하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다 ……박 금 철
2　29　우리 당 제2차 대회와 그의 력사적 의의……………박 연 백
2　48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일상적 통제……………홍 진 삼
4　17　제3차 당 대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한 상 두
4　28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과학적 기초…김 기 남
4　55　성 기관내 초급 당 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리 장 수
4　101　학습 강사들을 초급 당 단체 핵심으로 육성하자 ……………박 승 률
5　50　현 시기 농민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김 정 환
6　8　당 규률의 강화는 당의 공고화의 담보……………김 일 삼
7　14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과 우리 당에 의한 그의 창조적 적용 ……………조 재 선
8　25　조선 혁명 발전에 있어서 로동당 창건의 합법칙성과 그 의의 ………김　훈
9　34　개별적 당원들에 대한 당 단체의 지도……………허 일 훈
10　54　레닌적 당 생활 규범에 충실한 우리 당의 통일 단결은 조선 혁명

호수	페지	제목	필자
		승리의 기초	김 익 선
10	63	우리 당의 평화적 조국 통일 로선과 그의 실현을 위한 방안의 정당성에 관하여	신 진 균
11	64	현 시기 당내 사상 투쟁에서의 몇 가지 문제	김 국 훈
12	56	현 시기 당 상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 고리들	한 대 영
1	30	조선 인민군은 민족의 보위자이며 혁명의 보위자	김 봉 률
1	36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서의 다양성과 공통성에 대하여	마 춘 영
1	100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된 몇 가지 리론적 문제에 대하여	
2	40	프로레타리아트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의 불가분적 통일	김 영 남
2	55	실용주의 철학은 미제 침략의 사상적 도구	신 남 철
2	65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 일반화는 설비 리용률 제고의 주요 고리	리 동 신
2	73	우리 나라에서의 근로자들의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결합에 대하여	리 석심
3	18	영원히 쏘련 인민과 함께	김 창 만
3	26	군중 공작에서의 지도 일'군들의 복무성	김 영 식
3	44	농업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문제	김' 성 연
3	51	현 시기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와 형태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김 한 주
3	61	사회주의 도덕과 부르죠아 도덕	리 형 우
3	71	연암 박 지원의 철학 사상	신 남 철
3	83	중근동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	고 동 혁
4	39	레닌과 10월 혁명	정 판 률
4	47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와 원쑤에 대한 독재	정 진 영
4	63	전후 국민 소득의 급속한 장성과 인민 생활의 향상	윤 기 복
4	72	류통 부문 사업의 개선 강화를 위하여	리 상 선
4	81	생산 협동 조합의 조직적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	한 대 영
4	92	사상 투쟁에서의 문학의 역할	서 만 일
4	107	국제 로동 운동의 앙양과 그의 통일 단결의 강화	윤 완 희
5	7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역할	림 춘 추
5	32	쏘련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이 가지는 국제적 의의	김 상 준
5	43	반관료주의 투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서 을 현
5	60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하자	박 동 환
5	69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	김 인 성
5	79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 화학 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의 발전 전망	리 천 호
5	86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 원조》 정책의 침략적 본질	정 성 언
6	17	제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과 전망	리 종 옥
6	27	경제 건설에서의 인민 정권의 조직적 및 지도적 기능	김 정 일
6	37	지방 인민 회의들의 조직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	정 영 원
6	60	실천과 인식	주 용 목
6	67	미제는 조선 침략에서 종교를 어떻게 리용하였는가	김 희 일
6	74	최근 일본의 정치 정세	리 성 철
7	7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과 웨. 이. 레닌	김 희 일
7	24	인민 정권의 불패의 생활력	김 사 흠
7	32	의식주 문제 해결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 가지는 의의	리 석 심
7	39	직업 동맹 사업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박 상 홍
7	46	당 정책 관철을 위한 수산 부문 일'군들의 투쟁	강 점 구
7	53	출판물의 언어를 더욱 인민 대중에게 접근시키자	김 수 경
7	60	우리 나라 민족 문학 예술 고전 계승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신 구 현
7	71	인민 정권하에서의 개성의 자유	백 재 욱
7	79	독일의 재통일과 서부 독일에서의 원자 무기 무장 위협을 반대하는	

호수	페지	제목	필자
		투쟁	리하르드 피쉐르
8	14	위대한 10월의 기치는 조선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리 효 순
8	43	중국 인민 해방군 창건 30주년	장 필 진
8	52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의 현실적 가능성과 조건	최 재 우
8	58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련계 발전의 새로운 단계	남 춘 화
8	82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과 그의 위기	고 동 혁
9	6	제 인민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쏘련의 대외 정책	남 일
9	13	쏘련의 위력 장성은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 승리의 담보	박 우 영
9	19	문화 혁명에 대한 레닌적 원칙과 우리 나라에서의 문화 혁명에 대하여	김 태 선
9	26	사회주의적 문화 농촌 건설의 과업에 대하여	허 호
9	41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 원천	안 광 즙
9	49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정확한 결산 분배 사업	원 광 일
9	57	조선 철학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정 진 석
9	65	남조선에 있어서의 국민 소득과 경제의 파탄	
9	73	군비 축소는 평화의 공고화와 국제 긴장 상태 완화의 중요 조건	리 중 희
10	50	기본 건설 부문 사업의 개선 강화를 위하여	
10	68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있어서의 인민 주권의 기능	최 상 도
10	74	당 수매 정책의 정당성과 금후 량곡 수매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한 대 영
10	81	외화 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제1차 5개년 계획수행보장의 중요 담보	리 종 수
10	86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특성	김 상 학
10	96	민주 수도 평양의 혁명적 전통	박 시 형
10	101	당 경제 정책 집행에서 당성을 제고하자	전 윤 필
11	56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협조의 장성 강화는 10월의 사상의 구현	장 응 태
11	76	기계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제1차 5개년 계획 수행의 중요 담보	김 태 현
11	83	도시와 농촌 건설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자	리 종 율
12	50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단결은 평화와 사회주의 승리의 확고한 담보	김 정 환
12	65	10월 전원 회의 결정의 관철을 위하여	서 을 현 한 제 선
12	74	맑스-레닌주의 미학의 몇 가지 문제	문 종 상
12	82	사회주의와 평화적 공존 리념의 승리	고 화 영

—당 생 활—

호수	페지	제목	필자
1	54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한 민첩한 대응은 대중과의 련계 강화의 기본	신 리 범
1	59	산간 지대에서 농업 협동 조합 조직 지도 경험	문 덕 홍
2	82	생산 계획 완수를 위한 투쟁에서의 로동 대중의 창발성	박 종 덕
3	94	면화 증산을 위한 당 단체 사업	김 왕 도
8	91	농촌 핵심 당원들의 육성 훈련 사업의 개선 강화를 위하여	김 원 풍
9	77	어로 일'군들 속에서의 당 정치 사업	리 택 근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 자료—

호수	페지	제목	필자
6	85	일본 침략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애국적 의병 운동	김 경 인
10	103	항일 무장 투쟁에 있어서 유격 근	

호수 · 페지 · 제 목 · 필 자

거지 창설과 그의 의의 ……………문 은 도
11 88 조선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한 항일 무장 투쟁의 력사적 의의 …………리 나 영

—강사 및 선동원들에게 주는 자료—

2 87 조선 민족 해방 투쟁사상에서의 3.1 운동의 력사적 의의……………리 나 영
2 94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 ……………………리 능 영

—서적 해제 및 평론—

1 69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력사적 제 조건과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몇 가지 명제들에 대하여》(《인민》 1956년 11월호)에 대한 몇 가지 의견………………리 석 채
2 105 레닌의 저서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에 대하여 …………정 판 률
3 106 《조선 문학사》 (1—14세기)에 대하여……………………………………한 룡 옥
6 106 《조선 문학사》 (19세기 이후)에 대하여……………………………………김 헌 순, 김 재 하
12 99 리 청원 저《조선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 관하여…………………………황 장 엽, 김 후 선

—좌담회 및 독자들의 질문, 대답—

1 82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하여
1 64 우리 공장 실정에 적응한 내부 독립 채산제
4 24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비법적 통계 보고를 없애자 ……………정 영 술
4 119 중국 인민의 대만 해방을 위한 투쟁……………………………………리 순 청

—꼰 쓸 따 쩌 야—

3 99 과학적 무신론에 대하여……………리 희 재
5 98 비약의 제 형태에 대하여 …………김 후 선
6 100 제국주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박 도 수
9 92 본질과 현상 ……………………………리 종 술
12 90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편집국으로부터;

1958년부터 본지 발행 사일을 매월 1일로 변경함

《근 로 자》 제12호 (루계 제145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쇄 1957년 12월 20일

인쇄소 로동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년 12월 25일

ㄱ—40 742 값 45 원